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94호 HYUNBULNEWS.COM 2026년 9월 16일(음력 8월 6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종교특혜’ 세계청년대회 공공 지원 본격화 ‘논란’

정부, 문체부 소속 지원단 출범
‘거당적 지원’ 민주당 추진단도
서울 자치구 MOU · 조례 제정
“과도한 공적 지원, 지속 점검”

김내영 · 이현희 기자

‘정교분리 원칙 위반’, ‘종교 특혜’ 논란이 제기됐던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한 공적 지원과 종교 간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올해 3월 ‘국제문화행사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세계청년대회 개최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된 데 이어, 정부 공식 지원체계와 여당 추진단 구성,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조례 제정 및 업무협약이 잇따르고 있다. 국제행사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8월 14일 국무총리훈령으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속으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지원단은 △종합계획 수립·시행 △안전·수송·의료 등 분야별 세부계획 마련 △관계기관 간 업무 조정 △문화·예술·관광 프로그램 지원 △홍보 지원 등을 담당한다. 단장은 문체부 종무실장이 겸임하고, 부단장은 문체부 고위공무원단 중 문체부 장관이 임명한다. 필요할 경우 각 부처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도 있다. 활동 기한은 2027년 10월 31일까지다.

정부가 별도의 훈령으로 지원단을 설치하면서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공식 체계가 마련된 셈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뿐 아니라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지원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직후 ‘세계청년대회 거당적 지원’ 의사를 밝혔으며, 8월 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공동단장은 유동수·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각 지자체에서도 세계청년대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속속 마련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6월 11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12서초지구와, 서대문구는 서울대교구 제2서대문·마포지구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순택 대주교)’도 참여했다.

서울 중구는 8월 13일 서울대교구 제1지구와 같은 취지의 협약을 맺었다. 중구는 전반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고, 제1지구는 명동성당과 서소문성지 등의 현장 운영과 협력 지원을 맡는다.

행사 기간 참가자들의 방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용산구도 지원에 나섰다. 용산구는 9월 3일 서울대교구 제1지구와 협약을 체결하고 행사 운영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로구의회(의장 김철수)는 최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8월 27일 입법예고했다. 서포터즈 활동 기간은 2027년 8월 8일까지며 △세계청년대회 홍보 활동 △참가자 안내 및 문화교류 활동 △구로구 관광·문화자원 홍보 활동을 수행하도록 했다.

같은 날 구로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지자체 예산 범위 내 공간 제공 △행사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관련 시설 개보수 등이 담겼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이 국제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수준을 넘어 특정 종교가 주최하는 행사에 국가와 지자체가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특별위원장 보화 스님은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조례안을 제정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헌법 제20조 정교분리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이라며 “정부가 특정 종교 단체 행사에 대해 재정·공공시설 지원 등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상황은 맹렬히 규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도 “청년대회가 끝난 이후 관련 시설의 개보수나 유지·관리 등에 세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실제 예산과 행정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종교 간 형평성과 화합이라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진우 스님이 9월 8일 영축총림 통도사를 찾아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를 예방했다. 성파 스님은 진우 스님에게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찬탄하는 ‘관음찬(觀音讚)’ 게송이 담긴 족자를 선물했다. 사진=하성미 기자

연임 후 첫 예방…성파 대종사 “대중과 함께 뛰라”

진우 스님 8일 종정 스님 예방
성파 스님 친필 족자로 축하
원로회의, 총무원장 인준 가결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에 당선돼 연임에 성공한 진우 스님이 9월 8일 영축총림 통도사를 찾아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를 예방했다. 성파 스님은 친필 족자를 선물하며 격려했다.

이날 예방에는 상임선대위원장 수불 스님, 공동선대위원장 선각 스님, 종회의원 진각 스님, 총무원 포교부장 정무 스님을 비롯해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과 국장 스님들이 동참해 연임을 축하했다.

진우 스님은 먼저 정변전에서 삼배의 예를 올렸다. 성파 스님은 악수를 나누며 진우 스님에게 ‘관음찬(觀音讚)’의 게송이 담긴 족자를 전달했다. 족자에는 ‘일엽홍련재해동(一葉紅蓮在海東) 벽파심처현신통(碧波深處現神通) 작야보타관자재(昨夜寶陀觀自在) 금조강부도장중(今朝降赴道場中)’이라는 글귀가 담겼다.

이는 “한 잎 붉은 연꽃이 해동에 있어 푸른 파도 출렁이는 깊은 곳에서 신통력을 보이고, 어젯밤 보타낙가산의 관세음보살이 오늘 아침 이 도량에 강림했다”는 뜻으로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관세음보살처럼 종단을 위해 헌신하라는 축원을 담았다.

이어 성파 스님은 직접 준비한 옻 염색 스카프를 진우 스님과 참석한 스님들의 목에 둘러주며 격려했다.

진우 스님은 “지난 4년 소임을 보며 날마다 참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앞으로 그 부족함을 잘 채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파 스님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라며 “스스로 부족함을 절감했다는 것은 이제 제대로 아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증거”라고 칭찬했다. 이어 “4년 전의 진우 스님과 지금의 진우 스님은 완전히 다른 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진우 스님은 “책임과 부족함을 다 채우지 못할까 봐 깊은 두려움이 있다”고 말하자 성파 스님은 식법자구(識法者懼)의 가르침을 전했다. “법을 아는 자가 두려워할 줄 안다”고 강조한 성파 스님은 “진리와 책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그 무서움을 알기에 늘 경외심을 가지고 조심하게 된다. 지도자로서 느끼는 두려움이 있어야만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종단의 더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성파 스님은 진우 스님과 함께 이번 선거를 위해 헌신한 동참 스님들을 향해 “고삐를 절대 놓지 말고 끝까지 총무원장 스님과 함께 힘차게 뛰시라”며 참모진들의 지속적인 화합과 조력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자광 대종사)는 9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82차 회의를 열어 총무원장 인준안을 상정하고 만장일치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진우 스님은 선거법상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차기 총무원장으로 최종 확정됐다.

원로의장 자광 스님은 “원로의원 스님들이 항상 법체 청안하길 부처님 전에 기원드리며 바쁘신 가운데 종단을 위해 참석해줘 감사하다”며 “오늘 회의 안건인 제38대 총무원장 인준의 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스님들의 지혜를 모아 회의가 원만하게 마칠 수 있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재적 원로의원 23명 가운데 21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 김내영 기자



태고종, 미디어 자문위 출범…소통 강화

상진 스님, 9월 10일 전승관서
방송·신문 등 전문가 11명 위촉
전략 자문·콘텐츠 개발 등 역할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9월 10일 서울 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웅보전에서 미디어 자문위원 11명을 위촉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언론·홍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디어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종단의 대외 소통과 홍보 역량 강화에 나선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9월 10일 서울 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웅보전에서 미디어 자문위원들을 위촉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종단의 다양한 활동과 불교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에 위촉된 미디어 자문위원은 방송·신문·통신·인터넷 언론·홍보·콘텐츠·학계 등 미디어 각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 11명이다.

김대홍 KBS 보도본부장, 김한수 조선일보 종교전문기자, 김동훈 KT 전무·홍보실장, 오동운 MBC 교양국장, 남철우 동국대 광고홍보학과 대우교수, 최정엽 뉴시안 대표, 장윤희 연합뉴스TV 디지털이슈팀장, 홍순준 SBS 사회부장, 윤정재 홍보·콘텐츠 기획가, 박미영 뉴시스 부장, 임훈구 아시아경제 콘텐츠편집부 부국장 등이 참여한다.

방송기자와 PD, 신문기자, 통신·플랫폼 및 인터넷 언론 관계자, 홍보·콘텐츠 전문가와 광고홍보학계 인사까지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참여하면서 전통적인 언론 홍보를 넘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는 종단 홍보 전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태고종은 미디어 자문위원회를 통해 종단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대중의 콘텐츠 소비 방식과 미디어 이용 행태를 고려한 효과적인 소통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상진 스님은 위촉식에서 "태고종의 전통과 가치를 시대에 맞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알리고 국민과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미디어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면서 "미디어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태고종이 국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단의 소식을 알리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불교의 역할과 가치를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종단의 미디어 정책과 홍보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종단의 주요 사업과 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과정에서 미디어 활용 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종단 이미지 제고와 콘텐츠 기획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언론 보도와 방송, 디지털 플랫폼, 콘텐츠 제작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만큼 사안별 특성에 맞는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불교와 태고종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자문위원들은 "각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태고종의 좋은 활동이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문하겠다"면서 "태고종과 언론·미디어 현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월정사 주지에 인광 스님 임명

진우 스님, 9월 8일 임명장 수여
인광 스님 "모범 교구로 최선"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에 인광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인광 스님에게 월정사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인광 스님은 9월 1일 월정사에서 열린 '본사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서 선거인단 161명 중 119표를 얻어 주지 후보로 선출됐다.

진우 스님은 "여러 불사와 포교 전법의 노하우를 잘 전승해 멈춤 없이 발전하길 바란다"며 "한국불교 미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대중과 화합해 교구를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인광 스님은 "모범적인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이 경책해주고 지도편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이날 인광 스님은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네팔 대홍수 재난구호 지원금' 3000만원, 자비나눔 성금 5000만원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김내영 기자

군종교구, 명예군승에 호산 스님 위촉

9월 8일 남양주 봉선사서
위촉장·전시 가사 등 수여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가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을 명예군승으로 위촉했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9월 8일 남양주 봉선사 청풍루에서 개최한 '2026년 군승 하계 수련회 입재식'에서 호산 스님에게 명예군승 위촉장을 전달하고 전시 가사를 수여했다.

호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내년 육군훈련소 수계법회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또한 호국연무사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기적으로 방문해 군포교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같은 날 '2026년 군승 하계 수련회'와 '2026년 군포교팀 포교사 간담회'도 열렸다. 이번 군승 하계 수련회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봉선사와 가평 일대에서 진행됐다. 수련회에는 현역 군승과 군사찰 상주 민간성직자 등이 참여해 군 역량 교육과 군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육군사관학교 화랑호국사에서 열린 '2026년 군포교팀 포교사 간담회'에서는 군포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지운 기자

조계종, 총무원·산하기관 교역직 종무원 인사 단행

진우 스님, 9월 8일 임명

조계종이 공석이던 일부 총무원 및 산하기관 교역직 종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8일 오전 총무원 미래본부 사무총장에 일감 스님, 미디어홍보실장에 일규 스님,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에 성행 스님,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총장에 덕유 스님, 불교신문사 사장에 효명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에 상원 스님, 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에 덕운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앞서 9월 4일에는 총무원 사서실장에 남전 스님을, 사서국장에 구산 스님을, 사서과장에 영경 스님을 임명했다.

김내영 기자

실무 중심 선명상 지도법사 역량 교육

10월 6~9일 한국문화연수원서
현장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

선명상 지도법사 양성 교육 신청서 QR.

조계종 미래본부(본부장 일감 스님)가 선명상 프로그램을 이끌 지도법사들의 수행지도 역량 강화에 나선다.

미래본부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간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선명상 지도법사 양성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선명상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세계 명상의 흐름 속에서 선명상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편, 지도법사들의 수행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은 다양한 선명상 프로그램을 직접 실습하고 조별 시범운영과 발표를 진행하는 등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화두선명상, 자비명상, 호흡명상, 걷기명상, 차명상, 소리명상 등이 준비됐다. 선명상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세계 명상의 흐름, 선명상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방법, 선명상 대중화 전략 연구 방향 등 이론 강의도 이어진다. 교육 마지막 날에는 회향 법문과 수료식이 진행되며, 연수 수료증 발급은 지도법사 인증과정과 연계된다.

교육 대상은 현재 선명상 운영사찰과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에서 선명상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법사를 비롯해 선명상에 관심 있는 스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60명이며 선착순 접수한다. 신청은 9월 30일까지 구글폼을 통해 가능하다. 참가비는 30만원이다.

미래본부는 "이번 교육이 선명상 지도법사들의 수행지도와 포교·교육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선명상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과 대중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 모두의 평안과 행복에 기여하는 초석에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명상 지도법사 양성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선명상 공식 홈페이지(https://seonmeditatio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2011-1690

김내영 기자

조계종 제38회 포교대상 후보자 공모

계층·직능·문화체육 등 분야서
10월 8일까지 우편 및 내방 접수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불교와 종단 발전에 기여한 스님을 비롯해 재가자, 사찰, 단체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올해의 포교대상 수상자를 추천받는다.

조계종 포교부(부장 정무 스님)는 9월 8일 불기2570(2026)년도 '제38회 조계종 포교대상' 시행 공고를 발표했다. 접수는 10월 8일까지며, 계층포교·직능포교·문화체육포교·사회포교·대중매체포교·지역포교분야에서 대상, 공로상, 원력상 등을 선정한다.

제출 서류는 포교부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내방으로 접수하면 된다. 02-2011-1903

박지운 기자

2026년 진각종 밀교의례사업단 추계 학술대회

- 일 시 : 2026년 9월 29일 화요일 10시 30분
- 장 소 : 대한불교진각종 총인원 3층 대회의실
- 대주제 : 밀교의례의 설행과 전개
- 주 최 : 밀교의례사업단, 한국밀교학회, 위덕대학교 밀교문화연구원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불교진각종, 불교총지종

〈학술대회 시간일정〉

■총사회자 : 밀교의례사업단 책임연구원 명운(김치온)
10: 30 – 11: 00 예참 / 밀교의례사업단 총괄팀장, 교육원 교법연구실장 효광 정사
개회사 / 밀교의례사업단 실무단장, 진각종 교육원장 정법 정사
축사 / 밀교의례사업단 사업단장,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록경 정사,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종석 스님
내빈소개 / 사진촬영

■ 사회자 : 차차석(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
11: 00 – 12: 00 제1주제 발표 / 밀교의례 공양법에 대하여 (혜안화 전수, 위덕대)

■12: 00 – 13: 00 점심 및 휴식

■ 사회자: 권기현(위덕대 교수)
13: 00 – 14: 00 제2주제 발표 / 밀교의례 만다라 작법에 대하여(방정란, 경상국립대)

■ 사회자: 이병욱(보조사상연구원 원장)
14: 00 – 15: 00 제3주제 발표 / 밀교의례 관정에 대하여(성제 정사, 위덕대 교수)

■15: 00 – 15: 10 휴식 및 다과

■ 사회자: 김치온(동방문화대학원대 연구교수)
15: 10 – 16: 10 제4주제 발표 / 밀교의 티베트 호마의례에 대하여(박영빈, 밀교의례사업단 전임연구원)

■ 사회자: 김경집(동국대 초빙교수)
16: 10 – 17: 10 제5주제 발표 / 불복장의 만다라 정토(강대현, 위덕대 연구교수)

■17: 10 – 17: 30 총평 및 폐회사

대한불교진각종 밀교의례사업단

영규대사 서거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 다례문화재

일 시 : 불기 2570(2026)년 9월 23일(수) 10:00
장 소 : 공주시 마곡사 대광보전 앞 주무대
주 최 : 충청남도 공주시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6교구 본사 麻谷寺



“제발 살아있길”…재한 네팔인 간절한 기도

9월 6일 서울네팔법당서 기도회
쿤상 스님, 8월 30일 이어 두 번째
유족 · 대사관 관계자 등 20여 명
실종자 무사귀환 · 극락왕생 발원

이현희 기자 hyeonhae@hyunbul.com



최근 발생한 네팔 대홍수로 가족을 잃었거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재한 네팔 불자들이 9월 6일 서울 종로 서울네팔법당에서 열린 추모 기도회에 참석해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과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우리 가족이 살아 있는지, 시신은 발견됐는지 알 수 없어 참으로 답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최근 네팔 대홍수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가족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재한 네팔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 전에서 실종된 가족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도하고 먼저 떠난 이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9월 6일 서울 종로 서울네팔법당에서 네팔 대홍수 희생자 추모 기도회가 봉행됐다. 법당을 운영하는 라마 쿤상 도르제 스님이 개최한 이날 기도회에는 현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재한 네팔인과 유족, 주한 네팔대사관과 한국네팔국제교류협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두 번째 기도회를 연 쿤상 스님은 “유족들이 이곳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마련한 것으로, 누구든지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도드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불단 앞에 촛불이 하나둘 켜지자 참석자들은 쿤상 스님과 삼땐 라마 스님의 염송에 맞춰 ‘옴마니반메훔’을 함께 염송하며 한 시간 넘게 기도를 이어갔다. 차례로 촛불이 밝혀지는 동안 법당에는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어졌다.

쿤상 스님은 기도문을 통해 “부상자들은 하루빨리 회복하고 실종자들은 무사히 발견돼 가족 품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은 영원한 안식에 닿을 수 있길 기원한다”고 발원했다.

네팔 재난국가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대홍수로 1300여 명이 숨지고 5000여 명이 실종됐다. 이날 기도회에는 가족 65명을 한꺼번에 잃은 다와 칼상(54) 씨도 참석했다. 20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칼상 씨는 중국 접경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에게 사망자 명단을 전달받았다며, 자신과 연결된 가족 중 6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칼상 씨는 “제 가족들은 전부 라수와 지역에 살고 있었다”며 “형과 누나, 아들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갑자기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다”고 슬픔을 표했다.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이들의 마음은 더욱 절박했다.

가족과 함께 한국에 살고 있는 수수마 타망(31) 씨는 참사 발생 당일인 8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시아버지와 고모부, 삼촌 등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가족의 생사는 물론 시신 발견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타망 씨는 “이번 대홍수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 가족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참으로 답답하고, 아직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아들 고시쉬 타망(21) 씨는 “목숨을 잃은 모든 영혼의 평안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네팔법당은 앞으로도 재한 네팔인들이 현지 소식을 공유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기도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네팔 일상 회복 돕는다” 불교계 긴급구호

조계종 · 더프라미스 구호단 파견
아름다운동행 통해 기금 전달도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불교계가 현지에 긴급구호단을 파견하고 성금을 전달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사회부장 진경 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 관계자 6명으로 구성된 조계종 긴급구호단은 9월 8일 출국해 9월 13일까지 네팔 라수와 구역의 둔체와 베트라와티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구호 활동을 펼쳤다.

앞서 9월 5일 피해 현장에 먼저 도착한 선발대는 마을 여건을 살피며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현지 NGO와 협력해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선정하고, 구호 물품을 확보·배분하는 등 전달에 앞서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 이후 9월 8일 본대와 함께 피해 지원 지역을 방문해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긴급구호단은 출국에 앞서 9월 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사진〉 이에 진우 스님은 “피해 상황이 심각한 만큼 원활한 구호 활동을 펼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럴수록 안전에 유의하며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불교계 국제구호 NGO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도 9월 20일까지 구호 활동에 함께한다. 9월 8일 출국한 긴급구호팀은 피해가 큰 라수와·누와코트·다딩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원은 일률적인 물품 배분보다는 현지 주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물품을 확인해 지원하는 맞춤형 중심의 긴급 구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긴급구호팀은 현장 조사 과정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현지 상황과 수요에 따라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 전달도 잇따랐다. 월정사 주지 인광 스님은 9월 8일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네팔 대홍수 재난구호 지원 성금’ 3000만원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과 일반직 종무원들은 2400만원을 기탁했다. 같은 날 서울 연화정토사(주지 성천 스님)도 신도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기금 500만원을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을 위해 전달했다. 아름다운동행은 기금을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구호 활동을 펼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조계종복지재단·아름다운동행은 10월 말까지, 더프라미스는 9월 말까지 모금을 이어간다.

이현희 기자

- 하나은행 271-910006-64104 조계종사회복지재단
- 농협은행 301-0366-4563-11 아름다운동행
- 하나은행 158-910020-26904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마을 사라져도 삶은 계속된다”



조계종 긴급구호단이 9월 9일 촬영한 네팔 트리슐레강 아래 마을의 피해 현장.

조계종 구호단, 8일 현지 파견
주민 필요 물품 파악해 조달
둔체 · 베트라와티에 구호품
10만달러 지원…“지속 절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네팔 대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총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 규모의 긴급구호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와 아름다운동행, 사회복지재단으로 구성된 긴급구호단은 9월 9일 오전 6시 네팔 수도 카트만두를 출발해 북부 라수와 지역 둔체(Dhunche)를 방문해 현지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구호단이 이동한 트리슐리강 일대는 홍수와 산사태로 도로와 교량이 곳곳에서 유실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장을 안내한 니마 세르파 아름다운동행 현지 협력 NGO 대표는 사라진 마을을 가리키며 “큰 장이 서던 마을이었는데 이번 홍수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인명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도 아직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한 긴급구호단장 선일 스님(총무원 사회국장)은 “우선은 피해 주민들을 직접 만나 필요한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호단의 현장 접근도 쉽지 않았다. 산사태와 급류로 기존 도로와 다리가 곳곳에서 유실돼 비포장 산길로 우회해야 했다. 카트만두에서 둔체까지 거리는 약 130㎞에 불과하지만 홍수와 산사태로 도로가 끊기면서 이동에 꼬박 하루가 걸렸다.



카이상 라마 시장 등 피해 주민들을 만나 현재 상황 등을 청취하는 모습.

실무자들은 둔첸 시장인 카이상 라마 씨와 마을 이장 다와 다망 씨를 만나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과 현재 주민들의 생활 실태를 확인했다.

카이상 라마 시장은 아내 쪽 친척을 포함해 친척 16명이 이번 홍수로 실종됐다. 가까운 친척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시장으로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생계와 복구를 챙겨야 하는 처지다.

카이상 시장은 “돈이 있어도 도로가 끊겨 물건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식료품을 준비해 이곳까지 전달해 주는 것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면서 “다시 평범한 사람들의 삶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도 시급하다. 일부는 현재 현지 사찰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으며, 일부는 친척들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긴급구호가 끝난 뒤에도 이들의 생활과 교육, 돌봄을 위한 중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계종 긴급구호단은 우선 피해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종합구호키트를 전달했다. 구호키트는 5인 가족이 약 한 달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쌀과 렌틸콩, 소금, 설탕, 라면, 고열량 비스킷, 식용유 등 식료품과 치약을 비롯한 위생용품 등으로 구성됐다.

현지 유통망을 통해 신속하게 확보한 구호물품은 9월 10일과 11일 이틀간 배분됐다.

글 · 사진/네팔 라수와 둔체=공동취재단

오래도록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제38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기간 동안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종도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종도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지지에 좋은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고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저를 믿고 귀한 한 표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무겁고 소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아쉬움은 제 몫으로 깊이 새기고, 이번 선거를 통해 종단의 미래를 걱정하고 불교의 새로운 길을 염원하는 많은 분들의 뜻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당선되신 진우스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종단을 이끄시는 길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종단의 안정과 화합,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큰 원력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38대 총무원장선거 과정에서는 서로의 뜻과 입장은 달랐을지라도 이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종단의 앞날을 걱정하고 불교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선거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렸던 종책과 종도 여러분께서 들려주신 소중한 말씀을 오래도록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수행과 포교, 종단의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시기를 불보살님 전 기원드립니다.

불기2570(2026)년 9월

경우 합장

1만 수계 동국대 영캠프, 포교 새 장 연다

건학위 연석회의서 행사 계획 보고
9월 17일 서울캠퍼스 영캠프 개최
3일 신청 접수서 1분 만 전석 매진
장충체육관서 대운동장 확대 운영
청년 불자 1만 명 수계에 관심 고조
WISE캠, 11월 17일 영캠프 개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학생 전법 축제로 자리매김한 '동국대 영캠프'가 올해에도 더욱 뜨거운 열기로 돌아왔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 스님)는 9월 9일 본관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6차 건학기본기관장 연석회의'를 열고 서울·WISE캠퍼스 영캠프 계획을 보고했다.

2024년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창립과 함께 처음 개최된 영캠프는 '힙한 불교의 열기를 잇고, '청년불자 씨앗'을 심는 청년세대 전법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로 자승 대종사가 남긴 '청년전법이 희망이다'라는 원력을 이어받아 마련됐다.

올해 서울캠퍼스 영캠프는 '주인공, 번뇌를 씻어내다'를 주제로 9월 17일 오후 5시 교내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영캠프는 처음 시작된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충체육관에서 열렸으나 올해부터 동국대 대운동장으로 옮겨 진행된다. 더 많은 청년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이를 위해 영캠프 학생기획위원단 역시 대규모로 구성됐다. 이번 확대 개최를 통해 청년 불자 1만여 명이 한자리에서 수계를 받게 되며, 이는 불교 역사상 최초 규모로 기록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영캠프에 대한 열기는 뜨겁다. 실제 9월 3일 오후 6시부터 진행한 '2026 영캠프' 참가 신청이 시작 1분 만에 매진됐다. 지난해 참가 신청이 2분 만에 마감된 데 이어, 올해는 마감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며 불교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해를 거듭할수록 뜨거워지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영캠프 행사는 수계식과 장학증서 수여식, 축하공연으로 진행된다. 수계식은 삼사 칠증 스님의 입장 후 시작되며 연비의식은 전법특임교수, 강사 등 150여 명의 스님이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금은 수계식을 포함해 오후 8시까지 행사에 동참한 불교동아리 회원이자 2026년도 2학기 정규학기 재학생에게 지급된다.

영캠프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드림패스 마일리지 30점, 신행 마일리지 20점이 적립되며 행사에 동참하는 교수 및 직원에게는 건학이념수행평가 점수 3점, 교육 점수 3점이 부여된다.

축하 공연 출연진도 눈길을 끈다. 국민 아이돌로 급부상한 리센느를 비롯해 래퍼이자 프로듀서인 지코, 다국적 보이그룹 NCT드림이 참여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조영일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 사무국장은 "초반에는 7000명 규모의 행사였지만 인원이 늘어서 1만 명으로 영캠프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1만여 청년 불자가 교내 운동을 가득 메운 장관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1만여 명 규모의 수계법회를 계기로 청년 전법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향후에도 청년세대와 함께 호흡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WISE캠퍼스 영캠프 계획도 발표됐다. '동행, 함께 길을 열다(가칭)'을 부제로 오는 11월 17일 오후 3시 교내 문무관에서 열린다.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WISE캠퍼스 영캠프는 수계식과 어울림 한마당, 초청가수 공연으로 진행된다.

수계식은 삼사 칠증 스님의 주재로 이뤄지며 연비의식은 WISE캠퍼스 전법특임교수, 강사, 서울캠퍼스 학인 스님 등이 참석해 진행된다.

WISE캠퍼스 정각원장 법천 스님은 "학생 주도의 축제인 영캠프를 통해 불교 동아리의 결속과 참여를 높이고 건학이념 실천 및 청소년 불자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건학이념 구현과 WISE캠퍼스 재학률 상승 등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학내 구성원들에게 대학생 전법 축제인 '영캠프' 성공 개최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불교동아리와 영캠프 법회가 활성화되면서 학생들이 팔정도 광장 부처님에게 삼배를 올리는 학생들이 많아졌음을 체감하고 있다"면서 "이번 영캠프에서 동아리 회원 7000명 이외에도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가신청을 했다. 참가 구성도 미국에서 오는 학생부터 북한 이탈 대학생까지 다양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영캠프 개최까지 1주일 남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영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학내 구성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가 9월 5~6일 '바람의 길 쓰담 순례'를 진행했다. 사진은 갑사 대웅전 앞에서의 단체촬영 모습.

여성불자들, 쓰담순례로 수행

9월 5~6일, 마곡사·갑사 등서
수행·기도하며 전법 원력 모아

전국 여성불자들이 마곡사에 모여 뭇생명을 쓰다듬을 수 있는 수행 정신을 되새겼다.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회장 김의정)는 제6교구본사 마곡사(주지 원경 스님)에서 9월 5일부터 6일까지 '마곡사 바람의 길 쓰담순례'를 진행했다. 이번 순례는 천년 백제불교 역사를 간직한 태화산과 계룡산에서 문화유산을 체험하며 수행 정신을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전국여성불자회 회원 137명이 동참해 마곡사를 비롯해 계룡산 갑사, 신원사 등을 순례하며 수행과 기도를 함께하며 전법의 원력을 모았다. 특히 마음나누기 프로그램에서 회원들의 찬불가 공연, 지역 및 직능별 소통의 장도 마련돼 교구 회원들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의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쓰담순례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실천이며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는 수행"이라며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 역시 천년의 역사 속 또 하나의 소중한 흔적을 남기는 수행의 한 모습이니 자긍심을 갖기 바란다"고 서원했다.

첫날 한국문화연수원 다목적홀에서 입재식을 시작으로 조계종 포교부장 정무 스님의 '불교5대 수행법' 특강이 진행됐다. 강의 후에는 자비걷기 명상으로 마곡사 순례를 마쳤다. 이어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 개막작 영화 '절해고도'를 관람하며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튿날에는 예불과 명상, 아침공양을 마친 후 임진왜란 의승장 영규 대사의 사적비가 있는 계룡산 갑사와 명성왕후 기도처 신원사를 참배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전국여성불자회는 10월 20일에는 '임시대의원총회'를, 11월에는 '제3회 김장은 축제다'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지운 기자

조선 왕실 조성 불경·불상 보물된다

국가유산청, 보물 지정예고
'불정다라니경' 등 4건 공고

조선 왕실 주도로 조성된 불경과 불상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조선 전기 왕실 주도로 간행된 '불정심다라니경(한문·언해본)'을 비롯해 '평창 상원사 석가여래삼존좌상·16나한상 일괄 및 복장유물', '순천 송광사 오십삼불회도', '공주 마곡사 동종'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중앙도서관이 소장 중인 '불정심다라니경(한문·언해본)'은 한문본과 언해본이 함께 수록된 책으로 각각 3권씩으로 구성돼 있다. 한문본은 1485년(성종 16) 인수왕대비의 주도로 간행된 목판본이며, 언해본은 1455년(세조 1) 조성된 금속활자로 인출한 것이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불정심다라니경(한문 · 언해본)'.

국가유산청은 "한문본과 언해본의 구성을 가진 책 중에서 조성 당시의 온전한 원형으로 전해지고, 지정된 사례는 현재 없다"면서 "한문본만으로 구성된 동일 책과 비교할 때도 내용과 인쇄 상태가 뛰어난 선본(善本)이라는 점에서도 가치가 크다"고 지정의 이유를 밝혔다.

월정사성보박물관에 수장 중인 '평창 상원사 석가여래삼존좌상·16나한상 일괄 및 복장유물'은 예천 운복사에 봉안돼 있었던 것으로 소조상 가운데 없어진 상을 1711년 목조로 다시 제작한 것이다. 1885~1886년경 운복사에서 상원사로 이안하고 왕실 주도로 개채(改彩, 다시 채색함) 중수한 다음 영산전에 봉안했다.

'순천 송광사 오십삼불회도'는 오십삼불 신앙을 불화로 구현한 사례로, 그 구성이 완전히 남아 있다. 복장낭 속 회향발원문을 통해 수화승 의겸을 중심으로 한 26명의 제작 화승, 1725년이라는 제작 시기가 밝혀진 작품이다.

'공주 마곡사 동종'은 몸체에 양각으로 새겨져 있는 주종기(鑄鍾記)를 통해 승장(僧匠) 보은이 1654년(효종 5) 제작하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동종이다. 처음 안곡사(安谷寺)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됐는데 18세기 중반 경 안곡사가 폐사될 무렵에 마곡사로 이운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종 표면에는 제작을 위해 신도들이 시주한 물목을 종시주(鍾施主), 용두시주(龍頭施主) 등으로 구분하여 새겨 놓았는데, 이는 종뉴와 종신을 별도의 틀로 제작한 뒤 두 틀을 결합하여 주조했던 당시 동종 제작 과정을 설명해 주는 기록으로서 학술적 가치 또한 높다는 평가다. 신중일 기자

운문사·봉녕사 '출가학교' 참가자 모집

운문사, 11월 27일~12월 6일
봉녕사, 내년 1월 21~30일

청도 운문사(주지 은광 스님)와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가 여성들을 위한 '단기출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운문사는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제2기 운문사 바라밀 출가학교'를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바라밀 출가학교는 '진정한 행복은 지금부터!-백프로 리얼 스님의 하루 살아보기'를 주제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대중생활이 가능한 17세부터 65세 여성 15명이다. 참가자들은 실제 스님의 일상을 체험하며 수행과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 및 108배, 아침 발우공양으로 하루 시작을 연다. 이후 상강례, 습의, 후원 운력, 사시마지, 점심공양으로 오전 일정을 마친다. 오후에는 포행, 수업, 세면, 저녁공양이 진행된다. 이어 저녁예불, 좌선 정진, 수행일기 작성 후 취침으로 하루 일정을 마무리한다.

참가비는 성인 40만원이며 재학증명서를 제출한 고등학생·대학생은 20만원이다.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010-3686-7118

수원 봉녕사도 2027년 1월 21일부터 30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열리는 '제7기 여성출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차를 우리고 마음을 바라보다'를 주제로 행다선명상이 집중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삼귀의 오계 수지, 발우공양, 조석예불, 운력, 실참수행 등을 체험한다. 경전 독송과 좌선정진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부처님의 생애와 기초교리를 통해 불교 가르침을 배우며 수행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7기 단기출가학교는 심신이 건강한 17세부터 60세까지의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한다. 선착순 모집으로 참가비는 60만원이다. 신청은 봉녕사 홈페이지(www.bongnyeongsa.org) 공지사항을 확인해 해당 제출서류와 함께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 010-9897-4127 박지운 기자

'평화통일 글짓기' 대상에 조희원·송다영

9월 8일, 수상작 54편 발표
'고추잠자리의 약속' 등 선정

남북의 평화와 화합,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염원을 담은 글짓기 공모전에서 조희원 씨의 시 '고추잠자리의 약속'과 송다영 씨의 수필 '그냥은 안 돼요?'가 대상에 선정됐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성행 스님, 이하 민추본)는 9월 8일 '불교 평화통일 글짓기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 관계 속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높이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열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7월부터 8월 15일까지 어린이·청소년·대학생·성인 부문으로 나눠 시와 수필을 접수했으며, 총 324편이 출품됐다. 1차 심사를 통해 75편을 본심 대상작으로 선정했으며, 8월 3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2차 심사를 진행해 최종 54편의 수상작을 확정했다.

수상작은 대상(조계종 총무원장상) 2편을 비롯해 최우수상(명법사 실천회 총재 도문 큰스님상) 5편, 우수상(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상·불교신문 사장상) 17편, 가작 10편, 입선 20편이다. 심사는 조계종연구소장 원철 스님을 위원장으로 5명의 심사위원이 맡았다.

청소년 부문 대상작인 '고추잠자리의 약속'은 평화통일이라는 주제를 진정성 있게 풀어내면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인 부문 대상작은 '그냥은 안 돼요?'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민추본 홈페이지(www.uni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상식은 9월 말 개최될 예정이다. 이현희 기자

무진장 대종사 13주기…"청빈 실천"

9월 9일, 서울 조계사 극락전서
진관 스님 "유품 알릴 기회 오길"



한평생 포교전법에 매진해 온 혜명당 무진장 대종사의 원적 13주기를 맞아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추모법석이 마련됐다.

무진장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진관 스님)은 9월 9일 서울 조계사 극락전에서 '혜명당 무진장 대종사 열반 13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 사회를 진행한 범상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스님은 한국불교에 새로운 포교의 장을 열어 온 수행자의 표본으로만 언급될 뿐, 정작 스님에 대한 기림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며 "스님의 뜻과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받들어 실천해 나가자"고 서원했다.

이후 영단에 헌향과 삼배를 올린 참석자들은 무진장 스님과의 추억을 회고하며 추모의 뜻을 전했다.

상좌인 진관 스님은 "조계사 등지에 흩어져 있던 스님의 유품이 현재는 조계종 박물관 수장고에 있어 참 다행이지만 모든 사람이 유품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스님의 흔적이 담긴 유품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꼭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명안 스님은 무진장 스님을 청빈한 스님으로 기억했다. 명안 스님은 "스님은 청빈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오롯이 수행의 길을 걸어온 묵묵한 수행자였다"고 전했다. 이현희 기자

석불사, 음악과 미술로 물든다

9월 12일 '2026 가을음악회'
10월 10일 '8회 어린이 사생대회'

한강변에 자리한 석불사에서 음악과 미술로 물드는 가을축제가 잇달아 열린다. 서울 석불사(주지 경륜 스님)는 9월 12일 오후 6시 '2026 석불사 가을음악회'와 10월 10일 오전 10시 '제8회 어린이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9월 12일 '한강에 머물다'를 주제로 열리는 '석불사 가을음악회'에서는 유명 가수와 음악인들이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트로트 가수 박성온·나상도, 더블베이스 연주자 김혜인, 리연, 어쿠스틱밴드인 라두밴드가 무대에 올라 가을 산사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저녁을 선사할 예정이다.

10월 10일 여덟 번째로 열리는 '어린이 사생대회'에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이 참가해 그림 솜씨를 뽐낸다. 사생대회 주제는 현장에서 발표되고 참가 학생 전원에게는 크레파스, 스케치북이 주어지며 시상도 진행된다.

이날 삐에로풍선, 버블쇼, 페이스페인팅, 연꽃등 만들기, 컬러믹스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돼 온 가족이 가을을 다채롭게 만끽할 수 있다. 참가비 무료. 박지운 기자

이론 40%·실습 60%…농업기술 익혀 자립의 길로

아름다운동행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보리가람 10년의 기적'

② 식량 자립의 꿈 일구다

594명 농업인재 키운 실무형 교육 눈길
농업·원예·동물보건 등 3개 과정 운영
관개·온실·축산·식품가공 등 현장 중심
취업·창업·진학…지역 농업기술 전파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 보리가람에서는 스님들이 학생들에게 불교를 소개하고 선명상 등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법인처장 선정 스님과 학생들이 선명상 후 차담하는 모습.

◀ 보리가람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실습 중심에 있다. 학생들은 작물을 관리하고 수확하는 과정까지 농업의 전 과정을 경험한다.



보리가람의 하루는 일반적인 대학 수업과 다르다. 동물보건 및 생산 과정 학생들은 오전 6시부터 착유와 청소, 가축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학생들에게 농업은 책 속의 지식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만지고 확인하는 기술이다. 농기계에 대한 이해와 실습도 수업에서 빠질 수 없다.

탄자니아에서 농업은 삶과 가장 가까운 산업이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식량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도 연결된다.

조계종이 탄자니아에 설립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이하 보리가람)은 이러한 농업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청년들이 전문기술을 익혀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농업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다.

2016년 57명의 첫 입학생으로 시작한 보리가람은 올해 제8회 졸업식까지 59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3년간 기숙사 생활을 하며 농업·원예·동물보건 및 생산 분야를 공부하고 이론보다 현장 실습에 비중을 둔 교육을 받는다.

현재 보리가람은 △농업생산(Agriculture Production) △원예(Horticulture) △동물보건 및 생산(Animal Health and Production) 등 3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3년 과정으로, 1학년 기초기술자격(Basic Technician Certificate), 2학년 기술자격(Technician Certificate), 3학년 일반 디플로마(Ordinary Diploma) 과정으로 이어진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갖춰야 할 역량도 달라진다. 첫해에는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이고 반복적인 기술을 익히고 2학년에는 생산에 필요한 실무와 현장기술을 습득한다. 3학년에는 현장 운영과 일상 업무뿐 아니라 관리·감독 역량까지 공부한다. 이론과 실습 비율은 40 대 60으로 학생들이 농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폭넓게 익히도록 구성됐다.

밭과 축사가 교실…현장에서 익히는 농업기술

보리가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 안에 마련된 농장과 온실, 축산시설을 교육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작물 재배부터 관개, 병해충 관리, 수확, 축산과 가축 질병 관리까지 농업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한다.

보리가람의 하루 역시 일반적인 대학 강의실 수업과는 다르다. 동물보건·생산 과정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착유와 축사 청소, 가축 건강상태 점검 등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후 이론과 실습 수업을 진행하고 가축 치료나 농가 지원 활동에도 참여한다. 농업생산과 원예 과정에서는 관개시설 점검 및 설치, 작물 생육 관찰, 관수, 제초, 토지 정리, 보식, 수확, 병해충 관리 등을 익힌다.

학생들이 직접 생산활동에 참여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학기 중 수확한 농산물은 학생들의 급식 부식으로 활용하고 방학 중 생산된 농산물은 재래시장에 판매한다. 판매수익은 다시 농장 개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다. 교육을 위해 농산물을 생산하고, 생산물을 학교 구성원의 식생활과 시장에 활용하며, 판매수익을 다시 농장 운영에 투입하는 구조다. 농업교육과 생산활동이 분리되지 않는 이유다. 학생들에게 농업은 '배워야 할 과목'이면서 동시에 직접 생산하고 수익을 만들어보는 경제활동이 된다. 학과별 현장 견학도 학기당 두 차례 진행된다. 농업연구기관과 농업기업, 조경업체 등을 찾아가 학교에서 배운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본다.

변하는 농업환경 맞춰 교육과정 개편

보리가람은 농업기술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역량기반교육훈련(CBET)을 적용해 학생들의 실제 수행능력을 평가한다. 지난 10년 동안 기후변화와 노동시장,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도 세 차례 개편했다. 교수진 역시 관련 분야 학사·석사 및 공학·수의학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같은 교육은 졸업 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쳤다. 졸업생들은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취업을 비롯해 농업 관련 사업, 농자재·동물의약품 분야, 묘목·조경사업, 고등교육 진학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일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해 농업정보를 공유하거나 마을 농업지도·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조용진 보리가람 지부장은 "교육을 통한 자립이라는 목표는 상당한 수준으로 달성됐다"며 "졸업생의 80% 이상이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를 도우며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리가람 교육의 의미에 대해 "농업을 계속할 것인지, 취업할 것인지, 창업할 것인지, 고등교육을 이어갈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농업 넘어 만나는 한국불교

보리가람의 교육환경은 한국불교계의 지원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 무상교육을 비롯해 전기와 물 등 필수 서비스, 교육 기자재, 축사와 온실, 인터넷 등 농업 기반시설, 우수한 강사진과 체육활동 등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됐다.

불교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불교를 접할 기회도 제공된다. 조계종은 법인처장 스님을 파견, 학생들이 불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 법인처장 선정 스님은 선명상 시간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불교에 귀의한 학생이 탄생하기도 했다. 특정 종교를 강요하기보다 학생들이 자신이 접해온 종교와 불교의 가르침을 비교하고, 자신의 삶에 맞는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교육 넘어 선택할 수 있는 힘 키운다"

보리가람은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출발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졸업생들이 취업과 창업, 진학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으로 성장했다.

물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농업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새로운 농업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관개시설 등 농업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업정책의 현장 적용과 법·제도 개선도 필요한 과제로 꼽힌다.

또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맞춰 교육의 범위와 수준을 높이고, 졸업생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역할을 확대하는 것도 과제다.

식량 자립을 위한 기반은 결국 사람을 키우는 데서 시작된다. 한국불교의 지원으로 시작된 보리가람의 교육은 이제 농업기술과 자립을 넘어 학생들에게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열어주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터·뷰

"보리가람에서 배운 농업, 탄자니아의 미래 될 것"

에릭·아마니 동국대 유학생

보리가람 졸업 후 한국 유학
환경·식품공학으로 배움 확장
"고국 농업 발전 보탬 되고파"

보리가람에서 농업을 배운 두 청년이 한국에서 새로운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에릭(28·사진 왼쪽)과 아마니(26·사진 오른쪽)는 보리가람 졸업 후 한국으로 유학 와 동국대에서 각각 환경과학과 식품생명공학을 공부하고 있다. 두 사람의 전공은 다르지만 출발점은 같다. 농업을 직접 경험하고 기술을 익혔던 보리가람에서의 3년이다. 농업고를 졸업한 에릭은 농업이 지속가능한 삶을 만드는 중요한 분야라는 생각에 보리가람에 입학했다. 2021년 졸업 후 2022년 한국에 온 에릭은 한국어학당을 거쳐 2024년 동국대 융합환경과학과에 입학했다. 현재 3학년으로 온실가스(GHG) 관리와 ESG, 탄소중립, 환경공학 등 환경과학 분야를 공부하고 있다.



보리가람에서의 학교생활을 묻자 에릭은 '10점 만점'을 꼽았다. 일상생활은 물론 졸업 후 진로에도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가 생각하는 보리가람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장 실습이다. 농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입학 전과 달리, 농부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 농사를 경험하면서 농업을 배우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보리가람에서 시작된 에릭의 배움은 이제 농업에서 환경과학으로 영역을 넓혔다. 농업 역시 기후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농업기술에 환경과학에 대한 전문성을 더해 농업과 환경의 문제를 함께 바라보고 싶다는 것이다. 공부를 마친 뒤에는 환경과 농업을 연결하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이 목표다.

2020년 보리가람에 입학해 2023년 졸업한 아마니는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활용으로 관심 폭을 넓혔다. 처음에는 농사가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리가람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보면서 농업에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마니는 "3년 동안 친구들과 함께 이른 아침부터 밭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돌봤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워 수확하기까지 직접 경험하면서 농산물이 생산되는 과정을 배웠고 농업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경험도 쌓았다.

아마니 역시 보리가람 생활에 '10점 만점'을 줬다. 아마니는 "농업 지식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자립심과 협동하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었다"면서 "자연과 함께 생활하며 끈기와 성실함을 익혔고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다"고 말했다.

졸업 후 한국으로 유학을 결정한 것도 농업에 대한 배움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였다. 보리가람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더 안전하고 가치 있는 식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공부하고 싶었다.

2023년 12월 한국에 온 아마니는 2025년 동국대 식품바이오융합공학과에 입학했다. 미생물과 효소,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해 식품의 안전성과 가치를 높이는 공부를 하면서 농업과 식품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공부하며 탄자니아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졌다.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공과 저장, 식품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하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니는 "탄자니아에는 수확한 농산물이 쉽게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가공하고 저장하는 식품 보존 및 생명공학적 가공 기술이 필요하다"며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탄자니아에 가져가 농부들이 힘들게 키운 작물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한국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다. 더 배우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배움은 다시 탄자니아로 향한다.

에릭은 환경과 농업을 함께 이해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어 한다. 보리가람에서 익힌 농업기술에 환경과학 전문성을 더해서 탄자니아 농업이 기후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는 게 목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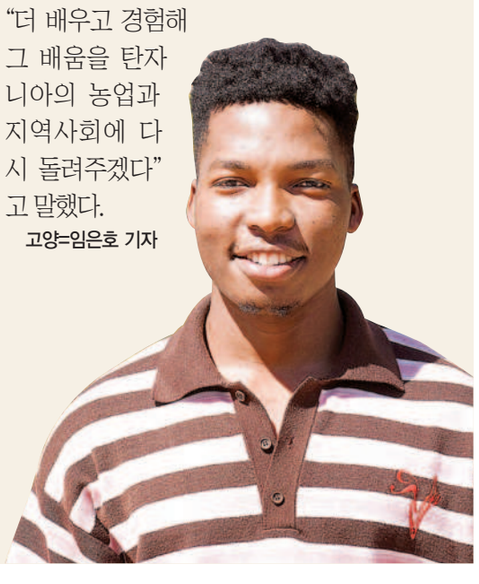
아마니는 식품생명공학과 농업기술을 접목해 탄자니아 농가의 생산물을 보다 안전하고 가치 있는 식품으로 개발·유통하는 데 기여하고 싶어 한다. 공부를 마친 뒤에는 탄자니아로 돌아가 자신이 배운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업과 식품공학을 잇는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사람에게 보리가람은 단순히 농업기술을 배운 학교가 아니다. 농업을 바라보는 눈을 열고 새로운 진로와 미래를 꿈꾸게 한 출발점이다.

아마니는 보리가람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해준 고마운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탄탄한 농업의 기초뿐 아니라 끈기와 성실함, 자립심과 자신감을 배웠고 지금의 식품생명공학자라는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도 보리가람에서 얻은 중요한 변화라고 했다.

에릭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 한국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에릭은 "훌륭한 도덕적 가치관 속에서 성장하고 오랜 기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조계종과 불자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라며 "더 배우고 경험해 그 배움을 탄자니아의 농업과 지역사회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고양=임은호 기자





제16회 조계사 국화화엄축제 '형형색색 가을향연' _2026년 10월~ 11월

봉 축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조계사 사부대중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OGYESA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효찰대본산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 주 사

주 지 성 효

사부대중 일동



(18347)경기도 화성시 용주로136(송산동)
(031)234-0040/팩스(031)234-2818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오대산 월 정 사

조 실 연암 현해
회 주 퇴우 정념
주 지 인광

사부대중 일동

주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전화 033-339-6800 팩스 033-332-6915
홈페이지 www.woljeongsa.org 오대산 월정사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본사

설악산 新 興 寺

사부대중 일동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1137(설악동 170)
전화 033)636-7044, 7393 팩스 033)636-7556 www.sinheungsa.kr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본사
호서제일가람
속리산 대법주사

주지 정덕

외 사부대중 일동



종무소: (043)543-3615 / 원주실: (043)543-4755
템플스테이: (043)544-5656 www.beopjusa.com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405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 화 사
DONGHWASA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1(도학동 35) / www.donghwasa.net
TEL : 053)980-7900 / FAX : 053)985-4405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본사
황악산 직 지 사

사부대중 일동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www.jikjisa.or.kr
☎ (054)429-1700~3, 429-1713~15 Fax (054)436-3174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해인삼매 속에 펼쳐지는 바로 지금 여기 이곳 원각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법보종찰 해인사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
주지 현암 혜일 종사

사부대중 일동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www.haeinsa.or.kr
☎(055)934-3000 Fax 934-3010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방 장 여산정여 대종사

주 지 산해정오

신도회장 도림이윤희

금정총림 사부대중 일동

금정산 산마루의 **금빛 우물**,
하늘에서 내려온 **금빛 물고기**

大韓佛教 曹溪宗 第14教區 本寺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www.beomeo.kr ■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 종무소 051-508-3122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팔공산 銀海寺 (은해사)

주지 덕두 성로



경북 영천시 청통면 은해사로300(치일리 479) ☎ (054)335-3318~9
Fax (054)335-0293 www.eunhae-sa.org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 운 사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415(구계리1166) www.gounsa.net
대표전화 054)833-2324, 010-5163-2324
템플스테이 054)833-6933, 010-2653-0872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예하
방 장 중봉 성파
수 좌 향우 명신
주 지 현 덕

사부대중 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583)
전화 055)382-7182 팩스 055)382-7196 www.tongdo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유가종찰·미륵성지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본사 모악산 **금산사**

주 지 **화 평**
신도회장 **한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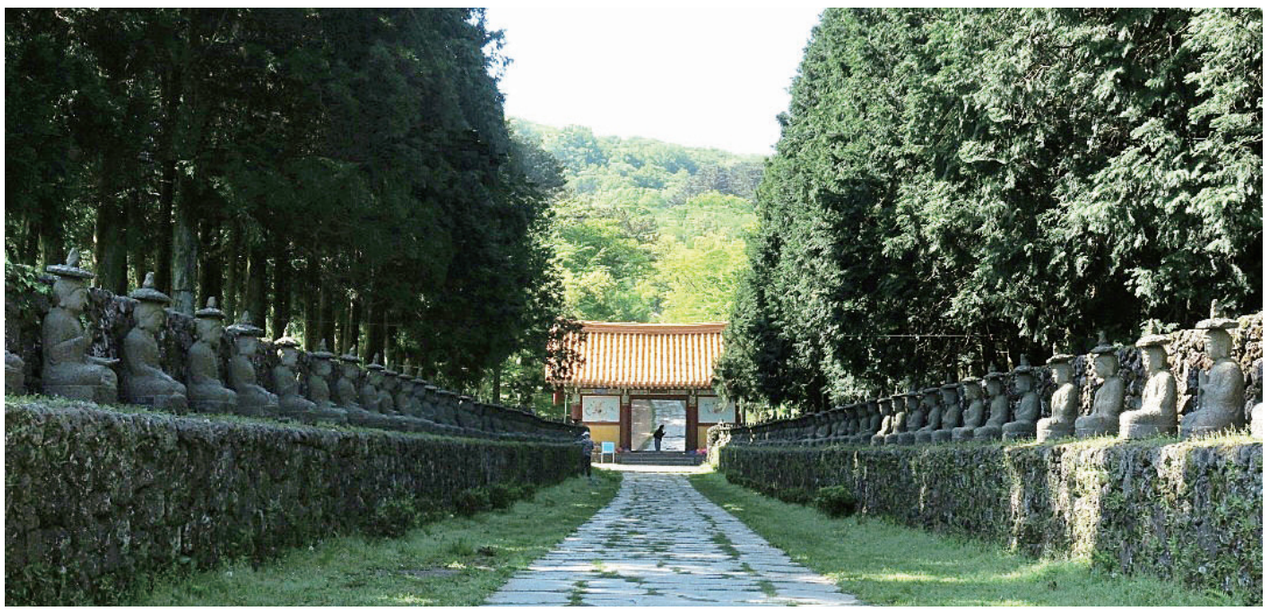
사부대중 일동

부설 전북불교회관 | 금산사 복지법인 | 룸비니 어린이집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 모악 15길 1
Tel. 063)548-4442 www.geumsansa.org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제주 **관음사**

조 실 **삼이 우경**
회 주 **탄해 혜민**
주 지 **무소 허운**

교구·본사 신도회 **김문자 회장** 외 사부대중 일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660(아라일동)
☎ (064)724-6830 Fax (064)756-2202 www.jejugwaneum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조 실 **밀운부림**
교 구 장 **호산**

어산어장 **인묵** 학 장 **정원**

부 주 지 **도 일**
종책실장 **향 성**
기획국장 **혜 복**
재무국장 **성 우**
포교국장 **해 도**
전법국장 **선 용**
연수국장 **청 효**

문화원장 **덕 산**
총무국장 **무 일**
교무국장 **혜 교**
사회국장 **법 륜**
문화국장 **철 견**
복지국장 **보 일**



천년고찰, 부처님 법 전법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교종본찰 봉선사**

1200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 32(부평리) / 홈페이지 : www.bongsunsa.net
사무실 : 031-527-1951~2 / 팩스 : 031-527-8568 / 종무실 : 031-527-1956

봉선사 산하기관 학교법인 광동학원(광동중학교, 광동고등학교, 의정부 광동고등학교) / 연꽃유치원 / 사회복지법인 봉선복지재단 /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 / 남양주시 북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보호작업장 / 남양주 시 일시청소년 쉼터 / 경기 남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 / 구리 실버인력뱅크 / 구리 인창경로 식당/구리시장애인 종합복지관 / 구리시주간보호센터 좋은누리터 / 구리시주간보호센터 밝은누리터 / 구리시공동생활가정 아람터 · 한누리터/ 구리시장애인보호 작업장 행복한 일터 / 구리시 장애인보호작업장 해냄일터 / 구리시재활치료센터 아이누리발달지원센터

범어사 '선명상축제' 웰니스 플랫폼 열다

AI 진단 맞춤형 '마음처방전' 체험
선명상 체험과 야외 서핑 요가도
클래식 어우러진 산사음악회 '인기'
석산 스님 "시민들의 마음 평안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2026 선명상축제 부산 범어사' 가 9월 5일 범어사 선문화관 일대에서 열렸다. 사진은 서핑 보드 위에서 눈을 감고 요가 명상을 체험하는 시민들.

"남의 기대를 등에 업고 달려온 사람."

스마트폰 화면에 뜬 인공지능(AI)의 진단명이다. 기자가 '자존감'이라는 고민과 '나답게 살고 싶어서'라는 핵심 동기를 입력하자 AI는 매일 5분 호흡 명상과 페퍼민트티, 편백 인센스를 처방했다. 진단을 받는 '마음처방소' 부스에서 진행된 체험이다. 스마트폰으로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AI가 개인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 명상법과 향, 차를 각각 추천하는 방식이다.

디지털 기기와 명상을 결합해 현대인에게 맞춤형 웰니스(Wellness)를 제공하는 '2026 선명상축제 부산 범어사(금정산 BEO 선명상 힐링페스타)'가 9월 5일 선문화관 일대에서 열렸다. 조계종 미래본부와 범어사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기존의 종교적 색채를 덜고, 시민들이 다채로운 체험을 통해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치유의 장으로 마련됐다.

'마음처방소' 체험은 4단계로 이어졌다. 스마트폰으로 AI가 고민과 동기를 진단하는 단계에 이어, 진단 결과에 맞춰 명상법을 제공받는 '마음약국', 감정을 비우는 '마음비움터', 일상 속 화두를 세우는 '나만의 화두 찾기'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별 고민과 동기에 따라 처방 내용이 각기 다르게 제공됐다. 참가자들은 진단 결과지를 받아 부스별로 이동하며 4단계를 순서대로 체험했다.

이날 범어사에서는 오감을 활용한 세부 명상 프로그램이 시간대별로 운영됐다. '슬리핑 소리명상'은 싱잉볼과 명상 악기가 만들어내는 공명 속에서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심신을 이완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지원 스님의 지도로 '좌종 소리선명상'도 진행됐다. 파동과 공명이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가운데, 소리가 사라지는 여백을 관찰하며 본래의 나를 인지하는 체험이 이뤄졌다.

신체와 미각을 활용한 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일상의 긴장을 푸는 '테라무브', 사찰음식 재료를 활용해 먹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푸드테라피' 및 식(食)명상이 운영됐다. 야외에서는 숲길 걷기 명상, 선(禪) 민화 체험, 보태니컬 아트 등 자연과 예술을 결합한 프로그램이 열렸다. 당초 광안리 해변에서 예정됐던 '일출 스탠드업 패들보드(SUP) 명상'은 강풍으로 인해 취소됐으나, 서핑 보드를 범어사 경내 야외 무대로 옮겨와 산속에서 즐기는 '야외 서핑 요가'로 대체 운영하며 기상 악화에 유연하게 대처했다.

주간 명상 체험이 마무리된 후, 야외 주차장 특설 무대에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음악회 '마음이 머무는 밤(Mindfulness Concert)'이 진행됐다. 법문과 음악, 침묵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이 행사는 평화, 감사, 환희, 희망이라는 4가지 테마로 나뉘어 진행됐다.

범어사 선문화관장 석산 스님은 사찰이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웰니스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산 스님은 "이번 축제는 부산 지역 명상 지도사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기획됐으며 소외된 이웃을 포함한 많은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상악화라는 위기를 산사 요가라는 기회로 바꾼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타인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며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이 현대 물리학의 양자역학과 통하듯 세상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 수행·예술 공간 '반야원' 준공

울산 석남사, 9월 6일 준공식
"수행 · 명상 · 예술 향유 공간"



울산 석남사는 9월 6일 대중을 위한 수행공간이자 문화공간인 '반야원' 을 준공했다.

천년의 세월 동안 비구니 선 수행의 맥을 이어온 울산 석남사가 부처님의 지혜와 예술의 향기를 일반 대중과 나누는 새로운 공간의 문을 열었다.

울산 석남사(주지 천조 스님)는 9월 6일 반야원 준공식을 봉행하고, 누구나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수행과 명상,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열린 수행공간의 출발을 알렸다.

반야원 건립은 일반인을 위한 수행공간과 지역예술인을 위한 문화공간을 마련하려는 석남사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됐다. 2023년 3월 사업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 공사에 착수해 올해 7월 21일 준공했다.

반야원은 대지면적 2290㎡, 연건축면적 533.22㎡, 지상 2층 규모로 체험실과 수행관, 휴게실 등을 갖췄다. 총사업비는 35억2000만원으로 국비 30%, 울산시비 30%, 울주군비 30%가 투입됐으며 나머지는 석남사가 부담했다.

석남사는 반야원을 불자와 일반인들을 위한 '마음공부 도량'으로 운영하는 한편 지역예술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지 천조 스님은 "반야원은 일반인들을 위한 수행공간이자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보다 많은 분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야원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총무국장 진응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야원을 찾아 지친 몸과 마음을 쉬고 수행의 지혜를 얻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김상욱 울산시장도 "반야원 개원은 석남사의 천년 수행 전통 위에 발전적인 도전과 지혜를 더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많은 울산시민과 국민이 찾을 수 있도록 울산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61돌 대불련 부산지부 "행동하는 청년불자 다짐"

9월 6일, 범어사서 기념법회
"청년 위한 따뜻한 공동체 될 것"



총림 범어사 보제루에서 '창립 61주년 기념법회 및 개강법회'를 봉행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지부장 전희철, 이하 대불련 부산지부)가 창립 61주년을 맞아 행동하고 실천하는 청년 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대불련 부산지부는 9월 6일 금정총림 범어사 보제루에서 '창립 61주년 기념법회 및 개강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1965년 창립 이래 부산 지역 대학생 전법의 명맥을 이어온 부산지부의 61주년을 축하하고, 새 학기를 맞이한 청년 불자들의 신심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범어사 사회국장 법진 스님(대불련 부산지부 지도법사)은 "범어사 사중에서도 대불련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선배 동문들을 향해 "경제적 지원은 물론 든든한 지지와 응원으로 후배들이 어엿한 불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전희철 대불련 부산지부장은 환영사에서 "경쟁과 불안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기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필요한 때"라며 "대불련이 단순한 동아리를 넘어 청년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도림사 녹색불사 "버려지는 물건도 순환하면 자원"

9월 7일, 자원순환의 날 행사서
신문지 봉투 · 보자기 재활용 시연



부산지역 제1호 녹색사찰 도림사가 도심 속 환경 실천의 모범을 제시했다.

도림사(주지 정찬 스님)는 9월 7일 부산시청 녹음광장 일대에서 열린 '제18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행사'에 참가해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방안을 시민들에게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 주최로 자원순환과 대기질 개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과 더불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재활용품 교환 마켓, 플라스틱 장난감 순환작품 전시 등 15개의 다채로운 환경 체험 부스가 녹음광장 일대에서 운영됐다.

지난해 폐현수막을 업사이클링한 에코백을 선보여 호응을 얻었던 도림사는 올해도 부스 운영에 적극 동참했다. 이번에는 쓰지 않는 보자기를 간편하게 묶어 장바구니로 활용하는 방법과 다 쓴 신문지를 접어 참기름병 등을 담는 친환경 봉투 만들기를 시연했다.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을 제시하며 '순환'의 가치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달했다.

정찬 스님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쓰레기도 순환 단계를 거치면 다시 자원이 된다"며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버려지는 것을 재활용하는 것이 바로 자원순환의 진정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구를 살리는 뜻깊은 행사가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국불교의 참모습' 강좌

반야불교문화硏, 10월10일 개강
통도사 반야암서 총 6주간 진행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 대종사)이 오는 10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통도사 반야암 설법전에서 '2026년 가을철 산사인문학 강좌'를 개최한다.

강좌 주제는 '한국불교의 표정들-한국불교의 특징에 관한 담론들'이다. 종교로서 불교가 가진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의 관계를 조명하고, '무엇이 한국불교를 한국불교답게 만들어 왔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전한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오늘날 불자들의 신행 생활을 규정하는 역사적·문화적 토양을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현대 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강좌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세부 일정은 △10월 10일 조기룡 동국대 교수의 '한국 조계종의 조직구성과 한국불교 종단의 특징' △10월 17일 이종수 국립순천대 교수의 '한국사찰의 공간구성과 한국불교의 특징' △10월 24일 박재현 동명대 교수의 '한국 승가교육의 현실과 한국불교의 특징'이 전반부를 장식한다. 이어 후반부에는 △10월 31일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통불교적 전통과 한국불교의 특징' △11월 7일 김용태 동국대 교수의 '민간신앙의 포용과 한국불교의 특징' △11월 14일 김종희 문화공간 빈빈 대표의 '삼국유사, 불교적 상상력과 한국적 상상력' 강연이 차례로 이어진다. 010-8738-3000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오이산 스님 교육 원력, 장학불사로 잇다

9월 3일, 명정학교장학재단 출범
금정중에 장학금 5000만원 전달



일제강점기에 명정학교와 보성고보를 지켜내며 민족교육에 힘쓴 오이산 스님의 교육 원력이 장학사업으로 이어진다.

재단법인 명정학교장학재단(이사장 강길주)은 9월 3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출범 법요식을 봉행했다.

강길주 이사장은 그간 외조부인 오이산 스님의 외조부의 행적과 교육사상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복원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선대의 교육 원력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오늘날 장학사업으로 계승하기 위해 재단 설립을 추진했다.

강길주 이사장은 "장학금 지원을 넘어 불교문화 연구와 학술 진흥, 청소년 교육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날 재단의 첫 목적사업으로 금정중학교에 장학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앞으로도 부산·경남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매년 200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불교 및 인문학 분야 학술단체에도 매년 500만원 이상의 학술진흥기금을 후원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해인사 판각학교 5기 개강

9월 6일, 5기 121명 입학
혜일 스님 "전통판각 계승"

팔만대장경을 조성한 선조들의 원력과 전통판각법을 계승하기 위한 다섯 번째 교육과정이 시작됐다.

해인사 장경도감(이사장 혜일 스님·해인사 주지)은 9월 6일 해인사판각학교에서 '팔만대장경 판각을 위한 전통판각법 교육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번 제5기 교육과정에는 토요반 55명, 일요반 66명 등 121명이 등록했다.

이사장 혜일 스님은 부처님 전에 헌향하며 제5기 교육의 원만한 성취를 발원했다. 혜일 스님은 "이번 교육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의 경판을 조성했던 전통기술과 그 속에 담긴 정신까지 '사람'을 통해 계승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팔만대장경연구원장 경암 스님은 고불문에서 "한 자 한 자를 마음에 간직하듯 팔만대장경 전통 판각 기법을 배우고 익히며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유포하고자 원을 세웠다"며 교육생들의 원만한 교육 성취를 발원했다.

교육은 김승환 각자장의 지도로 총 20주간 진행된다. 토요일반은 9월 12일부터 2027년 1월 30일까지, 일요일반은 9월 13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매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불교교육대·화엄승가회, 생명존중 캠페인

9월 6일, 부산 초읍 자유회관서
제9회 살기좋은 부산만들기 개최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 스님, 이하 부불대)과 화엄승가회(회장 대각 스님)는 9월 6일 부산 초읍 자유회관에서 '제9회 살기좋은 부산만들기 자살·교통사고 예방 합동캠페인 및 힐링치유 경로효(孝) 대잔치'를 개최했다.

범혜 스님은 대회사에서 "자살은 고통의 종말이 아니라 괴로운 업을 마중하는 시작일 뿐"이라며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간으로 태어난 소중한 인연을 되새기며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 불자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라고 당부했다.

화엄승가회 고문 자인 스님은 법어를 통해 "자살은 자신뿐 아니라 남은 가족에게도 불행과 괴로움을 준다"며 생명을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화엄승가회장 대각 스님도 "운전자의 양보와 배려, 보행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같은 작은 실천이 안전하고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진관사 국행수륙재’…49일간의 정진

9월 6일 진관사 함월당서 입재식
10월 25일까지 49일간 매주 봉행
법산 스님 입재법문서 “정진” 당부

박지운 기자 vjw33@hyunbul.com


서울 진관사는 9월 4일 함월당에서 ‘진관사 국행수륙재 입재식’을 봉행했다.

서울 진관사(주지 법해 스님)가 9월 4일 함월당에서 개건 628주년을 맞은 국가무형유산 ‘국행수륙재(國行水陸齋)’를 입재하고 10월 25일까지 49일간의 정진을 시작했다.

올해 진관사 국행수륙재는 ‘온 세상은 한가족’을 주제로 9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봉행된다.

조계종 어산어장 동희 스님의 집전으로 봉행된 입재식에는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 주지 법해 스님을 비롯한 진관사 스님과 신도회, 청년회, 어린이법회 학생, 불자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입재식은 먼 길을 온 영가의 고단함을 위로하는 ‘대령’과 영가를 깨끗한 옷으로 입혀드리는 ‘관욕’을 시작으로 위패 이운, 신중작법, 법문의식, 법문, 육법공양, 명발, 수륙연기, 상단의식, 천수바라, 요잡바라, 법고, 도량게, 중단의식, 반야심경, 하단시식, 법화경 독송 등 전통 불교의례에 따라 진행됐다.

이날 법사로 나선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은 ‘인생 총론: 세상 공부, 부처님 공부’를 주제로 법문했다. 스님은 “전쟁의 환란 속, 정치적인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행수륙재가 그 생명을 유지하고 오늘날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받고 또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며 국행수륙재 입재를 축하했다.

이어 “우리가 마음에 어떤 것을 입력하느냐에 따라 도출되는 것도 다르다”면서 “속에 독한 마음이 있으면 입으로 욕이 나오고, 마음에 부처님 생각이 있으면 입에서 연꽃 같은 향기가 나온다”고 정진을 당부했다.

진관사는 이날 입재에 이어 10월 18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함월당에서 법석을 이어간다.

초재인 9월 13일에는 석종사 조실 혜국 스님이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다’를 주제로 법문했다. 이어 △이재 9월 20일 전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의 ‘우리 시대의 용서와 화해’ △삼재 9월 27일 전국비구니회 원로회의 의장 본각 스님의 ‘큰 사람을 작게 하고 작은 사람을 크게 하는 법’ △사재 10월 4일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스님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잘 사는 법’ △오재 10월 11일 해남 대흥사 조실 보선 스님의 ‘함께 가는 길’ △육재 10월 18일 전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의 ‘가족을 이루는 큰 인연과 공덕’ 법문이 이어진다.

회향식이 봉행되는 10월 24일 칠재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무량무변 세계 중에 극락세계가 제일이라’를 주제로 법문한다.

주지 법해 스님은 “진관사 국행수륙재는 서울의 유일한 왕실 수륙재로 628년의 역사를 지닌 귀중한 국가무형유산”이라며 “올해 수륙재는 ‘온 세상은 한가족’이라는 주제처럼 모든 이들이 기쁨을 나누고, 고통을 감싸안으며 함께하는 뜻깊은 인연의 자리로 봉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마곡사, 약효 스님 화맥 계승 거점으로

9월 4일 98주기 추모다례재
금어원 활용 방안 등 논의해


마곡사는 9월 4일 대광보전에서 ‘금호당 약효 대종사 98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한국 근대불화의 대표적인 화승 금호당 약효 대종사의 화업과 수행정신을 계승하고, 마곡사를 중심으로 이어져 온 전통 불교미술의 맥을 후대에 전하는 불사가 진행된다.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주지 원경 스님)는 9월 4일 대광보전에서 ‘금호당 약효 대종사 98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에는 주지 원경 스님을 비롯해 병진 스님, 이정오 대전광역시 무형유산 단청장, 일섭문도회 회원과 약효 스님의 화맥을 잇고 있는 불모 등이 참석했다.

이날 다례재에서는 마곡사를 중심으로 이어져 온 불교미술의 역사와 화맥을 어떻게 보존하고 계승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금어원을 전통불교미술의 연구·교육·전시·창작과 후학 양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원경 스님은 “저의 역할은 전통불교미술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맥을 살려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어원이 완성되면 화승들이 와서 연구하고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며 “화맥을 이어오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곡사는 금어원 2층에 다양한 전통 단청 양식을 부분별로 구현해 누구나 단청의 종류와 특징을 직접 살펴보고 배울 수 있는 교육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약효 스님을 비롯해 마곡사 화맥을 이어온 역대 화승들의 진영과 사진, 계보 등을 정리·전시하고, 경내에 조성된 불모비림과 연계해 마곡사 불교미술의 역사와 전승 과정을 보여준다는 구상이다.

금어원에는 대형 괘불을 펼쳐 조성·보존·모사 작업을 할 수 있는 넓은 실내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불화와 단청 작업을 비롯해 전시와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마곡사 성보박물관과는 기능을 구분해 목조·철조 성보 등은 기존 박물관을 중심으로 전시하는 한편 불화와 전적 등 지류 문화유산은 금어원과 연계해 보존·전시한다는 계획이다.

원경 스님은 “각자의 욕심을 내려놓고 어떻게 금어원을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문중의 대표들과 함께 논의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금호당 약효(錦湖堂 若效) 대종사는 1846년경 태어나 1928년 입적한 화승으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마곡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100여 점에 이르는 불화를 남겼으며, 마곡사를 중심으로 계룡산 일대 화승들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지리산 천은사에 흐른 재즈 선율

9월 4~5일 ‘지리산재즈페스티벌’
이틀 동안 3000여 명 찾아 ‘성황’



구례 천은사(주지 대진 스님)는 9월 4~5일 경내 수변무대와 야외무대에서 ‘2026 지리산재즈페스티벌’을 개최했다.

‘Jazz in the Silence – 고요 속의 재즈’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지리산의 자연과 천년고찰의 고즈넉한 공간에서 재즈를 감상하며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틀 동안 3000여 명의 관람객이 천은사를 찾아, 자연과 산사, 재즈가 어우러진 지역의 대표 음악축제의 면모를 보였다.

첫날인 4일 수변무대에서는 박상아 Jazz Cats가 따뜻한 감성과 자유로운 즉흥연주로 축제의 문을 열었다. 이어 신경숙 Smooth Jazz Band가 친숙한 선율을 세련된 재즈로 풀어냈으며, 기독중창단 ‘커뮨’은 종교화합 특별공연을 통해 음악으로 종교 간 소통과 화합의 의미를 전했다.

5일 낮 공연에는 절제된 사운드로 정통 재즈의 깊이를 전한 NS Jazz Band와 탭댄스를 하나의 타악기로 승화시킨 DONKEY’S Project가 무대에 올라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다.

저녁에는 ‘스캣의 여왕’으로 불리는 재즈 보컬리스트 말로 밴드가 무대에 올라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특히 이번 축제는 무료 예약제로 진행돼 행사 전부터 약 900명이 관람을 예약하는 등 관심을 모았다.

주지 대진 스님은 “이번 지리산재즈페스티벌이 잠시 쉬어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 조금 가벼워진 마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영규 대사와 승병 호국정신 기리다

9월 6일, 중앙공원서 추모대제
조헌 · 박춘무 등 의병장도 기려



임진왜란 당시 의승장 영규 대사와 의병장 조헌·박춘무 선생을 비롯한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추모대제가 봉행됐다.

청주성탈환기념사업회(회장 조진기)는 9월 6일 청주 중앙공원 특설무대에서 ‘청주성 탈환 434주년 기념 추모대제’를 봉행했다.

청주성 전투는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왜군에게 점령당한 청주성을 의병과 승병이 연합해 되찾은 전투다. 당시 의승장 영규 대사가 이끄는 승병과 중봉 조헌의 의병, 화천당 박춘무를 중심으로 일어난 청주 지역 의병들이 힘을 합쳐 청주성을 공격해 탈환했다.

청주성 탈환 이후 영규 대사와 조헌을 비롯한 의·승병들은 다시 왜군과 맞서기 위해 금산으로 향했고, 치열한 전투에서 많은 의병과 승병이 목숨을 잃었다.

조진기 청주성탈환기념사업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영규 대사와 조헌 선생, 박춘무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의병과 승병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며 “청주성 탈환의 역사적 의미와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후세에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오창근 충청북도의원도 추모사를 통해 “선열들이 남긴 호국정신을 되새기고 청주성 탈환의 역사를 후대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주성탈환기념사업회는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후세에 알리는 데 기여한 송수현 전 청주불교인연합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담양불교계, 군청서 ‘팥빙수 나눔’

소원정사 · 담양불교聯 등 담양군청 찾아 공무원 격려



담양 지역 불교계가 무더위 속에서 지역민을 위해 힘써온 공직자들에게 시원한 팥빙수를 전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다.

광주 소원정사(주지 도계 스님)와 담양불교연합회(회장 덕유 스님), (사)자비신행회(상임이사 김삼옥)는 9월 3일 담양군청에서 ‘시원 달콤 팥빙수’ 나눔 행사를 열고 공직자 500여 명에게 팥빙수를 전달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날 나눔에는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을 비롯해 담양불교연합회 소속 스님 10여 명과 김삼옥 자비신행회 상임이사, 봉사자 등 30여 명이 동참했다.

스님과 봉사자들은 곱게 간 얼음에 팥과 망고, 블루베리, 인절미, 볶은 현미, 콩가루 등을 얹고 연유를 더해 팥빙수를 직접 만들었다. 정성껏 준비한 팥빙수는 담양군청 공직자들에게 전달됐다.

도계 스님은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애써주신 담양군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담양불교연합회 스님들과 자비신행회 봉사자들이 함께 준비한 팥빙수 한 그릇으로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행복한 마음을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종원 담양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청 직원들을 잊지 않고 찾아준 스님들과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정읍사암연, 백운 경한 화상 추모다례

9월 4일 정읍 미륵암서



정읍사암연합회(회장 대원 스님·내장사 주지)와 백운경한화상 선양회(회장 정명선)는 〈직지〉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일인 9월 4일 정읍 미륵암 미륵전 앞 특별법단에서 ‘제4회 백운 경한 화상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다례재는 전국비구니 차인회의 선차명상 시현, 삼귀의례, 헌향, 헌다, 헌화, 추모사, 봉행사, 공연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읍사암연합회장 대원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백운 선사께서는 정읍 고부 백운리에서 탄생하셨으며 직지는 우리 민족의 뛰어난 인쇄문화이자 소중한 유산”이라며 “두승산 미륵암을 초석 삼아 정읍의 소중한 불교문화가 세계만방에 널리 알려지고 후대에 길이 계승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등사 108봉사단 출범…“봉사도 수행”

9월 6일, 창단식 후 첫 활동



강화 전등사(주지 지불 스님)가 9월 6일 신도들의 기도와 정진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로 회향하기 위한 ‘전등사 108봉사단’을 창단했다.

‘108봉사단’은 주지 지불 스님이 지난 7월 취임 후 신도들의 신행과 봉사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구성 의지를 밝힌 불사다. 지난 8월부터 공양간, 울력, 법당, 템플스테이, 화단, 사찰안내, 다원, 어린이법회, 문화홍보 등 9개 분야에서 봉사자 108명을 모집해 이날 출범식을 열게 됐다.

전등사는 신도들이 각자 신행활동과 소모임을 이어가되, 봉사단 활동을 통해 사중은 물론 지역사회로 활동 범위를 넓혀 자비 실천의 모범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주지 지불 스님은 “신도님들이 늘 기도하고 법문을 들으며 공부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다”며 “사중의 다양한 일을 시도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소질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창단식에 이어 경내 곳곳을 청소하며 봉사단의 출발을 알렸다. 봉사단원들은 사찰을 찾은 참배객들이 쾌적하게 경내를 거닐 수 있도록 마당과 주변 곳곳의 쓰레기를 줍고 환경을 정비했다.

강화 전등사=여수령 기자

마이산 탑사, ‘트레저헌터’에 경품 기탁

9월 4일 전달식…1억원 상당



마이산 탑사가 지역사회 상생과 청소년 포교를 위해 ‘진안군 트레저헌터 보물찾기 대회’에 1억3300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

마이산 탑사(회주 진성 스님)는 9월 4일 북부마이산 관광단지에서 기증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탑사는 보드게임 교구 5012점(1억2500만원 상당)과 발샴푸 1000개(900만원 상당)을 진안군에 전달했다.

회주 진성 스님은 “2026년과 2027년은 진안 방문의 해이자 도민 체전과 장애인 체전이 열리는 뜻깊은 해”이라며 “진안군과 한국수자원공사의 도움으로 열리는 보물찾기 대회에 귀한 기증품을 전달하게 돼 기쁘고, 대회에 참여하는 많은 분이 보람과 기쁨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열리는 ‘트레저헌터 in 진안’은 진안군 용담댐 및 마이산 일원에서 펼쳐지는 현실판 알피지(RPG) 게임 형태의 체류형 로컬 페스티벌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국중박 야외 장엄 '고달사지 석등' 환지본처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본래 자리를 떠나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전시물로 활용되고 있는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보물·사진)'이 본 자리인 고달사지로 돌아가게 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은 "관내 야외정원에서 전시 중인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을 경기도 여주시 고달사지로 현지 이관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9월 9일 밝혔다.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은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석등으로 아래 받침돌 대신 두 마리의 사자를 앉혀놓았다. 쌍사자 석등은 통일신라 시기부터 등장하지만, 사자가 앞발을 들어 위로 윗받침돌을 직접 받치는 일반적인 모습과 달리 웅크려 앉아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뛰어난 조형미를 자랑하는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은 조선시대 고달사가 폐사되며 잊혀졌다. 근대에 이르러 다시 확인됐을 때에는 폐사지에 무너진 상태였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문화재 지정에 앞서 석등의 부재를 마을 주민에게 맡겼지만,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다시 잊혀졌다.

그러다가 부재를 맡았던 마을 주민이 사망하자 그의 아들이 1957년 서울 종로 동원예식장 대표에게 3만 8000원을 받고 팔았다. 그러나 이를 모르던 정부는 1958년 석등을 보물로 지정했고 뒤늦게 석등이 팔린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정부는 석등 회수에 나섰고 1959년 경복궁 경회루 옆으로 이전하게 됐다. 이후 석등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용산 이전과 함께 현재 위치로 옮겨졌다.



고려 초기 조성 추정되는 웅크린 모습 쌍사자 석등
지자체, 관계기관 등 협의 보존처리 후 현지 이관키로

국립중앙박물관은 "소장품 현지 이관과 관련해 문화유산의 안전과 관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면서 "석조문화유산의 현지 이관을 위해서는 △출토지가 확실하고 원위치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관리 △관리주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 명확 △전시 및 관리 안전이 담보 △본래 용도와 기능에 맞추어 원형 그대로 이전 △과학적 정밀조사 선행 등의 선결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은 원위치인 고달사지가 사적으로 지정돼 있어 안전한 공개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보존처리와 과학적 조사·분석이 완료되면 원형 그대로 현지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이 여주 고달사지로 완전 이전되면 향후 관리는 여주시가 맡게 된다. 구체적인 이관 시점은 향후 보존처리와 종합보고서 발간 시점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들과의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의 현지 이관은 문화유산의 맥락을 찾는 뜻깊은 일이지만, 동시에 박물관의 보호와 관리에서 벗어나 현장의 다양한 환경 변화에 마주함을 의미한다"며 "관리 이관 이후, 국가유산청과 여주시는 석등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선희·이금희 만든 한글 노래 세계로

국제한국어교육재단, 9월 8일 제작 발표회

교육부 함께 세계 교실 보급
MV에 '흥글스' 캐릭터 담아
'아이키' 안무 제작해 보급

한국어를 제2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한 학교는 47개국 2777곳이며 해외 공교육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은 약 3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을 위해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가수 이선희, 이금희 아나운서와 손잡고 전 세계 한국어 학습 청소년을 위한 한글 노래를 선보였다. 학생들이 노래와 춤으로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로, 재단은 교육부와 협력해 전 세계의 학생들과 재외동포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지 학교 한국어반과 한글학교 수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사장 영담 스님)은 9월 8일 서울 종로구 재단 사무실에서 한글 노래 '너랑 나랑 다 같이' 뮤직비디오 언론 시사회를 개최했다. 시사회에는 이사장 영담 스님을 비롯해 작사를 맡은 이금희 아나운서와 작곡·노래를 담당한 가수 이선희 씨가 참석해 노래의 제작 과정과 교육 활용 계획 등을 설명했다.

'너랑 나랑 다같이'는 올해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제작됐다.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일상에서 사용하는 낱말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한글 자모의 원리와 한국어의 섬세한 표현을 노랫말에 담았다. 계절과 날씨를 나타내는 여러 낱말을 비롯해 세종대왕부터 방탄소년단(BTS)까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상징하는 소재들도 가사에 포함됐다.

작사를 맡은 이금희 아나운서는 2019년 시작된 재단의 해외 청소년 한국어교육 연수에서 첫 회부터 사회를 맡아 학생과 교사들을 만나왔다. 이번 노래는 이 아나운서의 첫 작사곡이다.

이 아나운서는 "한 가지 색이나 계절도 여러 낱말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한국어는 섬세하고 다양하다. 세종대왕의 뜻처럼 자유롭게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가수 이선희 씨는 가사의 핵심 내용을 간추려 하루 만에 곡의 기본 틀을 완성했다.

이 씨는 "제가 평소 부르는 노래와는 차이가 있지만, 이 노래만큼은 경쾌하고 비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한 번 들으면 멜로디를 따라 부르고, 학생들이 게임처럼 가사를 외울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뮤직비디오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의 형태를 활용해 만든 캐릭터 '흥글스'가 등장한다. '흥글스'는 '흥'과 '한글'의 '글'을 결합한 이름으로, 거북·두루미·사슴·호랑이 등 전통문화 속 동물들과 함께 전통 악기를 연주하며 행진한다. 뮤직비디오 연출은 디제이 페기 구의 뮤직비디오 제작에 참여했던 서인지 작가가 맡았다.

안무는 한국을 대표하는 안무가 아이키가 제작했다. 재단은 별도의 안무 영상을 공개하고 각국 학생들이 직접 노래하고 춤추는 참여형 챌린지로 확산할 계획이다. '흥글스'를 활용한 열쇠고리 등 교육용 굿즈도 제작해 해외 한국어 채택 학교 방문과 교육 행사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영담 스님은 "교육부와 함께 해외 초·중등 한국어교육이 더욱 체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은 9월 8일 서울 종로구 재단 사무실에서 한글 노래 '너랑 나랑 다같이' 뮤직비디오 언론 시사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사장 영담 스님과 작사를 맡은 이금희 아나운서(왼쪽), 작곡과 노래를 맡은 가수 이선희 씨.

'마인드풀니스' 한계점·극복 방안 논의

대행선연구원 제28회 계절발표회
9월 19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서
AI 문제 해결 방안 '대행선' 조명

서구에서 개발된 명상치료프로그램의 한계와 극복 방안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오는 9월 19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제28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가을을 맞아 개최하는 이번 발표회에서는 대행선을 조명하는 연구논문과 일반 불교학 분야의 연구논문이 각각 발표된다.

명상상담연구원장 인경 스님은 '마음챙김(Mindfulness) 개념의 한계 극복과 '염지관(念止觀)' 명상: 4대 명상치료 프로그램의 코퍼스 분석을 중심으로'를 통해 상업화된 '마인드풀니스'를 가리키는 이른바 '맥마인드풀니스(McMindfulness)'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띠(sati)'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됐음을 고찰한다. 인경 스님은 서구에서 개발돼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는 4대 명상 프로그램의 매뉴얼을 분석하여 비판하고 전체적인 체계로서 '염지관(念止觀)' 명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AI시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행선 사상의 학제적 탐구: 주인공, 한마음, 오공 사상을 중심으로'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결 방안의 하나로 주인공, 한마음, 오공 사상으로 대표되는 대행선 사상을 조명한다.

논평자로는 정문주 원광대 교수, 이필원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 이지선 동국대 교수, 오진영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맡는다. 신중일 기자

회암사, 고고학·과학으로 조명한다

회암사지博·국립문화유산硏
9월 18일 공동 학술대회

양주 회암사지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고고학, 미술사학, 과학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9월 18일 오후 1시 30분 박물관 강당에서 '회암사, 고고·미술·과학의 틀로 바라보다'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영락장식, 소조상, 석조유구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한 연구논문이 발표된다.

주요 논문으로 △회암사지 출토 영락장식의 재질과 제작기법(김소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회암사지 출토 영락장식의 고고·미술사적 검토(성기열,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회암사지 출토 소조상의 재질과 제작기법(장성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두 번의 불-회암사 소조상의 제작과 소멸(심영신, 숭실대) △회암사지 석조유구의 재질 특성과 산지 추정 연구(이명성,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회암사지 문지 구조와 중심축부 석측의 축조양상으로 본 가람 변천(이승현, 건축문헌고고스튜디오)이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전익환(경기도박물관), 정성권(단국대), 이명은(경기역사문화유산원), 김지호(국립중앙박물관), 이동식(한국전통문화대학)이 참여한다.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이번 학술대회는 그간 회암사지에서 발굴된 유적과 유물을 다양한 시선으로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마련됐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사부대중 일동

가족과 함께하는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BONGEUNSA KakaoTalk YouTube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73번지) | www.bongeunsa. org | TEL 02)3218-4800 | FAX 02)544-2141

금용당 일섭 스님 삶·예술 담은 전집 출간

9월 7일 역사기념관서 출판기념회
불화·초본 등 일섭 스님 예술 망라
250여 사찰 등 10년 조사로 '결실'
6대 280여 일섭 문도 계보 조명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 근현대 불교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연 금용당 일섭 스님(金蓉堂 日燮, 1900~1975)의 삶과 예술세계를 총망라한 전집이 출간됐다.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9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 근현대 불교미술의 비수갈마: 금용 일섭〉 전 6권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일섭 스님은 불상과 불화, 단청을 두루 섭렵한 근현대 한국 불교미술의 대표적인 불모(佛母)다.

1935년 김제 금산사 미륵불 조성 경쟁을 통해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뒤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했으며, 1938년에는 한국불교의 상징인 태고사(현 조계사)의 단청과 후불탱화 제작을 맡는 등 불교미술계의 중요 인물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불화뿐 아니라 불상 조성과 개금, 단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활동을 펼쳤으며, 1972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으로 지정됐다.

일섭 스님의 예술 활동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기록과 전통 불교미술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한 교육과 전승 활동이다. 일제강점기 전통문화가 위축되던 시기에는 김제 부용사에 '불상불화전문연구성예원'을 설립해 전문적인 화원을 양성했다. 성예원을 통해 이어진 그의 예술적 전통은 현재까지 5대에 걸쳐 280여 명의 문도로 이어지고 있다.

일섭 스님의 삶과 예술이 전집으로 복원될 수 있던 것은 스님이 직접 남긴 〈연보(年譜)〉가 있어서 가능했다. 일섭 스님의 〈연보〉에는 탄생부터 생애와 불교미술 활동에 이르기까지 스님의 삶과 작품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으며 단청·불상·탱화 등 다양한 불사와 작품 활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계총림 송광사는 9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 근현대 불교미술의 비수갈마: 금용 일섭'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내외빈들의 기념촬영 모습.

송광사는 "불모가 자신의 삶과 창작 과정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화원 등을 직접 기록하고 정리했다는 점에서 〈연보〉는 단순한 개인 기록을 넘어선다"면서 "이는 근현대 예술가의 삶과 창작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자 한국 근현대 불교미술에 대한 위대한 기록유산"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전집은 2014년 김제 부용사 지관 스님이 일섭 스님의 유품을 송광사 성보박물관에 기탁하며 시작됐다. 이를 계기로 〈연보〉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국 각지에 흩어진 일섭 스님의 작품을 추적·조사하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특히 송광사성보박물관장 고경 스님의 원력과 총괄 아래 10여 년에 걸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됐다. 연구진은 〈연보〉에 기록된 작품을 단서로 사찰과 소장처를 직접 찾아가 작품의 현존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와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을 거쳐 전집을 완성했다. 그 결과 250여 곳의 사찰·서원 등을 다니며 95건 2607점의 불상과 383점의 불화를 비롯해 수백 점의 불화 초본과 단청, 관련 자료를 집대성할 수 있었다.

전집은 불교미술사 분야의 전문가인 신은영 송광사성보박물관 학예사와 송은석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가 공동 편저했다. 전집은 친필 〈연보〉의 석문과 번역을 비롯해 작품 조사, 인물과 사찰에 대한 주석, 화승과 문도 계보 정리, 연보와 불화 속 승려 계보 등을 진행해 자료의 학술적 가치를 높였다.

전집은 일섭 스님의 생애와 예술관을 보여주는 〈연보〉를 비롯해 불상·불화·불화 초본·단청과 관련 자료까지 총 6권으로 구성됐다.

제1권은 일섭 스님이 직접 남긴 친필 〈연보〉의 석문과 번역을 중심으로 생애와 예술관, 동료 및 제자들과의 활동을 담았다. 제2권에서는 화승 계보와 연보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찰, 280여 문도로 이어지는 계보 등을 정리해 일섭 스님의 활동이 어떤 관계 속에서 이뤄졌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색인을 정리하여 번역과 원본에서 찾아보기 쉽게 했다.

제3권과 제4권은 각각 불상과 불화를 중심으로 현존 작품과 새롭게 확인된 작품을 수록했으며, 제5권에는 일섭 스님이 불화 제작과 후학 교육을 위해 평생 수집하고 정리한 불화 초본을 담았다. 제6권은 단청을 비롯해 수집 전적, 불교미술전과 대한불교미술협회 창립 등 일섭 스님의 사회적 활동과 교습 관련 자료를 수록했다.

고경 스님은 발간사를 통해 "일섭 스님 전집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비록 1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하나의 씨앗에 불과한 일섭 스님 전집을 한국 불교미술의 발전을 위해 싹틔워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늘리고 줄이는 즐거움

⑯ 부증불감(不增不減)

不 增 不 減

〈반야심경〉은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라고 선언한다. 모든 현상의 참모습인 공상(空相)의 자리에서는 생겨남도 소멸함도 없고,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으며,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 구절을 치열한 삶과 수행을 부정하는 허무주의로 오해한다.

하지만 부증불감은 삶의 변화를 가로막는 가르침이 아니다. 오히려 고정된 실체나 정해진 운명이 없음을 밝힘으로써, 인간에게 삶을 변화시킬 가능성과 주도권을 돌려주는 대자유의 선언이다.

이러한 해석은 신라 원효 스님의 〈대승기신론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원효는 인간의 마음을 본질의 차원인 진여문(眞如門)과 현실의 차원인 생멸문(生滅門)으로 나누어 통찰했다. 진여문에서는 부처나 중생의 본성이 다르지 않으며, 더하거나 덜어낼 것이 없는 부증불감의 세계가 펼쳐진다. 반면 현실에서는 인간의 의지와 수행에 따라 삶의 모습을 끊임없이 바꾸어갈 수 있다. 원효는 무명을 닦아내는 수행을 통해 염오(染汚, 더러움)는 줄어들고 청정함은 더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부증불감은 변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사유인 셈이다.

이 논리는 〈반야심경〉의 핵심인 오온(五蘊)과 십이처(十二處)로 이어진다. 불교에서 오온과 십이처는 인간이 세계를 경험하고 인식하는 구조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다. 감각기관을 통해 세계를 받아들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과 감정, 의지와 행동을 일으키는 종합이 마음이다. 인간은 이러한 마음 작용을 내면에 축적하고 외부로 표현하면서 살아간다. 그러한 삶의 양식이 모이면 우리는 그것을 '문화'라고 부른다. 〈반야심경〉의 공성(空性)은 우리의 경험과 인식, 그리고 문화 역시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일깨운다.

따라서 부증불감의 가르침은 일상에서 '자유롭게 늘리고 줄이기'라는 문화적 실천으로 이어진다. 오온과 십이처의 작용이 본래 공하기 때문에 삶을 억압하는 독소들을 과감하게 줄여갈 수 있다. 타인을 향한 혐오나 집착, 배제와 차별 같은 고통의 문화는 공의 지혜로 그 실체 없음을 알아차리고 덜어낸다. 반대로 인간성을 풍요롭게 하는 자비와 예술적 상상력, 문화적 다양성과 연대의 가능성은 끊임없이 확장해 간다.

결국 부증불감의 참뜻은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삶과 문명의 방향을 스스로 만들라는 가르침이다. 우리는 정해진 숙명의 궤도를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다. 본래 증감이 없는 무한한 공의 바탕 위에서 고통은 지혜로 덜어내고 창조의 다양성은 자비로 넓혀가는 문화적 주체가 되시라. 이것이야말로 천년의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에게 선물하는 위대한 실천 철학이다.

〈화순 불암사 주지〉

화암사 부도군, 강원도 문화유산자료 지정

강원특별자치도 9월 4일 고시
승탑 · 탑비 16기 가치 인정돼



고성 화암사 부도군〈사진〉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9월 4일 고시를 통해 "고성 화암사 승탑군 및 탑비 16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화암사 부도군은 조선 후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화암사와 관련된 역대 고승들의 승탑과 탑비로 구성돼 있다.

특히 1874년에 조성된 춘담 대사 승탑과 탑비를 비롯해 조선 후기 조성된 승탑 15기와 탑비 등이 남아 있어 강원 동북부 지역 불교문화와 승탑 조형양식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춘담 대사 탑비는 조선 후기 불교계 인물과 법맥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화암사 부도군에 조성된 역대 스님들의 승탑과 탑비는 단순한 묘역 유적을 넘어 조선 후기 강원지역 불교계의 법맥과 사찰사를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면서 "탑비에 남겨진 기록은 화암사와 관련된 고승들의 행적과 불교계 인물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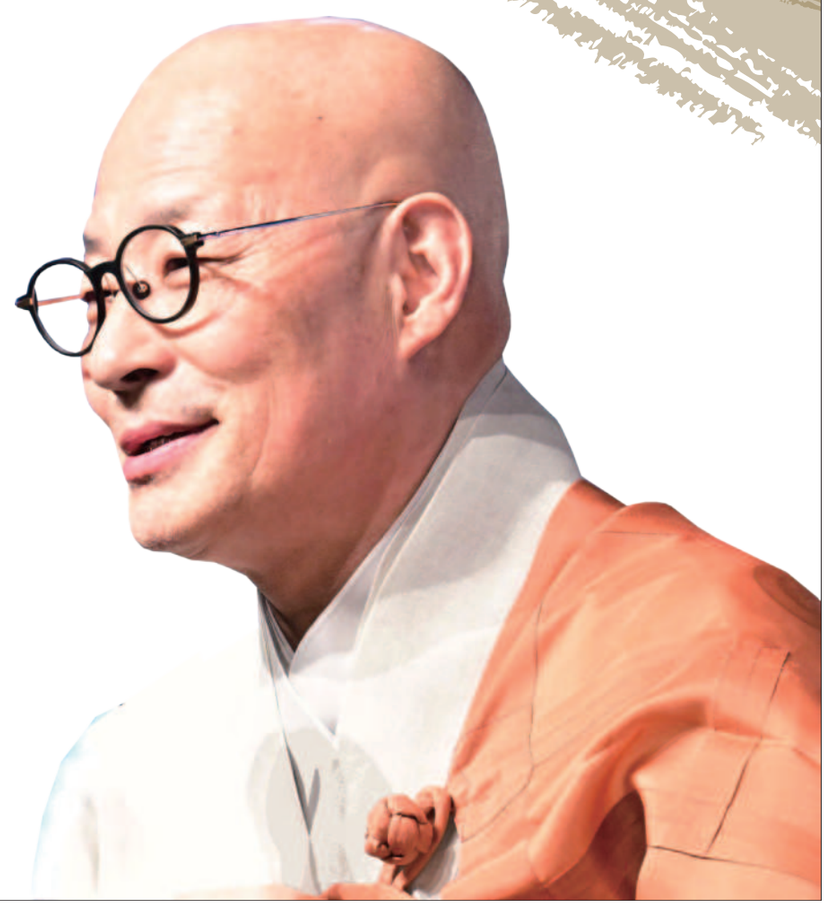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기도와 수행, 복지와 문화공동체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사부대중 일동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063)561-1422 http://www.seonunsa.org

봉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축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불자지도자 네크워크
불교 리더스 포럼
상임고문 김동건
고 문 김의정 김희옥 이인정 이윤희 이태영
상임지도위원 김진태
지도위원 고유환 김기유 김춘순 박영기 부석종 양희구 윤현우 윤성이 이광재 장인화 전충렬 정병국 조용철 조현재 최 윤 최현국
자문역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종단·청불회 소통자문)
상임대표 이기흥 제40,41대 대한체육회장, 전IOC위원
상임부대표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청와대불자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불자회 부회장
법조대표 이귀남 제61대 법무부장관
경제2 대표 김성섭 전 중소벤쳐기업부 차관
공공대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장관
언론대표 이용식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보건의료대표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체육대표 정강선 전라북도체육회장
남북대표 김형석 전 통일부차관
교육대표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
직능단체대표 이연화 (주)천마관광 대표
총재특보 신상국 (주)아가방컴퍼니 부회장
감 사 이정하 하나손해보험 상임감사
국회정각회 이헌승 국회의원, 국회정각회장
경제1 대표 육현표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경제3 대표 이혁렬 에스폴리텍 대표이사
사회안전인권 대표 김창룡 주 캄보디아대한민국 대사
문화예술대표 김정배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금융대표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군 대 표 구홍모 전 육군참모차장
환경대표 정연만 전 환경부차관
대외협력 대표 선상신 아시아투데이 부회장
총재특보 윤재연 블루원 대표
총재특보 김종필 내일신문 편집국장이사
감 사 김정만 법무법인 지행인 대표변호사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종단의 화합과 안정은 물론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와 포교를 위한
희망의 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의 불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정 원 주 · 신도대중 일동

120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 동국대학교 120주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FOUNDATION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이 사 장 운곡 돈관

WISE캠퍼스총장 류 완 하 동국대학교총장 윤 재 웅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 해 원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안 국 선 원

사부대중 일동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단로 124(남산동) 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TEL 051)583-0993 · 0994 / FAX 051)583-0991

▷서울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70(가회동)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TEL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www.angukzen.org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달마사
회 주 진 화
주 지 일 행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동작구 서달로50-26(흑석동) 전화 02)813-7425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현존 最古사찰 지장도량
삼랑성 傳燈寺
회 주 학농 장윤
주 지 지불

마음의 등불 전등사
주소: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37-41 홈페이지: jeondeungsa.org
이메일: 9370125@daum.net TEL: 032)937-0125 FAX:032)232-5450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회 주 석산 성행
주 지 명원
총 무 명법 재 무 명종 노 전 정타 포 교 명수, 명호
포교사 수인 부 전 정완, 광륜 신도회장 법등지
사부대중 일동

부설 : 의왕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녹향원, 청계장애인주간보호시설
주소 경기도 의왕시 청계로 475 종무소 전화 031)426-2348, 2221 팩스 426-3666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회 주 계 호
주 지 법 해
사부대중 일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73 전화 02)359-8410 www.jinkwansa.org

승보종찰 송광사 서울분원
법 련 사
주 지 진 경
사부대중 일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10 bubryun5322@hanmail.net
☎ (02)733-5322 Fax (02)733-5379

봉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축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나로부터 우리로
회향하겠습니다
회 장 김의정
수석부회장 이연화
고 문 김성림 성낙윤 왕선자 이경자 이연수 임완숙
지도위원 고은숙 박남수 석진숙 이간난 최선리 함정은
부 회 장 강선자 고은숙 김규리 김문자 김영복 김영옥 김지윤 박숙자
박효신 백영선 유경숙 이경연 이금석 이영미 이영숙 이옥분
이은임 이화성 임소영 장정화 정순천 조성애 조수자
감 사 연경희 유은순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주소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8, 4층 | 전화 02)723-3330
팩스 0505)300-7277 | www.womanbuddhist.com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성지 나한도량
낙가산 보문사
사부대중 일동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828번길 44
☎ (032)933-8271~3 www.bomunsa.me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신도교육 포교컨법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대원사
주지 도륜

대원불교대학총동창회
대원사신도회
안동불교거사림
한마음합창단
대원사33관음성지순례단
사부대중 일동



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141
전화 054)858-2630
팩스 054)859-7230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혜원정사
회주 원허효명
주지 인호진일
혜원정사 사부대중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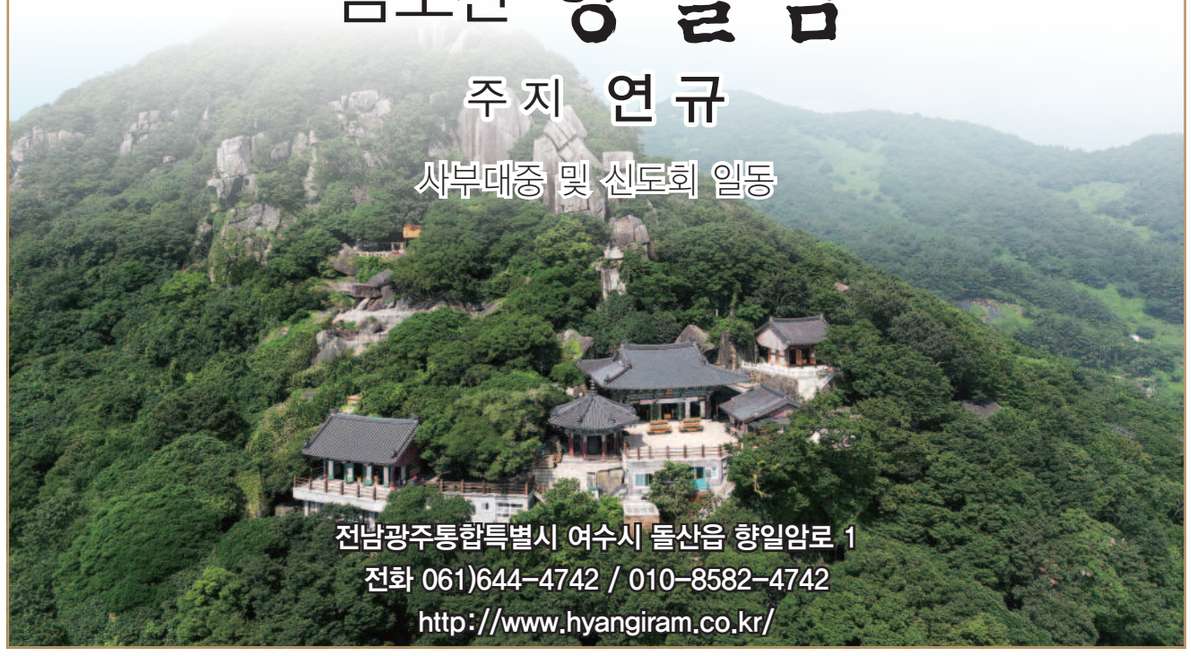
부산시 연제구 고분로 68번길 47(연산4동)
전화 051)866-7771~3, 010-2153-6236 팩스 051)866-7777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천년고찰 전단산 우곡사
사부대중 일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자여로 459
전화 (055)291-3100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대한불교조계종
남해 제일 관음기도 도량
금오산 향일암
주지 연규
사부대중 및 신도회 일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1
전화 061)644-4742 / 010-8582-4742
http://www.hyangiram.co.kr/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갑사
주지 덕상
사부대중 일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로 450 전화 061)352-8097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
빛고을포교원
주지 연성
사부대중 일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고봉로 113번길 11
전화 062)961-1080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법주
신도일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101-1
전화 061)554-2634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
주지 소운
사부대중 일동
• 관음사 신도회 • 붓다스마일 합창단
• 관음사 불교대학(원) • 연꽃향기 성지순례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충장로 46번길 7 전화 061) 362-4433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화계사
사부대중 일동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계사길 117(수유동)
☎ 02)997-6469 Fax 02)990-1885 www.hwagyesa.org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9~9/15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비구의 고백 비구니의 고백	박용길 역	민족사	6	뇌과학자가 본 붓다의 마음	문일수	조계종출판사
2	사람이 부처님이다	무비	불광출판사	7	금강경 선물(컬러링북)	박혜상	불교신문사
3	숨을 쉬세요 당신은 살아있어요	틱낫한	운주사	8	염주의 역사와 수행이야기	태경	조계종출판사
4	지장신앙 지장기도법	김현준	효림	9	거울 속의 물고기	백진순	모과나무
5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보만	불광출판사	10	스님 요즈음 뭘하십니까	정운	여시아문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 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깨달음에 이르는 알아차림 명상 수행	아날요/이필원 외	명상상담연구원
2	마조어록	김태완 역주및도움말	침묵의향기	7	무비스님의 천수경	무비	조계종출판사
3	무영수 영원의 나무	금강	담마북스	8	티벳 불교에 대한 짧고 깊은 안내	매튜 캡스타인	운주사
4	좋은 죽음에 관하여	몽테뉴	아르테	9	화, 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5	불멸 (1)	이각	지혜의눈	10	차 문화 견문록	정영석 글, 사진	맑은소리맑은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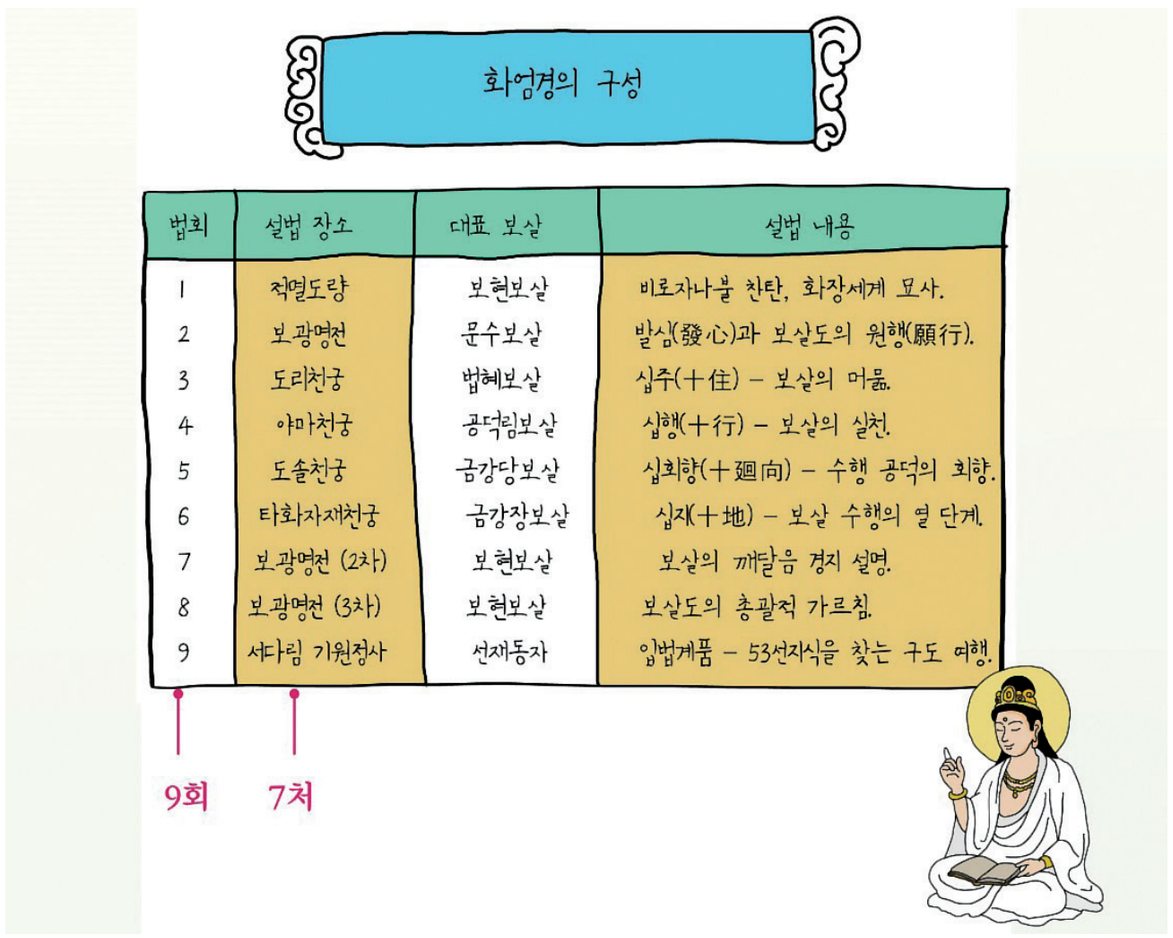
도표로 정리한 방대한 화엄 세계



도표로 읽는 화엄경
정병삼 · 옥나영 글
배종훈 그림
민족사
1만8500원

쉬운 설명과 시각자료 담은 입문서
경전 성립·구성부터 사상까지 수록
민족사 9번째 '도표로 읽는' 시리즈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도표로 읽는 화엄경〉에 수록된 80권본 〈화엄경〉의 구성을 설명하는 삽화. 그림 제공=민족사

대승 경전 가운데서도 널리 알려진 〈화엄경〉의 본래 이름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이다. '위대한 부처님을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한 경전'이라는 뜻이다. 동아시아 불교사상의 꽃으로 꼽힐 만큼 깊은 사상적 체계를 자랑하며,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법계연기(法界緣起) 등 핵심 사상부터 보살 수행에 이르기까지 대승불교의 거대한 세계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이래 천여 년에 걸쳐 가장 중요한 불교사상으로 깊은 영향을 미쳐 왔다.

하지만 80권으로 이뤄진 방대한 분량 탓에 경전을 선뜻 펼치기란 쉽지 않다. 〈도표로 읽는 화엄경〉은 이 같은 〈화엄경〉을 도표와 그림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입문서다. 불교의 낯선 용어와 복잡한 교리를 쉬운 설명과 직관적인 시각 자료로 풀어내는 민족사의 '도표로 읽는' 시리즈의 아홉 번째 책이기도 하다.

이번 신간은 한국 불교사 연구자인 정병삼 숙명여대 명예교수와 옥나영 홍익대 강사가 공동 집필했다. 두 저자의 자료 검수를 바탕으로 배종훈 작가가 그림과 도표를 더해, 글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책은 5장으로 구성돼 〈화엄경〉의 성립과 구성, 핵심 사상과 보살의 수행, 선재동자의 구도 여정, 동아시아 화엄사상까지 폭넓게 다룬다.

책은 경전의 기원과 구성, 동아시아로의 전파 과정을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여래출현과 보살의 길, 보현보살의 약속과 실천 등 〈화엄경〉의 핵심 사상을 조명한다. 이어 적멸도량부터 보광명전, 여러 천궁(도리·야마·도솔·타화자재 천궁), 서다림 급고독원에 이르기까지, 일곱 장소에서 아홉 차례 자리를 바꿔 법을 설하는 '39품 7처 9회'의 무대를 따라가며 〈화엄경〉의 세계와 이곳에서의 설법, 수행을 펼쳐보인다.

또한 법계연기와 십현연기(十玄緣起) 등 화엄의 교리와 함께 한국 화엄사상의 효시인 의상 대사, 중국 화엄사상을 완성한 법장 스님 등을 살핀다. 특히 모든 존재가 주체이자 객체로서 서로 동등한 의미를 지니는 화엄의 연기 세계를 현대 과학과의 접점 속에서 풀어내기도 한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세주묘엄품'부터 '입법계품'에 이르기까지 39품 전체의 핵심 내용을 품별로 조명한다. 이 가운데 '입법계품'은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따라 110개의 성을 지나고 53명의 선지식을 찾아 가르침을 청하는 구도 여정을 다룬다. 이 과정은 깨달음이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세상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고, 삶의 모든 자리가 곧 수행의 현장임을 일깨워준다.

책을 펼치면 왼쪽에 글, 오른쪽에 그림이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각 장의 핵심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백을 살린 삽화는 시각적 부담을 줄여 독서의 몰입을 돕는다.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화엄경〉의 성립과 구조, 핵심 사상에 이르는 전체 윤곽이 그려지며 깊이 있는 이해로 이어진다.

공동 저자인 정병삼 교수는 "〈화엄경〉은 대승 경전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경지를 보여주며 그 사상은 현대 물리학의 일부 관점과도 통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돼 왔다"면서 "새로운 지식이 끝없이 펼쳐지는 요즘 이 책이 상상력의 나래를 펼치는 데 한 줄기 빛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대한 분량 탓에 〈화엄경〉 읽기를 주저했거나 화엄 세계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권할 만한 책이다.

고승들이 전하는 인생의 해답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천년의 지혜
이진영 지음
불광출판사
1만8000원

원효·의상 스님 등 문장 엄선
후회 없는 삶 위한 기준 제시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고비마다 던지게 되는 본질적인 질문에 수백 년 전 선승들의 지혜로 답하는 책이 출간됐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천년의 지혜〉는 시대를 넘어 되풀이되는 인간의 고뇌에 대해 성현들이 평생의 수행으로 찾아낸 답을 제시하는 책이다. 동국역경원에서 불교 고전을 번역하고 연구해 온 저자는 원효·의상·나옹 스님 등 한국을 대표하는 고승들의 글을 엄선해, 현대인이 맞닥뜨린 삶의 고민에 깊은 성찰과 지혜를 전한다. 삶의 흔들리는 순간마다 마음을 세워줄 스님들의 문장을 10장에 걸쳐 담았다.

선승들의 게송을 먼저 제시한 뒤, 그에 담긴 사유와 통찰을 저자의 해설로 풀어내는 구성이다. 이를 통해 욕망과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법부터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을 닦는 법, 사람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준을 다각도로 제시한다.

저자는 나옹 혜근 스님의 〈나옹화상어록〉 속 게송을 통해 '무엇을 위해 바삐 사느냐'고 묻는다. 백발이 되도록 명예와 이익, 쾌락을 좇는 이들을 불빛에 뛰어드는 나방이나 끓는 물에 떨어지는 게에 비유한 스님의 게송은, 눈앞의 이익 뒤에 숨은 대가와 위험, 끊임없이 타오르는 업의 불길을 직시하게 함으로써 발심과 각성을 촉구한다.

허응당 보우 스님은 "구름이 푸르든 희든 하늘이 무슨 관여를 하던가/ 남이 옳든 그르든 내 알 바 아니네"라는 게송으로 타인의 옳고 그름에 섣불리 개입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마음속 분별망상을 여읜 자리에는 남을 향한 원망이나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설 틈이 없다는 저자의 해설이 이어진다.

또 이어 부휴 선수 스님의 〈부휴당대사집〉 구절을 들어 "비록 비방과 칭찬을 듣더라도 바람 지나가듯 여긴다면/ 온갖 일에 무심하여 도가 저절로 세워지리라"는 제언을 전한다. 세간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할 때 비로소 고요한 깨달음의 길이 열린다는 설명이다.

이별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천경집〉에 수록된 함월 해원 스님의 글귀를 내세운다. 달이 어두워져야 밤낮의 이치가 서고 물이 흘러야 맑음이 드러나듯, 만남 또한 이별을 거쳐야 온전해지며, 이별은 곧 새로운 인연을 잉태하는 필연적인 과정임을 일깨운다.

보조 지눌 스님의 〈진심직설〉에서는 마음을 비우는 '무심'의 태도를 빈병에 비유한 게송에 주목한다. 저자는 마음이라는 그릇은 그대로 둔 채 욕망과 편견만 걷어냄으로써, 세상사에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지눌 스님의 통찰을 짚어낸다.

또한 화려한 꽃을 좇다가 거미줄에 걸린 곤충의 모습을 묘사한 백암 성총 스님의 〈백암집〉 게송을 소개하며, 자극적인 화면을 넘기며 타인의 화려한 삶을 좇다 절제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책은 어려운 불교 용어나 시대적 배경에 간결한 해설을 덧붙이는 한편, 고승의 생애와 사상, 출전 문헌을 함께 소개해 불교학적 깊이와 전문성을 더했다.

치열한 수행과 깊은 사유로 빚어낸 고승들의 문장은 현재의 삶을 스스로 성찰하고, 다가올 시간을 후회 없이 채워갈 삶의 기준을 제시한다.

배희정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나반존자 기도영험도량
금정산 미륵사
회 주 大蓮 眞愚
주 지 덕안
신도회장 무각 김기대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북문로 126
전화 051)508-4707

월암 스님이 전하는 '참선'의 핵심



좌선요결
월암 스님 지음
담앤북스
2만5000원

조사선 정맥 짚어 좌선 본질 밝혀
역대 조사들 좌선 수증 역사 정리
2전제 1토대 5본제 간화선 체계화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가부좌를 틀고 생사를 해탈하고자 발심하는 좌선(坐禪)은 수행자의 거룩한 불사다. 그러나 몸은 고요하게 앉아 있을지라도 마음은 온갖 분별로 시끄럽게 헤매다 깨달음이라는 본질이 왜곡되거나, 단순히 몸을 결박하는 데 그치는 안타까운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좌선 수행의 본질과 핵심을 정리한 수행 안내서가 나왔다. 전국선원수좌회 의장을 지내고 현재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과 경주 중흥사 불이선원의 선원장을 맡고 있는 월암 스님이 집대성한 〈좌선요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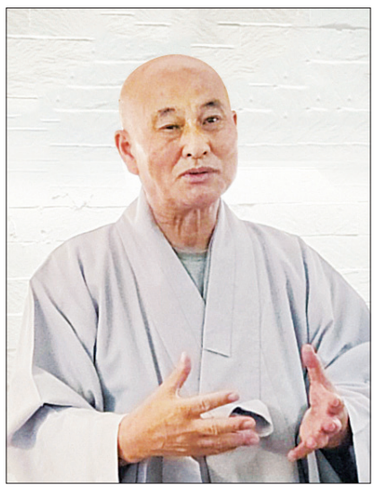
이 책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달마 대사, 육조 혜능을 거쳐 임제·조동 등 오가칠종(五家七宗) 선사들과 한국의 선지식들로 이어진 조사선(祖師禪)의 정맥을 되짚으며 좌선의 본질을 밝힌다. 번뇌를 다스리는 다섯 가지 관법인 오정심관(五停心觀)으로부터 살불살조(殺佛殺祖)의 조사선을 거쳐 묵조선(默照禪)과 간화선(看話禪)에 이르기까지 역대 조사들의 좌선과 깨달음에 관한 심지법문(心地法門)을 한데 모았다.

책은 '좌선요의'와 '심지법문', '간화정종' 등 3장으로 나누어 선의 역사와 체계를 깊이 있게 조명한다.

부처님의 팔만사천법문과 역대 조사들이 전한 좌선의 요체를 정리한 '좌선요의(坐禪了義)'에서는 좌선의 의의는 물론 여래청정선과 돈오점수, 오가종과 조사선, 묵조선과 간화선에 이르기까지 좌선의 역사를 살핀다.

역대 조사들의 좌선 수증(修證) 요결을 갈무리한 '심지법문'에서는 '회광반조(廻光返照)', '체원진도(體寃進道)', '수일불이(守一不移)' 등 수좌들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역대 조사의 핵심 가르침을 정리해 선 수행의 지침을 제시한다.

'간화정종(看話正宗)'에서는 간화선 수행의 특징과 현대적 효용, 수증 방편을 상세히 조명한다. 특히 간화선 수행의 전반을 '2전제 1토대 5본제'라는 구조로 정립해 눈길을 끈다. 정견(正見)과 발심(發心)이란 전제 위에 일념수행(一念修行)을 토대로 삼고, 예경선(禮敬禪)·안반선(安般禪)·염불선(念佛禪)·화두선(話頭禪)·휴휴선(休休禪)으로 이어지는 5단계 본제를 통해 수행의 길잡이를 제시한다.



깨달음에 이르는 좌선 수행의 핵심 가르침을 담은 〈좌선요결〉을 출간한 월암 스님.
현대불교 자료사진

주제별로 다룬 각 장 말미에는 스님이 직접 지은 칠언절구의 게송으로 내용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월암 스님에 따르면 '선'이란 마음을 알아 참된 성품을 보고, 나고 죽음이 본래 없음을 단숨에 꿰뚫는 일이다. 따라서 좌선은 고목처럼 형상만 굳게 앉아 있는 정적인 상태에 머물지 않는다. 스님은 이를 "마음밭[心田]에 쉼 없이 일어나는 분별과 망상을 쉬고 또 쉬어 마침내 텅 빈 자리에 이르는 역동하는 멈춤"이라고 정의한다.

일체의 분별이 끊어져 생각이 더는 일어나지 않을 때, 마음의 거울은 무명의 티끌을 벗고 삼라만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게 된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스님은 좌선의 완성이 고요한 선방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默動靜)의 매 순간 화두가 살아 있는 역동성에 간화선의 묘미가 있으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소란한 일에 휘둘리지 않고 화두를 놓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증득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참된 선은 경직된 교조의 틀에 갇히지 않는다"는 스님의 지적처럼, 이 책이 지향하는 바는 깊은 산중에 은거하는 고립이 아니라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불이(不二)'의 실천이다.

독자들이 일상의 매 순간 화두를 참구하되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마음조차 내려놓고 참된 사람[無位眞人]이 되어, 온 세상을 자비로 물들이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염원하는 스님의 경책은 좌선을 통해 스스로를 반조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명쾌한 길잡이가 되어준다.

티베트 불교 역사·사상 한눈에



티벳 불교에 대한 짧고 깊은 안내
매튜 캡스타인 지음
한재희 옮김
운주사
1만5000원

고승 가르침 받은 미국 불교학자
티베트 불교 기원부터 전파 망라

학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티베트 불교의 전체상을 충실하게 담아낸 입문서가 국내에 번역돼 나왔다. 프랑스 파리 고등연구원 종교학부 매튜 캡스타인 명예교수가 쓴 〈티벳 불교에 대한 짧고 깊은 안내〉다. 이 책은 2014년 간행된 옥스퍼드 출판사 기획 시리즈의 번역서로, 티베트 불교의 역사와 전통, 철학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풀어냈다. 50번째 대원불교학술총서이기도 하다.

책에는 인도·티베트·네팔 등지에서 뒤좀 린뽀체, 16대 까르마빠 등 고승들로부터 사사한 저자의 학문적 성과와 현장 경험이 녹아 있다. 티베트 불교의 역사와 전통, 철학은 물론, 발전과 변천 과정을 단순히 연대기 순으로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정치·종교적 맥락 속에서 비판적으로 짚어낸다. 승원 문헌 속 고차원적 교학부터 토착 신령과의 조화, 정화 의례, 점복, 호법신 숭배, 장례 및 뽀와(의식의 전이) 의례까지 폭넓게 다룬다. 이를 통해 '세속의 유지'와 '세속의 초월'이라는 두 근본 목적이 상호의존하며 티베트 문명을 지탱해 온 구조를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책은 8장에 걸쳐 티베트 불교의 기원부터 현대 서구 사회로의 전파까지 역사와 사상, 문화 전반을 치밀하게 아우른다. 7~9세기 티베트 제국 시기 불교의 유입과 뵌교·닝마빠의 형성, 10세기 후반 '후기 전법' 운동 이후 주요 학파의 전개, 겔룩빠 창시와 달라이 라마 체제의 확립 등 다원적 종교 지형을 추적한다.

아울러 보살도의 윤리적 실천, 아띠샤의 〈보리도등론〉에 기반한 근기별 수행, '로종' 및 '똥렌' 호흡 명상을 소개하고, 관세음보살 신앙과 육자진언, 승원 교육의 5대 문헌 및 4대 학파 체계를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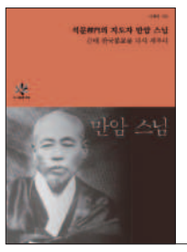
이어 탄트라(밀교)의 본질과 밀라레파의 수련 과정은 물론, 죽음과 환생 사이의 중간 상태인 '바르도' 관념과 〈티벳 사자의 서〉, 1959년 제14대 달라이 라마의 인도 망명 이후 서구 확산과 현대 과학과의 학술적 대화까지 담아냈다.

책 말미에는 참고문헌과 추가 읽기 자료를 수록해 학문적 완성도를 더했다. 티베트 불교를 향한 미화나 비판적 시각에서 벗어나, 학계의 연구 성과를 충실히 반영한 입문서를 찾는 연구자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다.

배희정 기자

'다면불' 만암 스님을 그리다

〈多面佛〉



석문의 지도자 만암 스님
이재형 지음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1만5000원

조계종 초대 종정 만암 대종사
수행자·지사·교육자 면모 조망

일생 '이뭣고' 화두에 매진하며 백양사를 대가람으로 일으킨 수행자이자 일제 침략에 맞서 민족문화를 지켜내려 애쓴 지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불사에 매진한 교육자.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만암 스님의 '다면불(多面佛)' 같은 삶과 사상을 조망한 책이 출간됐다. 〈석문의 지도자 만암 스님〉은 이재형 법보신문 대표가 사료를 바탕으로 만암 스님의 생애와 활동을 복원하며 근대 한국불교의 굵직한 장면들을 새롭게 들여다보는 책이다.

만암 종헌(1876~1957) 대종사는 1886년 아홉 살에 백양사로 출가했다. 23세 때 백양사 운문암에서 환응 스님에게서 배워 강맥을 이었고, 39세에 물외암에서 정진해 깨달음을 증득한 후 평생 수행과 교육에 매진했다.

'인재 불사가 곧 항일'이라는 믿음으로 1909년 근대식 학교인 광성의숙을 세웠고, 1930년에는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불교전수학교를 중앙불교전문학교로 승격시켜 초대 교장을 지냈다. 해방 후에는 정광학원을 설립해 초대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또 1917년부터 10년간 중창불사를 이끌어 폐허나 다름없던 백양사를 호남 굴지의 대가람으로 일으켜 세웠고, 1948년 백양사에 고불총림을 결성했다.

1954년 조계종 제1대 종정에 오른 후에는 종조를 태고 보우 국사에서 보조 지눌 국사로 바꾸는 문제가 불거지자 "종조를 바꾸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는 환부역조(換父易祖)"라고 비판하며 자리를 내던지고 백양사로 돌아왔다.



조계종 초대 종정이자 근대 한국 불교계의 원력보살인 만암 스님.
현대불교 자료사진

책은 스님의 출생에서부터 1957년 세수 80세, 법랍 70년으로 입적할 때까지의 삶을 좇는다. 기존 학계 연구 성과를 최대한 반영하고 사료를 일일이 대조해 스님의 생애를 고증했다. 특히 그간 이름만 전해오던 은사 취운 도진(1858~1922) 스님의 실체를 처음으로 복원한 점이 눈길을 끈다. 저자는 만암 스님에게 은사 취운 스님이 '지혜가 깊고 덕이 높은 고불(古佛)'이었고, 훗날 결성한 고불총림의 이름도 여기서 연원했음을 보여준다.

저자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만암 스님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정화 사상이다. 저자는 해방 후 만암 스님이 정화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먼저 제기하면서도 국가권력에 의존한 강제적 방식에는 반대했다고 설명한다. 스님이 생각한 정화는 응징이나 축출보다 '회복'에 가까웠다.

1954년 종헌 개정을 통해 '조계종'이라는 종명을 회복하고 도의국사를 종조로 명문화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종조 문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스님은 결국 종정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긴 말은 분열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화쟁(和諍)의 문호'와 '화동(和同)의 길'이었다.

저자는 자립을 위해 노동하고, 미래를 위해 교육하며, 불교의 회복을 위해 개혁하되 분열을 경계했던 만암 스님을 통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한순간도 어긋나지 않은" 수행자의 표상을 보여준다.

여수령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韓國佛教太古宗

宗正 雲耕
宗正禮敬室長 東虛

僧正院長 錦龍
首席副議長 靑峰
次席副議長 慧雲
僧正 智山,雲岩,知足,智巖,修庵,雪雲,普經,南坡,三學,法蓮,圓峰,守敏,守悅,宗演,知足,慧雲,大隱

元老會議 議長 虎溟
首席副議長 智玄
次席副議長 性悟
議員 錦明,雪峯,東佑,雲山,瑞峰,會梵,一雲,道光,祥明,雪山,觀正,法京,碧山,月峰,慧周,無德,古潭

中央宗會 議長 法輪
首席副議長 圓日
次席副議長 慧祐

護法院長 九山
副院長 幻明
委員 晩愚,智行,月照,海雲,一住,圓悟

初審院長 六和
副院長 杲峰
委員 哲悟,曉門,晩松,峻凡,眞空

中央選擧管理委員長 正雲
副委員長 智滿
委員 法一,智勤

總務院長 常眞
行政副院長 道惺
財經副院長 永範
總務部長 正眼
教務部長
財經部長 曉能
司書室長 道輝
文化部長 月陀
社會部長
弘報部長 法眞
糾正部長 眞華
比丘尼部長 現潭
校任·傳法師部長

教育院長 才弘
副院長 智觀
布教院長 能解
考試委員長 休完
法規委員長 智空
社會福祉院長
佛教文藝院長 松月
太古文化遺産傳乘事業團長 智虛

東邦佛教大學學長 法潭
教學處長 哲悟
韓國佛教新聞社長

全國比丘尼會長 玄仲
全國校任傳法師會長
全國信徒會長 圓覺
靑年會長 李正勳

종도일동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 전화 02) 739-3450, 팩스 02) 739-3470

지구 되살리는 일, 다 함께 상생하는 길

지금 이 세계戒

⑧ 두 번째 화살을 맞았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2026년 8월 26일 오전 8시 37분, 인류는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맞았다. 이날에 대해서는 이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두 알 것이다. 네팔-티베트의 국경 지대의 빙하가 크게 붕괴돼 산사태를 비롯해 빙하 쓰나미가 발생, 이로 인해 약 500만 톤의 물과 토석류가 히말라야 아래로 쏟아져 내려와 수많은 인명 피해와 참상을 남겼다.

처음 뉴스를 접했을 때는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다. 자연에서 일어날 수 없는 모습에, 이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벌어진 일인가 싶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는 네팔에서 실제로 일어난 현실이었고, 이렇게 끔찍한 비극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지 슬픔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런데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번 히말라야 빙하 쓰나미와 홍수에 대해 인간은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미 12년 전인 2014년 8월 29일 EBS 교육방송에서 제작한 '하나뿐인 지구-히말라야 대재앙, 빙하 쓰나미' 편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염려와 대책에 관해 상세하게 다뤘다.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는 올해 7월 2일 재방송과 유튜브 재업로드를 통해 지구 보존의 필요성과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그럼에도 인간은 그 오만함에 사로잡혀 우리의 삶에 관계되지 않은 것이라 여기며 아무렇지 않게 지내다가 결국 인류 스스로 삶의 터전에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필자는 이와 비슷한 재앙을 앞서 2017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에 경험했다. 이날은 일본의 동북부(토후쿠)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9.1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한 날이다. 그리고 잠시 후 시속 700㎞로 높이 40m의 말도 안 되는 쓰나미가 밀려와 이 지역을 쓸고 가버렸고, 약 2만 명의 희생자를 남겼다. 이 순간을 전하던 일본 NHK 아나운서의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말은 지금도 생생하다. 이때 인류는 자연에 대해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인간이 통제하려 해서도 안 된다는 깊은 가르침을 얻으며 참회했었다.

그러나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약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때 몸소 겪은 상처와 교훈을 까맣게 잊고 이번에는 인간의 손으로 더 큰 재앙을 만들고 만 것이다. 언뜻 보면 동일본대지진이나 네팔 홍수가 자연재해로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지구에서 인간만 편하면 된다는 오만함으로 살아온 결과가 불러온 재앙이며 '인재(人災)'다.

〈상윳다 니까야〉의 '살라타경'에서 부처님은 중생이 살아가며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으로 "비구들이여, 마치 사람이 첫 번째 화살에 맞고 다시 두 번째 화살에도 맞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신다. 누구나 살아가며 처음 접하는 여러 상황과 인연 속에서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다. 다만 그런 일을 경험하고 괴로움을 겪었을 때 그저 그 순간만을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순간의 괴로움을 교훈으로 삼아 다시 같은 실수를 스스로 저지르지 않도록 성찰하고 정진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다시 두 번째 화살에도 맞는 것과 같다"는 말씀과 같이 인간(중생)은 같은 실수를 다시금 저지른다. 그래서 계속 윤회를 거듭하고 그 잘못은 마치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핑계를 대고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첫 번째 화살은 세상과 인연이 우리에게 쏜 것이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쏜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화살을 맞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쏜 두 번째 화살에 맞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맞았으니 어쩔 수 없지'라며 살아가야 할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지금 이 세계戒' 칼럼의 바로 이전 주제가 '불이(不二)야'였다. 지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칼럼을 쓰자마자 이번 참혹한 일이 다시금 벌어진 것에 필자는 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하다. 하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고 전해줘야 한다. 우리의 신구의(身口意) 삼업을 편하게 하려고 지금처럼 살아왔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 **네팔 대홍수, 인간 오만함이 빚은 인재**
> **삼업 편하게 살아와 맞은 두 번째 화살**
>
> **다시금 불러온 재앙, 우리가 복구해야**
> **남 일 아닌 우리의 다가올 미래일 수도**
>
> **지구 살리고 인연 보살피는 실천 나서야**
> **내일로 미루면 세 번째 화살 맞게 될 것**

그렇기에 이제 그 신구의 삼업으로 다시금 되돌려야 한다. 우리의 몸만을 편하기 위해 살기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구를 위한 일을 몸소 실천해야 한다. 말로만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서로 간의 약속으로 여겨야 한다. '나도 해 볼까'라는 생각은 이미 늦었기에, 지금 생각날 때 바로 실천하고 주위에 전해야 한다.

업은 그것을 행한 당사자에게 언젠가 반드시 되돌아온다. 이를 '업과', '업보'라고 부르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왜 우리는 업보를 피하려고만 할까? 피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으면 될 일이다. 나쁜 업을 짓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업보 또한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노력과 수행, 정진으로 그 업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또 다음에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면 그 업의 힘은 점차 약해지고 사라져 마침내 우리는 업보를 두려워할 필요조차 없어지게 된다.

"악행은 자신이 지은 것이고, 자신에 의해 더러워진다. 악행을 짓지 않는 것도 자신이며, 자신에 의해 깨끗해진다. 청정과 부정은 각자에게 달려 있으니, 남이 남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법구경〉 165게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다시금 불러온 이 재앙은 우리가 복구하고 우리가 되살려야 한다. 더 이상 다른 누군가를 탓하거나 지구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이다. 다른 누가 어찌 의지처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가르침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의지처이고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가는 중생이다. 스스로 중생임을 인정하고 부족한 존재이기에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실천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와 전혀 무관한 나라의 일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지금은 그곳이지만, 가까운 시일에 이곳으로 옮겨올 일이다. "이것이 있기에 그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그것도 사라진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가장 절실히 느껴지는 순간이다. 그곳 네팔의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일상을 되찾고 보금자리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히말라야의 그 땅이 지구를 잘 덮어줘야 한다. 그래서 이곳 대한민국의 우리도 마음 놓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서 지구에 감사하며 오늘을 영위할 수 있다.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의 지구 속에 살아간다.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그 전체 속에 다시 하나가 존재한다는 '일즉일체다즉일(一卽一切多卽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나의 행동이 내일의 우리에게 전해져 삶을 이룰 것이기에,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오늘 나의 행동을 잘 다스리고 책임져야 한다. 아주 작은 한 존재이지만, 한 명 한 명이 모여야 우리가 되고, 우리가 있어야 지구를 다시 되살릴 수 있다. 지구는 항상 우리를 돌봐주고 아낌없이 베풀어줬다. 그러나 정작 그런 보살핌을 받았던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영원토록 우리의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이런 일을 불러온 것이다.

'자비(慈悲)'와 '화합(和合)'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다. 자비로운 마음과 행동이 있을 때 상대와 화합을 하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이제 지구가 우리에게 그랬듯 우리가 지구를 자비롭게 대해주자. 아파서 상처입은 곳을 우리가 치료해 주면 그 상처가 아물며 다름 아닌 우리에게 터전을 제공해 줄 것이다. 잘려나간 곳을 우리가 채워주고 심어주면 다름 아닌 우리에게 풍요로운 자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더러워진 곳을 정화하고 깨끗이 사용하면 다름 아닌 우리에게 생명의 감로수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처럼 지구를 되살리고 보살펴주면 지구는 다름 아닌 우리와 화합하여, 우리가 보다 편안하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지구는 우리의 관세음보살이며 정토이다. 다른 누군가를 관세음보살로 찾을 것이 아니라, 항상 곁에 있던 눈앞의 관세음보살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서쪽 어딘가의 정토를 꿈꿀 것이 아니라,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땅이 그토록 찾던 정토임을 깨달아 청정한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미 두 번째 화살은 맞았다. 이제 빨리 화살을 빼고 상처를 치료해야 살 수 있다. "땅에서 넘어진 자, 그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한다(因地而倒 因地而起)"는 보조 지눌 스님의 가르침과 같이, 지구에서 넘어진 우리와 인연들을 다시 그곳에서 일으켜 세워 함께 살아가야 한다. 내일로 미루는 순간 우리는 세 번째 화살에 맞게 될 것이다.



법장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 일

종도 일동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6길 76-9, 일붕선원 1층
Tel : 02-991-8175, 8904 / Fax : 02-991-8176
www.ilbung.org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포교사 일동

포교가 곧 수행
수행이 곧 포교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5층
전화 02)927-0588 / 팩스 02)927-5390

남산길 수놓은 생명나눔 발걸음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생명나눔으로 물들다

⑧ 제17회 생명존중 걷기 & 플로깅 현장

생명나눔실천본부, 9월 5일 동국대서
가족부터 청년·반려견까지 남산길 걸어

대불련·조계사청년회, 참가비 성금 전달
명상·공연·체험…몸·마음 돌보는 시간
일면 스님 "지금 이 순간 소중함 느끼길"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생명나눔실천본부는 9월 5일 서울 동국대 만해광장과 남산 일대에서 '제17회 생명존중 걷기명상&플로깅'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사장 일면 스님과 곽상언 국회의원을 비롯한 불자와 시민 800여 명이 동참했다.



800여 명의 참가자들은 힘찬 구령과 함께 걷기명상을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지안 스님의 지도로 싱잉볼을 활용한 명상을 체험했다.



조계사 청년회는 이날 참가비를 청년 환우 치료비로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마하무용단의 공연무대는 걷기대회 참가자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볼거리를 선사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008년부터 매년 걷기대회를 열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장기기증과 나눔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 특히 4년 전부터는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도입해 생명나눔과 함께 환경보호의 중요성도 알리고 있다.

올해 생명존중 걷기명상&플로깅은 어느 때보다 젊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부모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아이들은 출발 전부터 곳곳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고 가족들은 기념사진을 찍으며 특별한 주말 나들이를 즐겼다. 반려견과 함께 참가한 이들도 눈에 띄었다. 남산 숲길을 따라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걸으며 도심 속에서 여유를 만끽했다.

청년들의 참여도 행사에 활기를 더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원 30여 명과 조계사 청년회 회원 50여 명이 함께해 젊은 불자들의 힘찬 발걸음이 남산길을 채웠다. 특히 이들은 이날 참가비를 청년 환우 치료비로 모아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전달하며 생명나눔의 의미를 실천해 훈훈함을 더했다.

본격적인 걷기에 앞서 이사장 일면 스님은 참가자들에게 걷기명상의 의미를 전했다. 스님은 "오늘 남산에서의 걸음은 잠시 자신을 돌아보고 생명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걸음마다 마음을 모으는 선명상을 통해 복잡했던 생각은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신에게는 건강과 평안을, 사회에는 생명존중 문화를 넓혀가는 뜻깊은 걸음이 되길 바란다"면서 "남산의 맑은 기운 속에서 좋은 추억을 가득 담아가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이어 800여 명의 참가자들은 힘찬 구령과 함께 걷기명상을 시작했다. 동국대 만해광장을 출발해 남산 둘레길 4km 가량을 걸으며 힐링의 시간을 갖고 또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보호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남산을 한 바퀴 돌아 다시 만해광장으로 돌아온 참가자들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또 다른 즐거움을 만끽했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이날 즉석에서 최근 출간한 회고록 〈생명나눔, 일면입니다〉 사인회를 열었다. 스님은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사인을 하며 덕담을 건넸다.

체험부스에는 참가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끈 곳은 지안 스님이 마련한 싱잉볼 명상 체험 부스였다. 참가자들은 싱잉볼을 활용한 명상법을 배우며 잠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했다. 은은하게 퍼지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몸과 마음을 내려놓는 방법을 배운 김선인 씨(29·서울 중구)는 "걷기대회라고 해서 운동만 생각했는데 잠시 앉아 명상을 하니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쉬어가는 느낌"이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게임도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펀치 게임을 하며 마음껏 웃고 일상의 긴장을 털어냈다. 또 동국대 참사랑 봉사단과 함께하는 자살예방 캠페인, 양말목 키링 만들기, 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의 피날레는 흥겨운 공연으로 장식됐다. (사)세계행복나눔태권도의 역동적인 태권도 시범과 마하무용단(단장 정현숙)의 공연무대는 걷기대회 참가자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볼거리를 선사했다.

마지막에는 참가자들을 위한 푸짐한 경품 행사가 진행됐다. 추첨 번호가 불릴 때마다 행사장에서는 기대와 환호가 교차했고 당첨자에게는 축하의 박수가 쏟아졌다.

이날 걷기대회&플로깅은 건강을 위한 걷기에서 시작해 환경을 위한 플로깅, 명상과 나눔의 축제로 마무리됐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걷기와 명상, 플로깅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주변의 생명과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존중과 나눔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함께하는

제17회 불암사 산사음악회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일시 | 2026년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 장소 | 불암사 경내 특설무대

오프닝 12:45 ~ 13:00
불암사 합창단 I 마하무용단

본행사 13:00 ~ 13:30
일면장학금 전달식 I 생명나눔 장학금 전달식
치료비 전달식 I 인사말 및 축사

문화공연 13:30 ~
사회자 이익선 아나운서
출연진 가수 적우, 염유리, 황인아, 신명근, 마하무용단

부대행사
장기기증 캠페인 I 불암사 국화축제
불암사 신도회 먹거리 장터

사회자



이익선 아나운서

출연진



적우



염유리



황인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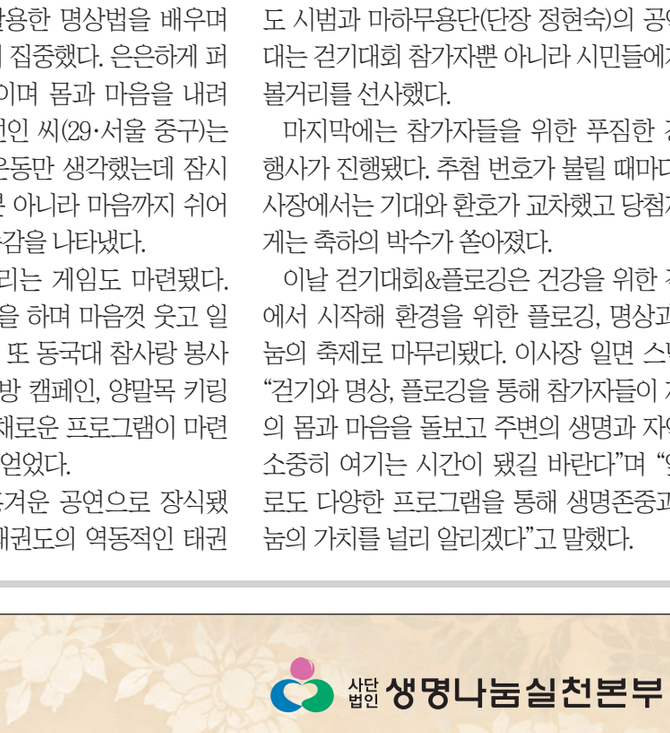
단장 정현숙



마하무용단



신명근



주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BBS 불교방송 | 협찬 문화체육관광부 남양주시 현대불교 법보신문 불교신문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생활

1594호 | 22 | 전면광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업을 따라 살아간다.
좋은 씨앗을 뿌렸든 나쁜 씨앗을 뿌렸든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거두는 것과 같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본생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부산시
- 대지 : 200평
- 법당 : 30평, 요사:50평
- 매가 : 6억5천
- 차량진입, 주차가
- 위치 : 경기도
- 부지 : 450평
- 법당 : 50평, 요사:60평 외
- 공원산 밑 주차10대
- 매가 : 30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창건주승계,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 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칠포해수욕장 부근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정부 고시가 : 4억 7800만원
- 가액 : 3억원(대출 2억 800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우체국/농협/면사무소 약 도보15분거리 입니다.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6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봉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3동)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소법당 13평-1동 다실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건물 - 1동 / 종무소 - 8평
- 추천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카페 · 다원 기타 최상입지
- 가액 : 9억8천만원(법회가능 · 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서경암
- 보증금 : 500만원
- 시설 : 1700만원
- 월세 : 40만원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4809-7307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부산 북구 구포3동 아파트 정문앞 주택가 밀집지역
- 규모 : 2층 40평
- 법당 : 칠보 약사여래불 주지 스님 방 주방시설, 화장실 실내
- 보증금 : 1000, 월40
- 시설 권리비 : 2000만원

※스님 건강 악화로 급매, 몸만 오시면 됩니다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4709-0108

사찰(급)안내

- 땅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 동국대 병원에서 안강방면 10분
- 대지 : 250평 〈+국유지, 약500평(200평 사용중)〉
- 건축 : 법당 30여평(26년, 300등 연등 접수)
  - *요사채 ①적벽돌 2층(80여평), 뒷결, 초파일 공양간 20평 ②스레트건축(방 4개 합30여평)/야외화장실(10평) ③사무실용 1동(운동실로 사용 중, 20여평)
  - *집기류 : 법당 및 공양간 집기 일체와 200년 된 소나무 오가피 30주, 매실 3주(약 5천만 상당)보시
  - *특 징 : 동대병원 10분, 버스정류장 도보 3분, 정남향 기존철도선 5년 전 철거, 늘 흐르는 산속 청정수
- 보시금 : 3억 3천

010-8847-4610

토굴(급)안내

- 위치 : 영덕군 창수면 가산리
- 지상권 주택등기 있음
- 토지세 년8만원
- 방2 부엌1 화장실1, 10평
- 실제더크게 사용, 마당주차, 기름보일러
- 가액 : 2600만원

010-4323-3579

사찰안내(임대)

- 부산 동구 범일동 범일 공원 위(계단있음)
- 1층 2층 법당 각 40평씩
- 대지 98평 / 건물80평
- 방 5
- 보5000/월90(조율 가능)

010-5511-700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금정산 산자락
- 규모 : 대지 600평/건평 88평(6개동)/요사채, 법당, 미륵전, 비루전, 선다원, 산신각
- 법당 : 법구일체. (냉장고, 세탁기) 등은 보시하겠습니다.
- 가액 : 6억원

010-6325-6700

사 찰 안 내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 대지 : 232평 법당 요사채
- 천도재, 법회 가능
- 금액 : 10억원

010-4585-6807

암자터(급)안내

- 대지 : 184평, 기도 수행도량
- 해발 600m, 주차, 텃밭, 실사용 500평
- 조용한 자연환경, 전기, 청정계곡, 토목공사
- 오시는길 : 청송 파천면 지경마을회관서 직진, 선덕암
- 가액 : 8천만원

스님 직접 010-9393-4965

광고 접수 번호 안내

02-2004-8204

010-4648-8200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내
- 규모 : 2층 법당 20평
  1층 요사채 방2개
  거실, 주방 등
  밖에 컨테이너 1동
  바로 앞에 금호강이 흐르고 있음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 가액 : 2억 5천(조정 가능)

010-3007-5611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전승학인 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문화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바라(작법)연수원 010-5511-7000

대원불교미술원(청동 불상 전문업체)

청동 불상, 목 불상 특수 불상 조성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및 사찰에서 필요한
모든 불사 상담 환영합니다(법당이전 및 철거)
사찰법당 무속인 법당 철거하여 모셔다가
정성껏 파불하여 드립니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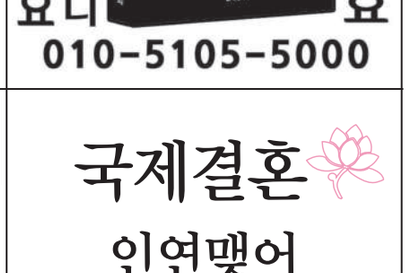
대원 임영달 lyd5798@naver.com 010-7171-2636

사찰넷닷컴

비공개 매물 양도 양수
전국 사찰매매
전문 중계 업체

네이버에서 사찰넷닷컴을 검색하세요

010-7497-8497



진짜 귀중한 책이니 꼭 읽어봐주세요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우주광명 누진통

- 지금은 우주불교시대
- 지금은 천존 천신의 시대
- 새로운 불교 수행법

단 10분에서 1시간이면 업장이 소멸되고 번뇌가 끊어져 무념 무상이되고 해탈이 되는것을 그 즉시 느끼고 깨달음이 이루어 집니다.

일광사 일광선원
경남 창녕군 부곡면 온정1길 17~39

010-3586-6091

미래 철거 디자인

- 법당 철거
- 사찰 정리
- 유품 정리
- 가정집 정리

부산 : 이주현

010-5507-7080

49재 · 천도재 기제사 · 구병시식

사찰 방문시 무보시(무료)로 지내드립니다.

부산 서구 묘법사

010-2168-2800

북한산국립공원 내 암자

(서울 은평, 경기 고양 인접)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010-8699-2331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9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불교계 최고 통일 의식법요집

최고급 양장본



다비법요집 (1,445쪽) ····· 150,000원
천도법요집 (853쪽) ····· 100,000원
통용불공법요집 (885쪽) ····· 100,000원

■ 특징
- 불공신앙, 영혼천도, 사자신앙, 소재신앙, 세시풍습을 종합한 의식법요집.
- 출재가를 아우르는 예불, 독경, 기도, 공양 등 의식을 집대성한 의례의식집.
- 시대의 획기적인 변화와 정례화된 한국 불교의 뿌리를 공고히 한 편찬서.

■ 내용
- 통용불공법요집, 다비법요집, 천도법요집은 흩어져 있는 불교의식들을 한데 모아 책으로 편찬한 통일 불교의식집이다. 특히 여러 큰스님들이 전해온 기도법과 신도들의 간절한 신심을 바탕으로한 전통 의식을 재정리하여 불자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 신심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내용으로 편집되었다.

보급처 | 사) 대한불교교종 출판사 TEL : 031-297-8414

해썹(HACCP) 인 증 업 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틱낫한 스님의 『안반수의경』 해설
숨을 쉬세요, 당신은 살아 있어요!

불교 수행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수행인 수식관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아나파나사티 숫타(안반수의경)』를 틱낫한 스님이 쉽고도 현대적으로 해설하였다.

틱낫한 지음, 허우성 옮김/국판변형/192쪽/값 14,000원

교실에서 붓다의 가르침 실현하기
불교로 가르치다

붓다의 대화법과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가르침과 배움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교육 실천서로, 일방 주입식 교육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다.

시드 브라운, 신희정 옮김/신국판/320쪽/값 22,000원

불교와 서양 심리학의 만남
새로운 불교심리학

12개국 38명의 저자가 서양 심리학의 연구 방법론과 불교의 실천적 지혜를 융합하여 새로운 통합 심리학 모델과 이론을 소개하는 기념비적인 책이다.

모리츠 키 외 편집, 윤희조·박재은 옮김/신국판/872쪽/값 5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은둔』
한 권 없는 선방(禪房)은 없다"

선승들이 먼저 알아본 수행자들의 기록
『은둔』, 20년 만의 귀환!



은 隱遁 둔

고통을 자유로 바꾼
41명의
숨은 수행자들

24년간 〈한겨레〉 종교전문기자로 활동한 조현 작가가
전국의 산사와 암자, 토굴을 찾아 기록한 41명의 숨은 수행자들

수행자들의 삶 깊숙이 들어가 직접 만나고 기록한 조현 작가의 대표작
『은둔』이 20년 만에 개정판으로 돌아왔다.
새롭게 발굴한 수행자 11명을 더한 41명의 삶을 통해,
고통마저 수행의 힘으로 바꾸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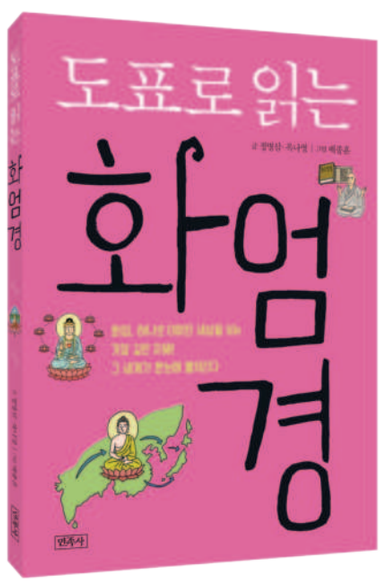
조현 지음 | 488쪽
25,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불광미디어

80권 『화엄경』, 한 권으로 읽는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인 화엄의 세계
복잡한 사상과 선재동자의 여정을 도표와 그림으로 읽는다

카카오톡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방대한 『화엄경』의 전체 구성
복잡한 내용을 도표로 한눈에!

화엄이 말하는 핵심 사상
어려운 교리를 그림과 해설로 쉽게!

보살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
수행의 단계를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선재동자와 53선지식
「입법계품」의 장대한 구도 여행까지!

글 정병삼·옥나영 | 그림 배종훈 | 192쪽 | 18,500원



민족사의 도표로 읽는 시리즈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있는 정보 제시’라 말할 수 있을까

언어로 읽는 불교의 풍경

⑬ 국어사전은 불교를 어떻게 말하나(2)
‘절’ 아래 쌓인 말들



온라인 사전 〈우리말샘〉 국어사전에 등재된 절 관련 속담들 가운데, 절을 수행과 자비, 지혜와 깨달음의 공간으로 그린 말은 하나도 없다. 대신 헛수고와 엉뚱한 요구, 욕심과 탐욕, 주견 없는 행동과 복종, 적막과 쇠락, 심지어 파괴의 장면이 반복될 뿐이다. 개별 속담이 무엇을 풍자했는가와 별개로, 이 속담들이 한데 모이는 순간 절은 그 모든 부정적 사건이 벌어지는 어두운 배경으로 변모한다. 이미지 출처=챗GPT 생성 이미지

온라인 우리말샘 ‘절’ 관련 속담 13개 수록
수행·자비, 지혜·깨달음 공간 묘사 없이
헛수고·탐욕·맹종·쇠락·파괴 장면 반복
인간의 허물·곤란 설명 위해 동원된 배경
‘사찰’·‘사원’서도 종교 공간 모습 안 보여

뜻풀이를 지나 화면 아래로

지난 글에서 〈우리말샘〉 국어사전이 ‘절’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봤다. 절은 ‘집’으로 풀이돼 있고, 예문 속에서는 특정한 날에 방문하고, 불안할 때만 기대며, 새벽부터 밥을 먹는 공간으로 그려졌다. 틀린 말은 없지만 절을 바르게 보여주지도 못한다. 이 뜻풀이와 예문 속에는 수행과 배움, 재가 신도들이 함께 만드는 공동체의 모습은 없다.

화면을 조금 더 내려보면 또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 온라인 사전은 뜻풀이와 예문을 보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표제어와 관련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예를 들어 동의어나 반의어, 옛말, 사진, 속담과 관용 표현 등 관련 정보를 한 화면에 모아서 보여준다.

‘절’의 표제어 아래로 내려가면 관련 속담들이 연이어 나타난다. 모두 13개다. 이용자가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한 화면에 모여 자동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노출되는 속담들은 ‘절’에 대한 인상을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정보가 된다. 그런데 이 속담들이 그려내는 풍경이 심상치 않다.

속담이 보여주는 ‘절’

속담은 오랜 세월 사람들의 경험과 통념이 굳어진 역사적 언어 자료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서 지울 수는 없다. ‘절’ 관련 속담 역시 대부분 절이나 불교 자체를 비난하기보다 사람의 어리석음과 욕심, 처세를 빗대어 말한다. 문제는 개별 속담의 존재가 아니라 그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모여 제시되는가에 있다.

속담 하나를 따로 읽을 때와 열세 개를 연이어 읽을 때의 효과는 전혀 다르다. 이 속담들 가운데 절을 수행과 자비, 지혜와 깨달음의 공간으로 그리는 말은 하나도 없다. 대신 헛수고와 엉뚱한 요구, 욕심과 탐욕, 주견 없는 행동과 복종, 적막과 쇠락, 심지어 파괴의 장면이 반복된다. 개별 속담이 무엇을 풍자했는가와 별개로, 한자리에 모이는 순간 절은 그 부정적인 사건들이 벌어지는 공통의 어두운 배경이 된다.

시주는 헛수고로, 출가는 변덕으로

첫 장면은 “절 모르고 시주하기”다. 힘만 들이고 아무런 공도 나타나지 않는 일을 비유한 속담이다. 불교의 중요한 실천인 시주가 여기서는 보람 없는 수고를 나타내는 말이 된다. 그 아래에는 “절에 가서 젓국 달라 한다”가 놓인다. 젓국이 있을 수 없는 절에서 그것을 찾듯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것을 요구한다는 뜻이다. 두 속담이 비판하는 것은 절이 아니라 상황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도 화면에는 시주가 헛수고가 되고, 있을 리 없는 것을 찾는 장소가 된 ‘절’이 남는다.

이어 “절에 가면 중노릇하고 싶다”, “절에 가면 중 되고 싶고 마을에 가면 속인 되고 싶다”, “절에 가면 중 이야기 촌에 가면 속인 이야기”가 연달아 나온다. 남이 하는 일을 덮어놓고 따르거나 장소에 따라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사람을 풍자한 말이다. 속담이 겨누는 대상은 절도 승려도 아닌, 주견 없이 흔들리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세 속담이 모이면 출가와 중노릇은 오랜 숙고와 결심의 결과가 아니라 남을 보고 문득 기분 따라 하고 싶어지는 일이 된다. 즉 수행자의 삶이 변덕과 모방을 설명하는 재료로 바뀌는 것이다.

적응에서 복종으로, 수행에서 잇속으로

다음에는 “절에 가면 중이 되라”와 “절에 가선 중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가 이어진다. 환경에 맞추어 살고, 어느 곳에 가든 그곳의 방식을 따르라는 뜻이니 세상살이의 적응과 예절에 관한 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절에 간 색시”는 분위기가 다르다. 자기 뜻과 관계없이 남이 시키는 대로 따라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적응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어느새 복종과 타율의 장면으로 옮아간다. 그 속에서 절은 개인의 뜻을 펼치는 곳이라기보다 정해진 규칙과 타인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맞추어야 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절에 간 색시’는 한 번 더 등장한다. “절에 간 색시 재에는 뜻이 없고 재밥에만 눈이 간다.” 마땅히 해야 할 일보다 잇속을 채우는 데만 관심을 둔다는 뜻이다. 비판받는 것은 의례보다 잿밥을 탐하는 사람이지만, 화면에는 수행이나 공덕보다 먹을 것과 잇속에 마음을 빼앗긴 장면이 보태진다.

“절에는 신중단이 제일이라”는 복이나 벌을 줄 수 있는 이가 가장 높다는 뜻이다. 부처님을 모신 불단이 있는 절에서 왜 신중단을 ‘제일’로 꼽았을까. 신중은 불법을 지키는 존재지만, 이 말에서 ‘제일’의 기준은 복과 화를 좌우하는 힘이다. 절에서도 수행의 뜻보다 현실의 복과 화를 앞세우는 태도를 은근히 풍자한 말이다.

마침내 절은 잠기고, 망하고, 불탄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화면은 더 거칠어진다. “절에 쇠 건 것 같다”에서는 인기척이 사라진 절에 자물쇠까지 걸린다. “절이 망하려니까 새우젓 장수가 들어온다”에서는 일이 안되려니 괴상한 일까지 생긴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이번에는 ‘절’이 망해버린다. “절은 타도 빈대 죽는 게 시원하다”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던 것이 사라지는 통쾌함을 말하기 위해 결국 ‘절’이 불타는 장면까지 동원된다.

물론 ‘절’을 불태우거나 없애자는 뜻은 아니다. 그저 적막한 상황, 일이 망해 가는 형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싫은 것을 없애고 싶은 마음을 비유한다. 대부분의 속담에서 직접 풍자되는 것도 절 자체라기보다 사람의 어리석음이나 욕심, 처세와 곤란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 편의 속담에서 배경이었던 장소가 여러 번 되풀이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배우는 계속 바뀌지만 무대는 언제나 ‘절’이다. 헛수고를 할 때도, 엉뚱한 것을 찾을 때도, 마음이 흔들리고 잇속을 탐하며 남이 시키는 대로 할 때도 ‘절’이 불려 나온다. 마지막에는 그 절이 적막해지고, 망하고, 불탄다. 속담이 풀어놓은 열세 가지 장면에는 예불하는 사람도, 법문을 듣는 사람도, 수행하는 사람도 없다. ‘절’은 그저 인간의 허물과 곤란을 설명하기 위해 볼품없이 불려 나온다.

옆 말에 가도 달라지지 않는 풍경

‘절’을 바르게 설명해 주지 않는 문제는 ‘절’ 한 항목에서 끝나지 않는다. 절을 달리 이르는 ‘사찰’이나 ‘사원’으로 옮겨 가도 비슷한 풍경이 되풀이된다. 이 두 표제어 모두 “집”으로 풀이되어 ‘절’과 뜻풀이가 똑같다. ‘사찰’은 ‘절’을 비교적 격식 있게 부를 때, ‘사원’은 역사적·학술적 맥락이나 외국의 사찰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지만, 이런 차이는 사라지고 개인적 거주 공간인 ‘집’이라는 정의만 똑같이 반복된다.

이들의 예문도 마찬가지다. ‘사찰’의 예문에는 휴가 때 방문하는 관광 장면과 심지어 “유명무실한 사찰들을 폐사시켜라”라는 소설 속 문장이 이 단어의 쓰임을 대표하는 예로 소개돼 있다. ‘사원’에는 고려시대 사원이 토지와 노비를 소유했다는 문장과 해외여행 중 사원을 찾아갔다는 문장이 제시된다. 관광과 폐사, 전근대의 경제 운영과 여행 중 방문은 보이지만 수행·예불·법회·교육·사회적 기여라는 종교 공간의 현재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사전 속에 보이는 ‘절’의 풍경이다.

사전이 만든 얼굴

뜻풀이와 예문, 속담을 하나씩 떼어 놓고 보면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다. 문제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보여주지 않았는가에 있다. 사전은 단순히 사실을 쌓아 두는 창고가 아니다. 어떤 뜻으로 설명하고, 어떤 예문을 대표로 세우고, 어떤 관련 정보를 한 화면에 묶어 보여주는지에 따라 한 단어의 얼굴을 만들어낸다. 한쪽의 모습만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그것이 단지 ‘있는 정보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거짓이 없다고 해서, 진실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김지오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2026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규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6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따른 신규 신청을 받습니다.

문의처 02-2011-1980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게재

신청 자격

1. 현재 국민연금보험료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2.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매 안거 결계신고를 필하고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스님

※ 단, 종단 미등록 사찰 · 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 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신청 서류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1) 모바일앱(Play스토어) <내곁에 국민연금> 설치 ▶ 로그인(간편인증) ▶ 우측상단 증명발급 선택 ▶ 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 선택 ▶ 화면 맨 하단 팩스발급 선택 ▶ 팩스번호 입력 후 확인 선택 ▶ 요청하신 팩스번호로 발급 완료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발급
   3)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방문 발급
   4)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전화신청(팩스로 받을 수 있음)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6년 10월 1일(목) ~ 10월 30일(금)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3. 지원절차 : 재적 교구본사 서류 접수 → 승려복지회 서류 이관 → 서류심사 및 지원 결정 → 지원금 입금(하반기분 12월 지원 예정)

보험료 지원중지 대상자

1. 매년 3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미제출된 스님
※ 기지원자 스님은 보험료 납부종료 시까지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지원 혜택이 가능함
2.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된 스님
3. 분한신고 미필 및 결계 미등재 스님
4. 지역 또는 사찰 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 스님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종료된 스님
6. 국민연금보험료 미납하신 스님
7. 군 복무 중인 스님
8. 기타
※ 위 항목에 해당하는 스님은 지원이 불가하니 중도에 변동사항 발생 시 꼭 승려복지회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1인당 월 38,950원(정액)이며, 현재 38,95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불기2570(2026)년 9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장 유 정

발보리심과 대자대비의 보살행 펼치다

사찰벽화 명작순례

⑰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관음보살벽화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후불벽 뒷면의 관음보살벽화.



내소사 대웅보전 관음보살벽화의 선재동자 부분.

법당 후불벽 뒷면의 관음벽화는 12점
파랑새, 버들가지 정병, 청죽 공통 소재
내소사 관음벽화 속 의겸 스님 화파 화풍
용왕의 비(妃) 등장하는 유일한 관음벽화

법당의 대형 관음벽화 16점

한국산사의 사찰벽화 장엄 중에서 대단히 독특한 장면은 후불벽 뒷면에 그린 대형 관음보살벽화일 것이다. 법당의 후불벽 뒤 좁고 어두운 곳에 마치 자비광명을 놓듯이 그린 대형의 관음보살벽화는 극적인 전개다. 법당의 후불벽 뒷면에 그린 조선시대 대형 관음보살벽화는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백의관음보살벽화를 비롯해 총 12점 현존한다. 법당의 측면 벽에 조성한 보성 대원사 극락전, 김천 직지사 대웅전, 대구 용연사 극락전의 사례와 통도사 영산전 외벽의 수월관음벽화까지 포함하면 조선시대에 법당에 조성한 대형 관음보살벽화는 총 16점에 이른다. 분포 현황은 〈표〉와 같다.

16점 대형 관음보살벽화들은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조형 원리에서 통일적인 형식을 보여준다. 조선시대 관음벽화에 나타나는 특별한 변화는 관음보살의 시선 방향에 있다. 선재동자를 맞이하는 측면관에서 정면을 응시하는 정면관으로 바뀌었다. 특히 법당 후불벽 뒷면에 조성한 관음보살벽화에서 그 변화가 뚜렷하다. 좁은 공간에서 정면으로 마주하는 대형의 관음보살벽화는 예경자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다. 어쩌면 관음보살의 가피력을 극대화하는 의도된 장치일지도 모른다.

벽화장엄의 조형 원리 통일성은 구성과 소재 측면에서 특별히 강하다. 관음보살벽화의 공간 무대는 바닷가 보타낙가산이다. 벽화에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암산이 그 공간을 암시한다. 〈화엄경〉에서 깨달음에 이르고자 발보리심을 낸 선재동자는 문수보살의 권유로 53선지식을 찾아 남순행에 나선다. 28번째로 찾아간 선지식이 관음보살이었다. 벽화에선 하얀 옷차림의 관음보살께서 바닷가 바위 위에 유희좌(遊戱坐)로 앉아 선재동자를 맞이한다. 유희좌는 가부좌에서 한쪽 다리를 편안하게 내리고 앉은 자세다.

80권 〈대방광불화엄경〉 '제39 입법계품'에 그 대목이 나온다. "문득 바라보니 서쪽 골짜기에 시냇물이 굽이져서 흐르고 수목은 우거져 있으며 부드러운 향풀이 쓸려서 땅에 깔렸는데 관자재보살이 금강석 위에 가부좌로 계셨다." 관음벽화의 장면은 숭고한 아름다움이 흐르는 이 같은 극적인 만남을 회화로 구현한 것이다. 더불어 대부분의 관음보살벽화에는 버드나무 가지가 꽂힌 정병과 파랑새, 청죽을 묘사한다. 때때로 보름달을 그려 공간 배경을 더욱 자비롭고 부드러우며 환상적인 무대로 승화시킨다. 보름달은 관음보살의 자비광명을 극대화하는 장치다. 벽화 속 파랑새는 관음보살의 분신으로서 관음보살 출현을 암시한다.

강진 무위사 벽화와 관련한 설화에선 벽화를 그린 신묘한 화승으로 각색하기도 했다. 감로수가 든 정병과 푸른 버들가지, 청죽엔 관음보살의 변함없는 자비와 중생구제의 뜻이 담겼다. 여기까진 대부분의 관음보살벽화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중심 소재이고 조형 원리다. 관음벽화의 차별성, 혹은 저마다의 고유성은 등장인물의 구성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변형 유희좌, 태극, 수묵화풍 산수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의 관음보살벽화는 조선시대에 사찰 법당에 그린 관음보살벽화의 최고 정점에 위치한다. 보편적이면서 고유하고 독특하다. 크기에서도 최대다. 세로 490㎝, 가로 495㎝에 이른다. 내소사 관음보살벽화는 1749년 대웅보전 삼존불상을 조성한 무렵에 조성한 것으로 본다. 붓의 신선 '호선'이라 불린 의겸 스님의 화풍을 계승한 화파에서 그린 작품으로 추정한다. 내소사 관음벽화 곳곳에서 의겸 스님 화맥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화풍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표〉 전국 법당에 현존하는 대형 관음보살벽화 현황(16점)

사찰	전각	관음보살 자세	등장인물과 자연 소재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입상(측면관)	백의관음, 선재+파랑새, 손에 쥔 정병+버들가지
여수 흥국사	대웅전	유희좌(측면관)	백의관음, 선재, 정병+버들가지+파랑새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의자좌(측면관)	백의관음, 2명의 선재, 정병+버들, 파랑새, 청죽
순천 동화사	대웅전	입상(정면관)	관음, 손에 쥔 정병+버들가지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유희좌(정면관)	백의관음, 선재, 정병+버들가지+파랑새+청죽, 용녀
완주 위봉사	보광명전	입상(정면관)	백의관음, 손에 쥔 정병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유희좌(정면관)	백의관음, 정병+버들가지+파랑새, 금강역사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유희좌(정면관)	백의관음, 선재+파랑새+청죽, 정병+버들가지
양산 신흥사	대광전	유희좌와 입상	세 분의 관음, 정병+버들가지+파랑새+청죽
창녕 관룡사	대웅전	유희좌(정면관)	관음, 선재, 정병+버들가지, 청죽
김천 직지사	대웅전	유희좌(정면관)	관음, 선재+정병+버들+파랑새, 공양 용왕+청죽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가부좌(정면관)	백의관음, 선재, 정병+버들가지+파랑새+청죽
보성 대원사	극락전	유희좌(측면관)	백의관음, 선재+파랑새+청죽, 정병+버들가지
김천 직지사	대웅전	입상(측면관)	백의관음, 선재+정병, 관음과 선재를 태운 용
대구 용연사	극락전	유희좌(측면관)	백의관음, 선재, 정병+버들, 파랑새, 청죽, 공양 용왕
양산 통도사	영산전	유희좌(측면관)	백의관음, 공양 선재, 정병, 파랑새, 공양 용왕

우선 관음보살의 앉은 자세가 독특하다. 유희좌이긴 한데 두 발바닥을 마주 보게 모은 변형된 유희좌다. 그 같은 자세는 의겸 스님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여수 흥국사 수월관음도(1723년), 고성 운흥사 관음보살도(1730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수월관음도(1730년) 등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다.

영락 등 보살의 장신구에 표현한 태극 문양 장엄도 눈길을 끈다. 내소사 관음벽화를 찬찬히 살펴보면 머리에 쓴 보관의 화판 장식과 가슴팍의 영락 장식에 태극 문양을 볼 수 있다. 보살의 공덕장엄에 태극 문양을 사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태극 문양은 의겸 스님 화파의 불화나 벽화에서 특유의 심벌마크처럼 종종 나타난다. 의겸 스님 주도로 제작한 여수 흥국사 수월관음도를 비롯해서 의겸 화파가 그린 개암사 영산회상괘불화(1749년) 등의 보살 장신구에서도 태극 문양을 장엄하고 있어 벽화 역시 동일한 화승 집단에 의한 제작을 추정하게 한다.

벽화 속 공간 배경으로 그린 수묵화풍의 자연산수 표현 역시 인상적이다. 관음보살 뒤로 주상절리처럼 우뚝 솟은 기암괴석은 겸재 정선의 '총석정도' 한 장면 같고, 선재동자가 서 있는 곳의 첩첩 암벽과 크게 휜 대나무 표현 등은 수묵화의 붓질 그 자체다. 불화 속에 수묵화 기법의 자연산수를 그려 넣는 특별함 역시 의겸 스님의 불화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 중의 하나다. 의겸 스님이 1723년에 그린 여수 흥국사 응진전의 16나한도가 대표적이다.

용왕의 비, 구법자로 등장

내소사 관음보살벽화에서 무엇보다 인상적인 대목은 인물 구성에서 용녀(龍女)가 등장하는 희유의 장면이다. 정확히 말하면 용녀가 아니라 용왕의 비(妃)다. 관음벽화나 수월관음도에서 선재동자와 함께 용왕이 등장하는 사례는 몇 점 있다. 직지사 대웅전 후불벽 뒷면의 관음보살벽화, 대구 용연사 극락전 관음벽화, 통도사 영산전 외벽의 관음보살벽화 등에서 용왕이 등장하는데 모두 보주를 공양하는 장면으로 나온다.

그런데 관음벽화에서 용녀가 등장하는 사례는 내소사 관음벽화가 유일하다. 그것도 공양물을 올리는 장면이 아니라 선재동자와 마찬가지로 예복을 정중히 갖춰 입고 두 손을 합장하여 법을 청하는 구법자로 표현했다. 의겸 스님이 수화승으로 주도해 제작한 운흥사 관음보살도 속에도 용왕과 비가 동시에 나온다. 용왕의 비는 보주를 공양물로 바치고, 용왕은 홀을 양손에 들고 예를 올리는 장면으로 묘사했다. 두 곳에 공통적으로 용왕의 비가 등장하지만 역할은 사뭇 다르다. 한 곳에는 공양주로, 다른 곳은 구법자로 나와 대비된다. 금은보화 물질을 천만억 겁 동안 공양하는 공덕보다 신심으로 법을 구하는 공덕이 비교 불가로 더 크다고 〈법화경〉, 〈금강경〉 등에서 누차 강조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내소사 관음보살벽화를 살펴보면 화면이 비대칭적이다. 통상 화면의 중앙에 표현하는 관음보살을 향좌측에 치우쳐 모셨다. 그래서 관음보살을 중심으로 선재동자가 서 있는 향우측 화면은 드넓은 데 반해 용왕의 비가 서 있는 향좌측의 화면은 비좁을 정도다. 선재동자는 긴 여정을 통해 관음보살의 주처 보타낙가산에 왔다. 선재동자의 긴 여정을 말해주듯 암산은 첩첩이고, 길고도 좁은 벼랑길이 이어져 있다. 길이 끊긴 백척간두에서 관음께 길을 묻고 있다. 쉼 없이 가고 또 가야 한다. 벽화 속 선재동자의 길 속에 대자대비의 보살행이 이미 제시돼 있다.

그에 반해 향좌측 용왕의 비가 서 있는 공간은 상황이 다르다. 길 자체가 없다. 즉 수행자가 아니다. 아직 왕비의 옷차림 그대로다. 그런데 예전의 공양물을 바치던 미물의 중생이 아니다. 보리심을 낸 것이다. 바로 발보리심! 그래서 길 없는 곳에서 우뚝 솟은 바위처럼 용왕의 비가 홀연히 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용왕도 아니고 용녀인가? 미물이면서 여성이기 때문이다. 성불이 어렵다고 여긴 태생적 조건으로 설정한 것이다. 용녀의 발보리심일지언정 초발심시변정각이다.

내소사 관음벽화 속엔 발보리심과 성불에 이르는 끝없는 대자대비의 보살행 가르침이 녹아 있다. 벽화 속에 〈화엄경〉과 〈법화경〉 등 대승경전의 가르침이 펼쳐져 있다. 깊이를 갖춘 사찰벽화 명작이다.



노재학 작가



고양이의 감언이설에 속지 않은 수탉

철학자와 함께 읽는 불교 동화

⑨ 달콤한 말 : '지혜로운 수탉'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달콤한 말로 수탉 유혹한 암고양이
속임수 뒤의 숨은 의도 꿰뚫은 수탉
본질 간파 지혜 강조 부처님 본생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판단 혜안 필요
신뢰는 입 아닌 삶의 모습으로 증명

언어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상대가 칭찬의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욕을 섞어 말하면 기분이 나빠진다. 같은 상황이라 해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 2차세계대전 당시 자행된 수백만 명의 유대인 학살을 나치는 단순히 '인종청소'라는 한 단어로 표현했다.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깨끗이 청소했다는 느낌을 줘 사태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이러한 술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언어에 대해 지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완곡한 언어와 정서적 언어가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잠깐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완곡한 언어는 직설적이지 않게 완화해서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누군가의 부고를 받으면, 죽었다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유명을 달리했다거나 하늘나라로 갔다고 완곡하게 말한다.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때로는 직업의 중요성과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청소부를 환경미화원, 보험회사 영업 사원을 재정 설계사로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모두 완곡한 언어가 지니는 긍정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악용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대량 학살을 인종청소라고 표현한 방식이 대표적이다. 요즘에는 '을사늑약'이라 부르지만, 필자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배웠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합병한 것이 아니라 마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의로 조약을 맺은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완곡한 언어가 지니는 부정적 측면도 함께 이해해야 한다.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정서적 언어도 있다. 예컨대 '수구꼴통' '좌빨' '빨갱이'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 사람들은 감정뿐만 아니라 행동 또한 과격해진다. 이러한 언어적 특성을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이들도 있다. 일부 유튜버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대중의 정서를 건드려서 '슈퍼챗'을 유인하는 방식은 이미 도를 넘고 있다는 진단이다. 언어는 이처럼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무서운 도구다.

불교에서도 거짓말[妄語]이나 아부하는 말[綺語] 또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다르게 말해서 서로 이간시키는 말[兩舌] 등을 경계하곤 한다. 실제로 이런 말에 속아 경제적으로 손실을 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기도 한다. 어쩌면 우리는 상대가 하는 말의 의도를 정확히 판단해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를 사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준비한 불교 동화는 '지혜로운 수탉'이다. 고양이가 수탉을 잡아먹기 위해 온갖 달콤한 말로 유혹했지만, 넘어가지 않았다는 내용의 동화다. 원래의 제목은 '쿠쿠타 자타카(Kukkuṭa Jātaka)'로 수탉의 전생 이야기가 된다.

아주 오랜 옛날 바라나시에는 수백의 무리를 거느리는 지혜로운 수탉이 살고 있었다. 당시 멀지 않은 곳에 한 마리 암고양이가 있었는데, 여러 수탉을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 잡아먹곤 했었다. 오직 지혜로운 수탉만은 예외였다.

어느 날 고양이가 지혜로운 수탉을 잡으려고 했지만, 높은 나뭇가지 위로 올라가 있었기에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어떻게 유인할지 고민하던 고양이는 나무 아래에서 부드럽고 달콤한 말로 수탉을 유혹하기 시작했다.

"아름답고 화려한 깃털을 가진 수탉이여, 어서 내려오세요. 저는 당신을 해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자태와 울음소리에 반해 그대의 아내가 되고자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수탉은 고양이의 달콤한 말 뒤에 숨어 있는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이렇게 말했다.

"너는 네발 달린 짐승이고 나는 발이 두 개인 새다. 이처럼 새와 짐승의 본성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부부가 될 수 있겠는가. 다른 곳에 가서 남편을 구하라. 너의 달콤한 말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단지 내 고기를 얻기 위한 덫일 뿐이다."

수탉의 정확한 지적에 고양이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 지혜로운 수탉이 바로 전생의 부처님이었다.

말이 아니라 평소 행위를 보라

고양이와 수탉 이야기는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고 애욕에 사로잡혀 출가 생활을 포기하려는 제자를 위해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전생담이다. 수행자가 감각적 욕망과 달콤한 유혹에 빠지면 파멸에 이를 수 있으니,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동화다. 이뿐만 아니라 화려한 외모와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경전에서는 이 제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애욕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전한다.

이 동화를 읽으면서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이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하는 '리딩방 사건' 등이 떠올랐다. 로맨스 스캠이란 SNS, 메신저 등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호감을 쌓은 후 돈을 요구하거나 가상 자산 등에 투자를 권하는 연애 빙자 사기 범죄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동화 속 고양이처럼 매우 친절하고 따뜻하게 애정과 관심을 보이면서 정서적 친밀감을 쌓는다고 한다.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통화 등을 통해 수법이 진화하고 있으므로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동화의 주인공인 수탉처럼 상대의 의도를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동화 속 고양이와 같은 달콤한 언어는 앞서 말한 사기 범죄뿐만 아니라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정치인들의 입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표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 현실성 없는 공약을 내세우거나 온갖 감언이설로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기도 한다.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가 돌변한다. 현실적이고 신뢰가 가는 공약(公約)과 달콤하지만 빈 껍데기뿐인 공약(空約)을 구별할 줄 아는 유권자의 성숙한 태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요즘이다.

그래서인지 옛 성현들은 한결같이 세련되게 옷을 입고 말을 잘하는 사람을 경계하라고 조언한다. 공자 역시 〈논어(論語)〉에서 이렇게 말한다.

"말을 교묘하게 잘하고 얼굴빛을 꾸미는 사람 치고 어진 이가 드물다(巧言令色 鮮矣仁)."

여기에서 공자는 교언영색(巧言令色), 즉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내면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참으로 공감되는 구절이지만, 말과 표정, 스타일을 중시하는 요즘에는 잘 들으려 하지 않는 이야기다. 상대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외적으로 가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추세다.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법구경〉 '화향품(華香品)'에 나온 부처님 말씀이다.

"빛깔은 고우나 향기가 없는 꽃이 있듯, 아무리 아름답고 달콤한 말을 하더라도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한마디로 말만 앞세우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으려면 역시 지혜가 갖춰져야 한다. 언젠가 한 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평소에 자주 나오면서 싫은 소리 하는 사람보다 어쩌다 한 번 얼굴 보이면서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훨씬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애정을 가지고 자주 참여하면서 비판하는 사람은 단체에 도움이 되지만, 어쩌다 한 번 나와서 돈도 잘 쓰고 말도 그럴싸하게 잘하는 사람은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때론 그 사람 말에 속아 피해를 당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법구경〉 말씀처럼 빛깔만 곱고 향기는 전혀 없는 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달콤한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동화 속 수탉은 다른 무리와 달리 고양이의 말이 아니라 평소 행위, 그러니까 닭을 유인해서 잡아먹는 모습에 주목했다. 그리고 수탉과 고양이의 본성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자신에게 접근한 목적이 사랑이 아니라 고기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로맨스 스캠의 유혹에 속지 않은 수탉의 지혜가 돋보이는 동화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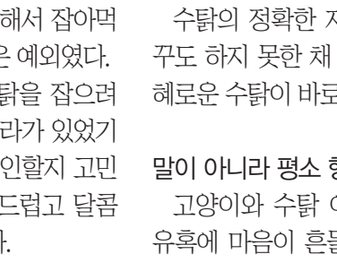
오래전 작고하신 아버님이 생전에 자주 하신 말씀이 있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왜 그렇게 하는지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다. 비교적 아버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이었지만, 이것만은 따르고 싶지 않았다. 사람을 믿지 못하면서 사는 일이 너무 슬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아버님의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달콤한 말에 속지 않는 지혜가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간과하지 말기로 하자. 신뢰는 입이 아니라 평소 살아가는 모습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일야 전 전북불교대학 학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 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대행 스님

목마를 때 그냥 마시는 것이 정법이요 중용이다

여러분과 오래간만에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오고서도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르고 애타는 고통과 쓰라린 눈물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즐거움도 있지만 그것도 바람결같이 돌아가서 잠시 잠깐이고, 고(苦)로 인해 아프고 흔들리는 마음을 가라앉혀 가며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더불어 같이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되었으니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만이 인생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걸어가야만이 올바른 건지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 비유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조 홍인 선사가 금강경 강의를 하시니까 육조 스님께서 그 대답으로 이렇게 말했죠. "불성이 스스로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내 마음이 내 불성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불성이 스스로 끄달리지 않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일체 모든 생활이 걸리지 않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불성이 스스로 일체 만법을 갖추어 가지고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요건 내가 알아듣기 쉬우라고 조금 더 보태서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불성이 스스로 만법을 들이고 내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이랬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즉 이 세상 이치를 종합해서 말하자면 삼천대천세계 우주 천하가 다 근본이 있습니다. 그 근본이 어디에 직결돼 있느냐. 마음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다 이겁니다. "천지의 근본은 마음의 근본이니라. 태양의 근본도 마음의 근본이요 시공이 없이 돌아가는 이치의 진리는 인간 마음의 근본으로 돌아가느니라." 이랬습니다.

이 마음공부를 하는 데는 대승, 소승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하면 잘살고 못사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듯이 '사람' 하면 그냥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좀 전에 육조 스님 말씀에 나왔듯이 우리 참인간의 마음,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는 그 마음, 청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어떠한 대(對)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음을 청정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게 뭔지 일러 드리겠습니다.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니라." 한 것은 무슨 뜻인가. 고정됨이 없이 찰나 생활을 하는 것을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아내가 "여보, 인제 오세요?" 하면 남편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아이가 "아빠!" 그러고 들어오니까 남편 됐던 건 없어지고 금방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얘, 아비야! 인제 오니? 나 좀 보자." 하거든요. 그래서 얼른 또 어머니한테로 가니까 고만 아들이 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화하는 세상입니다. 화해서 찰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정되게 보는 거, 고정되게 듣는 거, 고정되게 가고 오는 거, 고정되게 먹는 거, 고정되게 만나는 게 있습니까? 이것이 고정되게 머물러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진리고 도요, 길이고 참선이고 참입니다. 이 공부 하는 데는 대승이다 소승이다 이런 게 없습니다. 왜? 간편하게 얘기합시다. 상을 차려 놓는 데에 접시도 있고 종지도 있고 사발도 있고 대접도 있고 큰 접시도 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시겠으니까 상에다가 온통 다 차려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승, 소승이 있을까요? 여러분! "종지는 안 쓸 거다. 대접만 쓸 거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지만 써야겠다. 이게 옳다." 이런다면 종지만 가지고 어떻게 상을 차리며 "대접만 쓸 거다. 큰 그릇만 쓸 것이다." 한다면 큰 그릇만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며 "접시만 쓸 것이다." 한다면 접시만 가지고 어떻게 쓸 것입니까? 이걸로 비유합시다.

일체 만법을 일심으로 들이고 낼 때에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느니라' 하는 뜻입니다. 이거는 걸리지 않게 몽땅 버려서 몽땅 갖추어 가지고 있게 만드는 실천궁행하는 법입니다. 실천이 아니라면 부처님이 정법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론으로만 경을, 팔만대장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위로 꿰고 옆으로 꿴다 하더라도 목마를 때 시원한 물 한 그릇 마시는 것만 못합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이거는 이차적인 문제죠. 진짜 배고프고 정말 목마르고 갈증이 날 때는 냉장고 문을 턱 열곤 한 그릇 쭉 마시는 겁니다. 그런 뒤에야 죽고 사는 것이 생각나는 것이니 그건 이차적이죠.

목마를 때 그냥 마시는 것이 그대로 찰나의 행이요, 정법이요, 중용입니다. 우리 인간들 사는 것이 바로 불법이요, 참선이며 그대로 행선입니다. 아주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데 거기 무슨 이론이 들어갑니까? 거기 무슨 이의가 붙습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는데 거기 먼지 앉을 게 있습니까?

이것을 잘 판단해서 여러분이 자기 몸과 가정과 사회, 국가는 물론 세계, 우주까지도 한 손에 넣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원통력을 길러서 원심력으로써 행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즉 말하자면 '아내다' 하면 벌써 가설이 된 거고 '자식이다' 하면 가설이 된 겁니다. '남편이다' 하는 것도 가설이 된 겁니다. 전선의 가설이 됐으니까 전기 스위치를 올리면 거기까지 다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것이 바로 만법의 근원입니다. 그렇게 간편한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따지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시비가 왜 붙습니까?

예전에 뉴욕에서 온 병자가 있었는데 그것도 부축을 받고 왔습니다. 10년이나 그렇게 앓고 있어서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아프면서도 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꼭지가 안 떨어져서 서울까지 나왔답니다. 서울에 와서 나더러 "병이 이렇게 한 10년이 가도 안 낫습니다." 하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병을 나한테 내놔 보세요. 그러면 병을 고쳐 주리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길로 가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 사람 생각이 거기서 탁 터졌단 말입니다. 병을 내놓으면 고쳐 주겠다고 했더니 말입니다.

한 생각에 자기를 구덩이에다 넣을 수도 있고 한 생각에 자기를 구덩이에서 건져 낼 수도 있는 그 마음의 한 도리 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꿈을 꾸고도 '이것 참 잘못 꿨으니까 오늘 조심해야지. 이것 참 나쁜 꿈인데….' 하고 걱정 근심을 하면 꼭 나쁘게 돌아옵니다. 그거는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 아버지가 됐다가 또 금방 남편이 됐다가 자식이 됐다가 이러듯이 우리 살림살이는 시공이 없이 돌아갑니다.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안 되는 것도 한 찰나요, 되는 것도 한 찰나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이것은 주인공이 나를 깨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내 주인공이 있으니까 그런 거 뭐, 금방 좋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하고 믿으란 말입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 자신, 자성을 믿지 않는다면 누구를 믿습니까? 허공을 믿겠습니까, 이름을 믿겠습니까, 형상을 믿겠습니까? 이

☞ 28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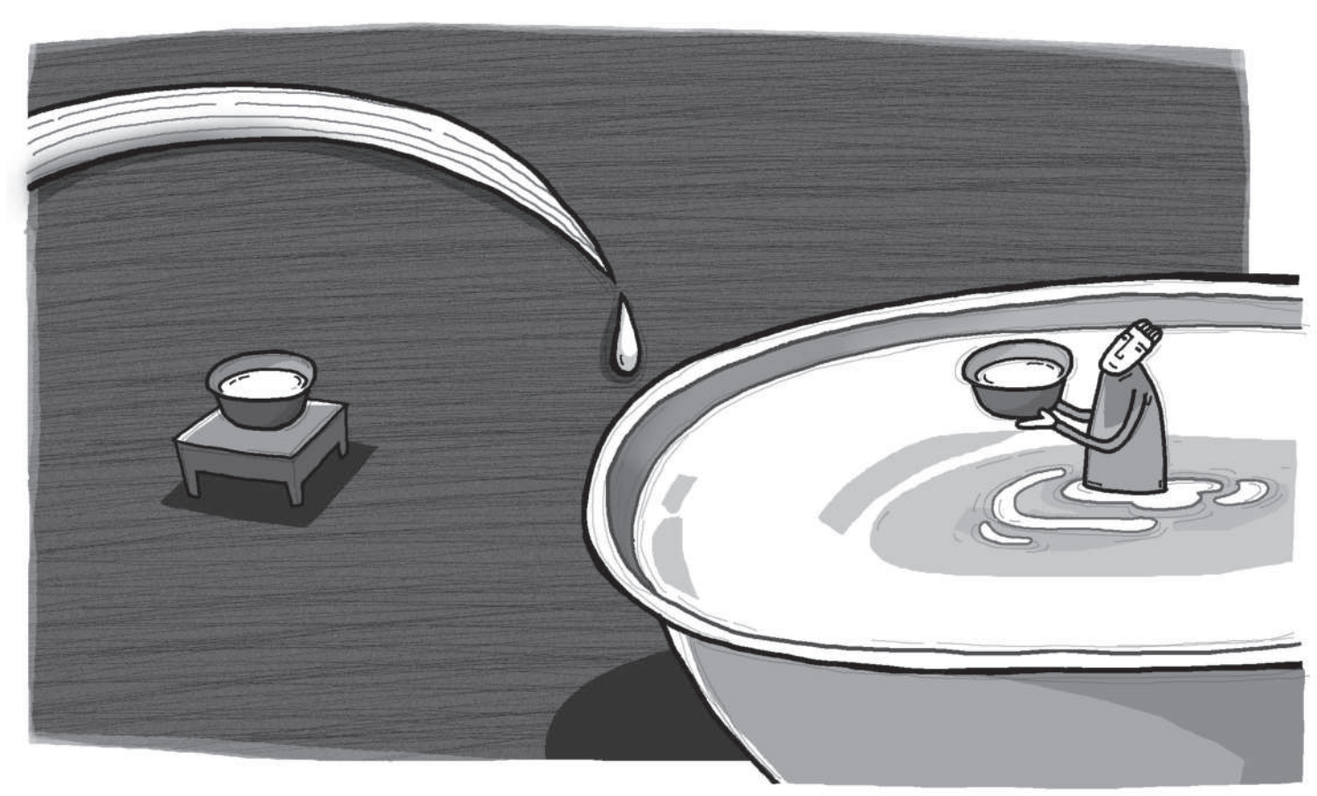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잘되고 못되는 건 걱정 말고 용광로에 놓는 작업만 하라

☞ 27면에서 계속

세상에 누구를 믿을 겁니까?

그리고 모든 착을 주인공에다 놓으세요. 착을 떼시라 그러는 건 말입니다, 여기 제주의 여러분은 부적도 써다 붙이고 누구를 찾아가서 잘된다 못된다 하는 소리도 많이 들으셨겠고 그렇게 기복으로 많이 다니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찔러 녹여 버려라 하는 것은, 찰나의 생활이니까 잘못된다 잘된다 이것을 떠나서 주인공에다 모든 걸 놓으라는 말입니다.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가정도 있고 우주도 있고 부처도 있고 그렇지 내가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믿지 않아요? 나부터 알아야죠! 각자 여러분이 모두 나부터 알아야 남에게 주기도 하고 참, 보살행으로써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깁니다. 원심력이 생겨요. 이게 아주 좋은 공부입니다. 두루 모가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심력입니다. 그래서 첫 번에 나의 물질적으로 살던 습을, 수억겁 광년을 거쳐 나오면서 인간이 되기까지 진화되면서 살아온 그 습을 녹여야 합니다. 인간이 됐으니까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습을 떼려면 '아! 내 주인공은 용광로와 같다. 일체 우주와 천지가, 태양이, 월세계가, 혹성들, 별성들 일체 모두가 다 인간의 마음에 직결이 돼 있으니 직결이 돼 있는 내 주인공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정만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모든 것이 직결돼 있으니까 내가 마음먹는 대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나부터 알게 되면 차차 차차 실험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 나를 진심으로 믿게 되고 '아하, 나뿐이 아니로구나. 역대 조사들도 일체제불도 다 나한테 직결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깨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림자와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색경을 보시죠. 그 그림자가 나일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어느 어머니가 자식을 잃었는데 묻어 줄 사람도 없어서 갖다가 놓고선 엉엉 울었습니다. 묻으려고 해도 땅이 얼어서 손으로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포대기로다 둘둘 말아 놓은 위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걸쳐 놓고, 솔가지로 덮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울고 있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죽은 아이가 춥다고 자기 두루마기까지 벗어서 더 덮어 주면서 어머니는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스님이 가시다가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행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행이든 육신의 행이든 똑같단 얘기죠. 행이 없으면 그건 부처님 법이 아니라 죽은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데 "왜 부인께서는 이렇게 우십니까?" 하니까 "9대 독자인데 이 어린애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먹을 게 없어서 일하러 나가고요." 하고 울거든요.

이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살님! 이 촛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고 계십시오. 이 촛불이 꺼지면 나는 오지 못합니다." 하고서는 턱 거기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그냥 삼매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님은 어딜 갔느냐 하면, 환상천을 들러서 무명천을 들러서 불사천을 갔는데 거기에 그 애 이름이 안 나와 있는 겁니다. 불사천을 거쳐서 생사천을 가야 천도가 돼서 다시 이리로 오든지 어떻게 뭘로 되든지 하는데 그 불사천에 이름도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름이 없으니까 이 스님이 관리인을 찾았습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사천왕을 찾았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기는 들어와 있지 않으니 다시 무명천에 가 보십시오.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은 무명천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곳 관리인한테 그 어린애 영혼을 받아 가지곤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초가 거의 다 타 버리고 달랑달랑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찾아온 혼백을 넣으니까 그 어린애가 다시 살아났답니다. 참, 공부가 그만큼 되어 있어서 직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유자재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못 하죠.

그래서 아이를 어머니 품에 다시 안겨 준 그 스님이 "허허" 하고 웃으며 하는 말이 이러했습니다. "환상천으로 불사천으로 무명천으로 돌아다녀 보니 모든 것은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겠구나. 살아생전에 불이 뜨겁다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사천에 가서 불이 활활 타는 걸 보면 뜨거워서 거길 지나가지 못하고, 물에 빠지면 죽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의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물을 못 건너가는구나. 많은 마구니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환상인 줄 알지 못해서 의식적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그 환상천을 떠나지 못하고 거길 넘어서지 못하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물질화돼서 물질, 환상으로만 살다 보면 넘어서질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체가 없다고 수차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벽도 없고 지붕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으니 여기에서 다른 혹성에도 빛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살면서 '불이 뜨겁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의식이 남아 있어서 불사천을, 즉 말하자면 화탕지옥이라는 데를 건너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잘못되면 그 펄펄 끓는 물에 사람을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그 펄펄 끓는 물이 있는 데에 빠져 죽을까 봐, 타 죽을까 봐, 데어 죽을까 봐 못 건너가는 거죠.

마음은 체가 없다고 수차에 말했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존하지 않는 그 그림자에 놀라서 거기를 건너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엊그저께도 얘기했듯이 우리 두뇌의 구조를 보면 잠재의식으로서의 판단 기능은 바른쪽에 있고, 현재 현상세계로서의 판단 기능은 왼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둘이 아니게, 즉 말하자면 한데 합쳐서 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기까지는 내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아야만 됩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죠. "대승 소승이 따로 없다. 대승도 놓고 소승도 놓아라. 악도 놓고 선도 놔라. 동서가 둘이 아니요, 남북이 둘이 아니다. 여자 남자가 둘이 아니요, 어른과 애가 둘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어느 선사가 제자들에게 아이를 보고 스승이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저렇게 어린 애를 어떻게 스승이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먼저 늙었기 때문에 그러느니라." 그러시더랍니다. 그 시공이 없는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스님네들은 애쓰셨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먼저 늙었겠습니까? 애는 먼저 늙어서 벌써 다시 애가 돼 왔으니까요. 어른은 지금 애가 되려고 가는 길이구요. 하하하. 어떻습니까? 이것이 두루 둘이 아니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영령들은 수만 개가 있어도 영령일 뿐이지 그렇게 너 나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무역무(無無亦無)" 이렇게도 말을 했죠. 또 마음의 자가발전소라고도 했습니다. 이 자가발전소에는 꺼졌다 켜졌다 하는 법이 없죠. 자가발전소에는 꺼진다 켜진다가 없기 때문에 대승, 소승이 없다 이겁니다.

또 이걸 용광로로 표현을 했는데, 용광로에다 작든지 크든지 다 놓는 작업만 한다면 나가는 거는 자동적으로 재생돼서 나간다는 얘기죠. 자동적으로 돼 나가는 거니까 잘되고 못되는 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은 놓는 작업만 애를 써서 해라 이겁니다. 내 주인공만이 나를 고칠 수가 있고 내 주인공만이 나를 형성시켜서 이끌고 다닐 수 있고, 내 주인공만이 내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고 내 주인공만이 이 세상의 만법을 들이고 낼 수 있다. 들여도 두드러지지도 않고 내도 줄지도 않는다.

모습도 각각 용도에 따라서 내놓으면서 천백억화신으로 나투는데, 마음으로 나투니까 천백억화신으로서 어디 손 안 닿는 데가 없고 어디 안 보는 데가 없고 어디 안 듣는 데가 없다는 얘기죠. 삼십이응신으로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모습을 바꾸어서 여러분한테 응해 주시되 아프다면 약사로 나투어 주시고 가난하다면 관세음보살로 나투어 주시고 산신으로 나투어 주시고 지장으로 나투시고, 수없이 나투시는 그 마음이 한군데서 나가는 거라 이겁니다.

이 모두가 우리 지금 현실에서 부닥치는 얘깁니다. 세균이 바깥에서 들어오고 영계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를 여러분이 이 공부를 못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몸속에서 수십억 마리의 생명들이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생명들의 마음들은, 보이지 않는 데 마음들은 나의 마음과 같이 한마음이요, 몸뚱이는 내 몸뚱이와 속에 든 몸뚱이들이 같이 한 몸이 돼서 움죽거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원통력이 있는 한마음 속에다가, 주인공 속에다가 일체를 놓고 '거기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없다면 몸뚱이로만, 이론적으로만, 망상적으로만 돌아가서 반쪽 50%인 현상세계의 판단만 하고 사는 겁니다. 대뇌의 반쪽으로만 말입니다. 항상 들락거리고 통신은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걸 막아 놓고, 의식적으로 막아 놓고 쓰는 거죠.

그러니 악업 선업이 나오는데, 때로 화가 지독하게 나게 하면 그거는 화탕지옥이죠. 선하게 나왔다 악하게 나왔다 하면서 천차만별로 마음을 쓰게 하는 수십억 생명들의 마음이 악업 선업으로 인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서도 일어나고 바깥에서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중간에서 해결을 하느냐. 모든 것을 주인공에 놓으면 내 지배인의 마음이 그 모든 마음들을 같이 한마음으로 굴리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안에 있으면서 들락거리는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시점에서도 두서없이 나오는 병, 두서없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병, 이 모두를 해결하는 것은 내 주인공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봐도 주인공 죽는 법은 없어. 그런데 여러분은 주인공을,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겁니다.

다음 호에 계속

우리 살림살이는 시공이 없이 돌아갑니다.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안 되는 것도 한 찰나요, 되는 것도 한 찰나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9년 9월 24일 국내지원 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공감으로 소통하는 어르신 상담의 길

⑯ 가슴속 불길 끄고 나를 살피는 쉼

"사소한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해 괴롭습니다"

40년 침묵과 복종이 부른 가슴 통증

상담실을 찾아오신 김상담 어르신(여·65세)은 화려한 헤어스타일에 눈매가 짙고 목소리가 우렁차 겉보기에는 아주 활기차 보였지만, 그 내면은 응어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셋째 딸로 태어나 사랑받고 자랐던 어르신은 결혼 후 3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평온해 보이던 가정생활 이면에는 행복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가정폭력 속에서 자란 남편은 말다툼 도중 어르신이 목소리를 높이자 "너 죽고 나 죽자"며 집안 물건에 라이터 불을 들이대며 위협했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30여 년 동안 남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기본적인 감정 표현조차 한 번도 하지 않는 이른바 '3무(無)'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사업 실패로 월세방으로 쫓겨오듯 이사했을 때도, 어르신은 주 6일 생업에 뛰어들어 남편 대신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마음속 답답하게 맺힌 감정, 울화

어르신을 더욱더 상처받게 한 건 가까운 친인척 간의 문제였습니다. 과거 형편이 좋던 시절, 어르신은 며느리로서 사촌 동생 가족을 10년 동안 집에 데리고 살며 살뜰히 거뒀습니다. 그러다 집안이 어려워져 급전을 빌려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을 때, 사촌은 지극히 일부 지원으로 도와주는 시늉만 하더니 살던 집을 정리하고 떠나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외로 나가 남처럼 지내다 병에 걸려 귀국한 사촌을 보며, 남편은 주 6일 노동을 하고 유일하게 하루 쉬는 어르신에게 매주 식사와 반찬을 해다 바치라고 강요했습니다. 힘이 들어 "횟수를 줄이자"고 사정하자, 남편은 "당장 집에서 나가라"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슴속 깊이 배신감과 서러움이 가슴을 짓눌렀고, 결국 어르신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옥죄어오는 극심한 호흡곤란으로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향해야 했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한의원에서 내려진 진단은 가슴에 분노가 뭉쳐 터진 '화병'이었습니다.

완벽 강박 내려놓고 주도성 실천

어르신은 사소한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괴로워하셨습니다. 다른 가정의 아이돌보미 일을 하면서 돌보는 아이가 약속을 어기거나 학습지 선생님이 훈계조로 말할 때, 마치 자신이 무시당하고 지적당하는 것 같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기질 및 성격검사(TCI) 결과, 어르신은 타인의 시선과 인정에 매우 민감한 '사회적 민감성'을 지닌 반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자존감을 유지하는 '자율성'은 극도로 낮았습니다. 30년

사업 실패 남편 빚 갚고 시댁에 희생
억눌린 억울함에 화병 분노로 터져
관계 성찰 · 주도적 삶에 평온 되찾아

넘게 전업주부로 살며 몸에 밴 "내가 다 챙겨야 한다"는 완벽주의적 강박 탓에, 장성해 분가한 자녀들의 반찬까지 쉬지 않고 도맡아 하며 스스로를 소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타인을 만족시키려 쉼 없이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정작 그에 합당한 위로와 인정을 받지 못하자, 억눌린 억울함이 일상의 사소한 자극에도 분노로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구급차에 실려 갔던 사건은 역설적으로 관계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어르신의 심각한 고통을 눈앞에서 목격한 남편은 더 이상 사촌의 수발을 강요하지 못했고, 사촌 역시 고향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어르신 또한 상담을 통해 "이제는 남편 눈치만 보며 억지로 참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겠다"는 주도성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집안 인테리어를 교체하고, 좋아하는 꽃과 화분을 사서 집을 꾸미며 스스로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법을 배워가고 계십니다.

내 안서 타오르는 성냄의 불 끄기

어르신은 가슴에 불덩이를 품은 채,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가족과 주변을 향한 서운함 속에서 긴 세월을 앓아오셨습니다. 초기 불교의 경전인 〈잡아함경〉의 '연소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은 불타고 있다. 눈이 불타고 있고, 귀가 불타고 있고, 코가 불타고 있고, 혀가 불타고 있고, 몸이 불타고 있고, 마음도 불타고 있다. 무엇으로 불타고 있는가? 바로 탐욕의 불, 성냄(분노)의 불, 어리석음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고 있느니라."

어르신의 가슴을 조여왔던 화병은 외부의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 희생했으니 마땅히 가족들이 나를 알아주고 보답해야 한다는 기대와, 그것이 좌절됐을 때 일어난 '성냄의 불길'이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참된 인욕(忍辱)은 무조건 참고 억눌러 내면에 불씨를 묻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삼킨 감정은 언젠가 화병이라는 화마가 되어 자신의 몸과 영혼을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내가 다 챙겨야 한다"는 집착을 조용히 거둬들이는 데서 출발합니다. 가족들이 내 뜻대로 고마워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몫은 그들에게 남겨두고 이제는 어르신 자신의 몸과 마음에 시원한 휴식을 허락해야 합니다.

타인의 인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향한 다정한 자비의 물을 부어주어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이, 40년간 가슴을 태우던 억울함은 비로소 가라앉히고 어르신의 마음에 온전한 평온이 깃들게 할 것입니다.



함상원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어르신상담센터 실장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⑩ 피부에 좋다는 PDRN, 알고 보니

콜라겐 합성 촉진으로 피부 재생 도와

"아들아, 너는 무슨 음식이 제일 맛있어?"

"응, 아빠. 나는 연어초밥. 그냥 연어초밥보다는 위에 양파는 빼고, 겉을 살짝 익힌 게 좋더라."

"연어가 왜 좋아?"

"맛도 있고, 몰라. 피부에도 좋다고 하던데?"

흠칫 놀랐다. 11세 남자아이에게까지 PDRN의 소문이 이미 퍼져 있단 말인가.

몇 년 전부터 피부과나 화장품 성분으로 유명한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 최근 '리쥬비넥스 크림'이라는 제품명으로 유명해진 PDRN은 알고 보면 연어의 정소라는 다소 파격적인 출처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 그냥 연어 추출물로만 알고 있어 "연어도 피부에 좋으니 먹어야지"라는 말이 가끔 들리기도 하는데, 연어를 먹는 것과 PDRN은 확실히 다르다.

PDRN은 연어나 송어의 정액(정소)에서 추출한 DNA 조각을 정제해서 만드는 성분이다. 연어의 DNA는 인간의 DNA 구조와 꽤 유사하면서도 크기가 작아 우리 몸에서 거부 반응이나 면역 반응을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낮다. 1950년대 유럽의 한 제약회사가 연어의 정소에서 조직 재생 능력이 뛰어난 DNA 성분을 추출하는 데 성공해 피부재생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원래 PDRN은 피부 미용이 아니라 당뇨병성 족부궤양(당뇨로 인해 발끝이 썩어들어가는 증상), 심한 화상같이 피부와 조직이 손상돼 잘 아물지 않는 환자의 상처를 재생하고 활성화하는 의약품으로 사용됐다. 그런데 요즘에는 연예인들이나 피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시술받는 '연어주사'와 재생 크림의 핵심 성분으로 아주 유명해져 버렸다.

PDRN은 우리 피부에 들어가서 피부 세포에 "야! 빨리 새살을 돋게 하고 혈관을 만들어줘!"라고 신호를 보낸다. 이로 인해 피부재생에 관여하는 콜라겐의 합성 속도가 빨라지고 손상된 피부가 스스로 복구되는 치유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지금은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또 화장품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PDRN이지만, 과거에는 해외 수입에만 의존하던 아주 비싼 원료였다는 걸 아시는지? 국내 한 기업이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의 생태를 관찰해, 산란 후의 연어 정소에서 PDRN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그 후 이 원료를 사용해 주사제와 연고를 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리쥬비넥스'다. 처음에는 피부 미용 목적이 아니라 피부 이식 부위의 회복, 화상, 족부 궤양 등 정형외과와 피부 외과적 치료에서 조직을 빠르게 재생시키는 의약품으로 알음알음 신뢰를 쌓고 있었다.

이후 이 PDRN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며

연어 정소서 추출 DNA 조각 정제 성분
분자 크기 커 온전한 흡수 쉽지 않지만
피부 상처 관리 · 피부 컨디션 회복 효과

소위 대박을 치게 된다. 각막 미세 손상을 치료하는 인공눈물은 물론, 피부과에서 크게 히트한 '리쥬란 힐러'가 바로 그 제품들이다.

그럼 요즘 PDRN 제품이 화장품으로, 또 의약품으로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성분을 피부에 발랐을 때 정말 효과를 볼 수 있을까?

PDRN이 피부 내에서 혈관을 새로 만들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한다는 기전은 이미 수많은 논문과 임상을 통해 검증돼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분자 크기가 매우 큰 성분이라 단순히 피부에 에센스나 크림으로 바를 경우 피부 장벽을 뚫고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온전히 흡수되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PDRN을 사용한 수많은 화장품은 효과가 없다는 뜻일까?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다. 피부 깊숙한 곳까지는 침투하지 못하더라도, 표피 및 피부 장벽 케어, 손상된 피부 진정, 전체적인 피부 컨디션 회복 측면에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자극이 거의 없어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그렇다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하는 PDRN과 화장품으로 판매하는 PDRN은 어떻게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일단 화상이나 상처 등으로 피부가 손상된 경우라면 의약품 허가 기준에 맞춰 엄격하게 생산되고 관리되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손상된 피부 조직의 재생과 치유를 촉진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로 피부과 시술 후 재생관리나 상처가 생긴 이후 이를 깨끗하게 아물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면 된다.

치료 목적이 아니라 피부 장벽 강화, 보습 등 피부 컨디션 개선을 위해서라면 화장품 제품도 좋다. 최근에는 의약품 못지않게 고함량을 함유한 화장품도 있으니 약국에 물어보고 추천받으면 될 일이다. 자극받은 피부 진정, 피부결 개선, 탄력 보조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알맞다. 의약품처럼 필요할 때만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홈케어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아들과 연어초밥을 먹다가 결국 피부 화장품 이야기까지 하게 됐지만, 아들 녀석은 영내 이야기에 흥미가 없다. 하긴, 아직 피부에 잡티 하나, 여드름 하나 없는 초등학생이 무슨 피부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주제에 지적 호기심을 느끼며 아빠와 토론을 할까.

"아빠, 근데 나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내가 아들을 너무 과소평가한 걸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

"응, 그래. 뭔데? 뭔데?"

"나, 연어 초밥 한 접시 더 먹어도 돼?"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정미년 불교달력은 마하몰로 주문주세요!!

마하몰에서는 불기 2571(서기2027)년 불교달력을 주문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와 사이즈, 더 좋은 이미지와 사진들로 구성된 달력들을 다양하게 준비 하였습니다. 한지, 달력(大, 小), 차걸이, 수첩, 마닐라, 등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제작 · 공급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202호 동심불 이야기 5월


201호 천진불


203호 산사의 향기


204호 암자에 길을 묻다


205호 그리운 금수강산


206호 부처님의 꽃 수련의 세계


208호 밝고 향기롭게


102호 관음도(한지)


211호 마음의 고향


214호 수행정진


215호 견성성불 달마도


216호 부처님의 성지


217호 산사의 꽃 야생화


224호 12별자리와 신비한 부적


참나를 찾아서(차걸이)


오늘은 좋은날 행복한 미소(차걸이)


밝고 향기롭게(수첩)


동심불 이야기 (수첩)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우리 복지관은 지금 17. 양평군장애인복지관

좋아하는 그림이 '나의 일'이 되기까지



올해 6월 개최된 경기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그림 부문 금상을 수상한 콘텐츠 작가 김아람 씨와 동료들의 기념촬영 모습.

양평군장애인복지관은 '바람개비와 함께 보통의 일상을 이루다'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과 복지관, 마을, 이웃이 함께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역량을 키워 직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복지관은 2020년부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관하는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조성 및 운영 사업'에 선정돼 청년들의 웹툰 작가 입문 프로그램인 '그리다, 툰'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참여한 인원은 약 400명이다. 참여자들은 그림을 배우고 디지털 창작 역량을 쌓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 활동으로 일을 이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

프로그램은 기초 미술 교육부터 디지털 드로잉, 클립스튜디오 등 관련 전문 프로그램 활용법까지 폭넓게 진행된다. 현직 웹툰 작가가 참여자의 특성과 숙련도를 고려해, 각자의 강점을 살려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 결과 참여자들의 디지털 드로잉 2급 자격증 취득, 이모티콘 승인·판매, 외부 공모전 수상, 지역 전시회 개최 등의 성과가 이어졌으며, 지난해에는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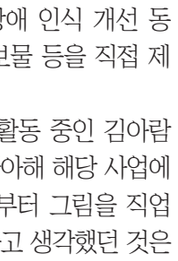
다음 과제는 참여자들의 창작 역량을 지역 사회 내 실제 일자리로 연결하는 것이었다. 양평 지역 내에는 장애인이 웹툰 작가로서 디지털 창작 역량을 살려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복지관은 지난해부터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 사업인 '우리의 시선으로 만드는 콘텐츠-콘텐츠 작가편'을 추진하고, 참여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지역 사회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지난해 5명이 첫발을 내디뎠고, 올해는 기존 참여자 3명과 신규 참여자 2명이 합류해 총 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보완 대체 의사소통 체계(ACC) 안내판과 메뉴판, 장애 인식 개선 동화 삽화, 지역 홍보물 등을 직접 제작한다.

콘텐츠 작가로 활동 중인 김아람 씨 역시 그림을 좋아해 해당 사업에 참여했지만, 처음부터 그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 자신 역량에 확신이 부족했지만, 작가 활동을 통해 새로운 기법을 배우며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해 나갔다.

이후 김 씨는 복지관 공모전 금상, 대전유성구장애인복지관 공모전 우수상을 받았으며, 복지관 리플릿과 행사 포스터 일러스트 작업에도 직접 참여했다. 올해는 경기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그림 부문 금상을 수상해, 오는 9월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한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김 씨는 스스로 주제를 제안하고 작업 방향을 구상하는 등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양평군장애인복지관은 앞으로도 한 사람의 가능성이 배움에 머물지 않고, 실제 직무와 직업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기회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임효진
양평군장애인복지관 대리

남산에서 묻는 마음의 안부 ⑧ 마음의 가을맞이

배움을 위한 쉼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 계절이 바뀌는 순간에는 몸과 마음의 리듬도 함께 달라진다. 뜨거운 햇살 아래 밖으로 향하던 시선은 조금씩 안으로 돌아오고, 분주했던 여름의 속도를 늦추며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생긴다.

남산 충정사의 9월 '남산-숨, 쉼'은 이러한 계절의 변화를 '마음의 쉼'이라는 주제로 바라본다. 공부하고 배우기 좋은 계절이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가득 찬 생각과 감정 사이에 작은 여백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잠시 멈추어 호흡을 살피고 몸의 감각에 귀 기울이며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남산-숨, 쉼'이 제안하는 가을맞이의 방식이다.

선불교에는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 곧 '평상한 마음이 바로 도'라는 말이 있다. 〈무문관〉에서 조주가 남전 선사에게 도가 무엇인지를 묻자 남전은 특별한 경지를 가리키지 않고 평상심을 이야기했다. 수행이 일상과 동떨어진 특별한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차를 마시고 걷고 숨 쉬며 사람을 만나는 평범한 순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다. 쉼 역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마음을 고르게 하는 시간이 된다.

계절 변화 속 '마음의 쉼' 주제 선명상

쉼, 내면으로 주의 모으는 적극적 돌봄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을 위한 준비 과정

우리는 흔히 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명상에서 쉼은 단순한 멈춤과는 조금 다르다. 바깥으로 흩어졌던 주의를 자신의 호흡과 몸, 마음으로 되돌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적극적인 돌봄의 시간이다. 생각을 억지로 비우거나 감정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조용히 알아차리는 동안 마음에는 조금씩 여유가 생긴다.

특히 가을은 새로운 배움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책을 읽고, 무언가를 공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배움이 온전히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역시 필요하다. 쉼 없는 배움은 어느 순간 부담이 되지만, 쉼이 함께하는 배움은 자신을 이해하고 삶을 성장시키는 힘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명상은 더 깊이 보고 듣고 이해하기 위해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9월의 남산에서 잠시 숨을 고른다. 여름 동안 쌓인 피로를 내려놓고 선선한 바람을 느끼며 지금의 나를 살펴본다.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묻기 전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다. 계절이 자연스럽게 여름을 놓고 가을을 맞이하듯, 우리 역시 붙잡고 있던 생각과 감정에 잠시 여백을 내어줄 수 있다. 가을은 채우기 좋은 계절이지만, 잘 채우기 위해 먼저 마음에 자리를 내어주는 계절이기도 하다.

9월 '남산-숨, 쉼'이 건네는 쉼은 잠시 현실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아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 자신의 호흡과 마음을 다시 만나고, 더 잘 배우고 관계 맺고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시간이다. 어쩌면 남전 선사의 말처럼, 우리가 찾던 수행의 길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하루 안에 이미 놓여 있는지도 모른다.



덕운 스님
서울 충정사 주지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㉜ 사바를 건너는 법

수종사 가는 길은 남편과 함께였다. 초보 운전자라면 앞바퀴가 들려 머리 뒤로 넘어갈 것 같은 공포감을 느낄 만한 급경사 길을 올랐다. 그런 다음 또 가파른 계단을 걸어 오르는데 남편이 앞에서 손을 잡아준다. 늘그막에 무슨 이득 볼 일도 없으면서 절 찾아다니는 모습이 안쓰러웠던 모양이다. 지금껏 살면서 이런 적이 있었던가? 기억을 짜내야 할 정도로 무뚝뚝한 경상도 사람이다. 부처님의 가피인가 싶다.

운길산 수종사.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다. 조선의 학자 서거정이 "동방 사찰 가운데 으뜸의 풍광"이라 상찬했다는 경치를 일상으로 누리는 절이다. 다성으로 일컬어지는 초의 스님,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같은 분들이 이 절에서 차를 마시며 시를 얻었다. 그래서 수종사에서는 한강을 조망하는 자리에 집을 짓고 삼정헌이라는 당호를 붙였다.

수종사 삼정헌 쪽마루에 모녀로 보이는 두 사람이 아득히 한강을 바라보고 있다. 이 모녀의 시간도 저 강물처럼 흘러왔을 것이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따르며. 이제 모녀의 시간은 '장강의 뒤 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내듯' 서로의 자리를 바꾸어 갈 것이다. 우리의 한생은 그렇게 흐른다. 손을 내밀어야 할 때가 있고 잡아야 할 때가 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사바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괴롭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손영자 작가



수종사 삼정헌.



선택받는 자리의 무게

현불논단



설해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끝나고 이제 종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321명의 선거인단에 포함된 필자는 얼마 전 종단의 미래를 이끌 총무원장이라는 소임에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는 자리에 있었다. 이제는 비구니 종회의원이라는 소임을 맡을 적임자로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됐다. 선택하는 자리에서 선택받는 자리로 옮겨 서니 마음이 한층 무거워진다.

4년 전 처음 종회의원에 입후보했을 때의 생각은 단순했다. 스님들의 수행 환경을 향상시키고 종단 발전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제안하면 대중이 뜻을 모으고, 필요한 일들은 하나씩 추진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종회 활동을 하면서 하나의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종책이 현실이 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해야 했고, 때로는 오랜 시간 설득하고 기다려야 했다. 이러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다시 종회의원에 입후보하고 보니 걱정은 오히려 많아졌다. 그러나 그만큼 원력은 더욱 굳건해졌다.

스님들에게 소임은 단순한 직책이 아니다. 직책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사부대중의 기대와 종단의 미래를 위해 바르게 사용할 때 비로소 그 소임에 대한 보람과 만족, 명예도 따라온다. 대중의 선택을 받아 소임을 맡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부대중과 종단을 위한 종회의원 소임
지속가능한 종책과 제도에 책임감 필요
공심·약속 실천으로 종단 미래 열어가야

를 얻는 일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맡는 일이다.

총무원장이라는 소임은 종단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 좁게는 큰 사찰과 작은 사찰, 도시 사찰과 산중 사찰, 비구와 비구니, 노스님과 갓 출가한 스님, 출가자와 재가불자를 두루 살펴야 한다. 넓게는 이웃종교와의 관계, 사회·국가와의 관계를 고민하고 인구 감소와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불교의 역할도 고민해야 한다.

종회의원이라는 소임도 다르지 않다. 종헌·종법을 제·개정하기 위한 하나의 법안 발의, 종회에서 한 번의 발언과 한 번의 표결이 눈앞의 이해관계를 넘어 10년, 20년 후 한국불교와 조계종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4년이라는 기간에 만들어진 좋은 법과 제도, 올바른 종책 하나가 종단과 사부대중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에 대중의 선택을 받은 소임자는 '내가 무엇을 했는가'보다 '종단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소임자가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 백년대계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소임을 살아야 한다.

출가자가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된 수행 환경을 만들고, 비구와 비구니를 비롯한 사부대중이 더욱 평등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불교가 우리 사회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한국불교와 조계종의 밝은 미래는 소임자가 공심을 잃지 않는 것, 대중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앞날을 생각하며 법과 제도를 만들고 종책을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대중의 선택을 받은 소임자가 지켜야 할 책임이며, 필자가 다시 종회의원이라는 소임을 발원하는 이유다.

필터버블 시대의 중도

세간과 출세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스마트폰 화면을 넘길 때마다 관심 있을 법한 영상과 뉴스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무엇을 검색·클릭했는지, 어느 화면에 오래 머물렀는지를 학습한 알고리즘의 결과다. 이러한 개인화는 편리하지만, 자신의 선호 정보와 견해만 반복적으로 접하는 필터버블(Filter Bubble)을 낳기도 한다. 여기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관계망이 더해지면, 신념이 메아리처럼 반복·증폭되는 '에코챔버(Echo Chamber)'가 형성될 수 있다.

그렇다고 알고리즘만을 사회적 갈등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알고리즘의 추천 못지않게, 이용자의 선택과 관계 맺는 대상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플랫폼은 이용자의 관심을 붙드는 정보를 추천하고, 이용자는 다시 자신의 취향과 신념에 맞는 정보를 선택한다. 이 순환이 반복될수록 다른 생각을 접할 기회는 줄어들고, 자신의 판단은 점점 견고해진다.

이 과정을 불교의 업(業)과 인연(因緣)에 빗대어 보면 흥미로운 결이 드러난다. 오늘 내게 주어지는 정보는 온전히 외부에서 강요된 것만은 아니다. 지금까지 검색·클릭하고 시청해 온 나의 선택과 습관 또한 하나의 조건이다. 반복된 선택이라는 '인(因)'과 플랫폼의 기술적·경제적 구조라는 '연(緣)'이 만나, 개인화된 정보 세계라는 '과(果)'를 빚어낸다. 인간이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고, 알고리즘은 다시 인간의 선택에 관여한다. 이

알고리즘 학습이 선택에 재관여 굴레
다른 가능성 배척 않는 중도 지혜 要
선택·배척 자각해 사고의 틀 탈피해야

른바 디지털 업의 굴레이다.

이 굴레를 넘어서는 지혜로 중도(中道)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중도란 자신의 견해를 절대화하여 다른 가능성을 배척하지 않는 태도에 가깝다. 이는 대행 선사가 강조한 '둘 아닌 도리'와도 맞닿아 있다. 대행 선사는 내 몸 하나만 보더라도 수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공생이며, 세상의 모든 존재 또한 그렇게 더불어 살아간다고 설했다.

알고리즘은 끊임없이 세상을 '나와 같은 것'과 '나와 다른 것'으로 가른다. 우리 또한 익숙한 주장에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낯선 견해 앞에서는 먼저 벽을 세운다. 그러나 중도의 시선은 자신의 판단에 집착해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나라 말한다. 타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놓인 배경과 맥락을 살피는 것, 거기서 소통이 비로소 시작된다.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것은 자각의 클릭이다. 자극적인 제목에 손가락이 움직이기 전, 잠시 멈춰 내가 왜 이 정보에 이끌리는지 돌아보는 일이다. 알고리즘이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 다른 목소리를 의식적으로 찾아 나서는 일이다. 경청이란 상대 주장에 무조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만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는 행위다. 물론 개인의 성찰만으로 알고리즘의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플랫폼 역시 추천 구조의 투명성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자극적 정보가 과도하게 증폭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알고리즘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정보의 흐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배척하는지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된다. 나와 다른 목소리를 적으로 돌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에 매이지 않는 것이다. 확증편향과 분열의 시대, 이러한 중도적 커뮤니케이션이야말로 서로를 다시 잇는 지혜이자, 우리가 이 시대에 실천해야 할 또 하나의 수행일 것이다.

社 說

기후재난, 자비 넘어 연대로

최근 네팔과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는 자연재해가 얼마나 빠르게 복합재난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네팔과 티베트에서 수천 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고 가옥과 도로, 교량은 물론 수력발전시설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번 참사는 기후위기가 재난의 규모와 양상을 바꾸고 있다는 점을 극명히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빙하 붕괴와 홍수, 산사태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위험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네팔이 국제사회에 '자선이 아니라 기후정의와 보상'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네팔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은 국가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떠안고 있다. 네팔의 호소는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현실을 국제사회에 묻는 목소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연재해가 복잡재난으로 확산되는 시대
연기 가르침 바탕, 기후정의 실현 나서야

인도네시아에서는 가뭄과 산불이, 유럽에서는 폭염과 산불이, 일본에서는 극한호우가 반복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한반도 주변 해수온 상승은 앞으로 더욱 강한 폭염과 집중호우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고 관계 맺으며 살아간다는 연기(緣起)의 가르침은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깊은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 배출한 탄소와 훼손한 자연환경이 결국 다른 지역, 다른 생명, 그리고 미래세대의 삶을 위협한다.

자비의 실천은 이러한 인식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한국 불교계가 긴급 모금을 시작하고 현지에 구호단을 파견하는 것은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자비행이다.

그러나 기후재난 시대의 자비는 구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재난의 원인을 줄이고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에 기후정의는 재난을 예방하고 책임을 함께 나누는 사회적 실천이다.

불살생계 또한 오늘날에는 그 의미를 넓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는 가르침은 생명을 길러내는 산과 강, 숲과 바다의 가치를 존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줄이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개인의 절약과 친환경적 생활도 중요하지만,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비롯한 사회 전체의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6'에서 평가 대상 67개 국가·지역 가운데 63위에 머물렀다. 기후위기의 피해를 우려하면서도 그 원인을 줄이는 노력에는 소극적이라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라고 하기 어렵다.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그 피해는 국경과 세대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그러기에 기후재난 앞에서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연대이며, 자선에 머물지 않는 기후정의다.

자비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실천을 통해 완성된다. 기후위기 시대 불교가 보여줘야 할 자비는 고통받는 이를 돕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연대를 이끄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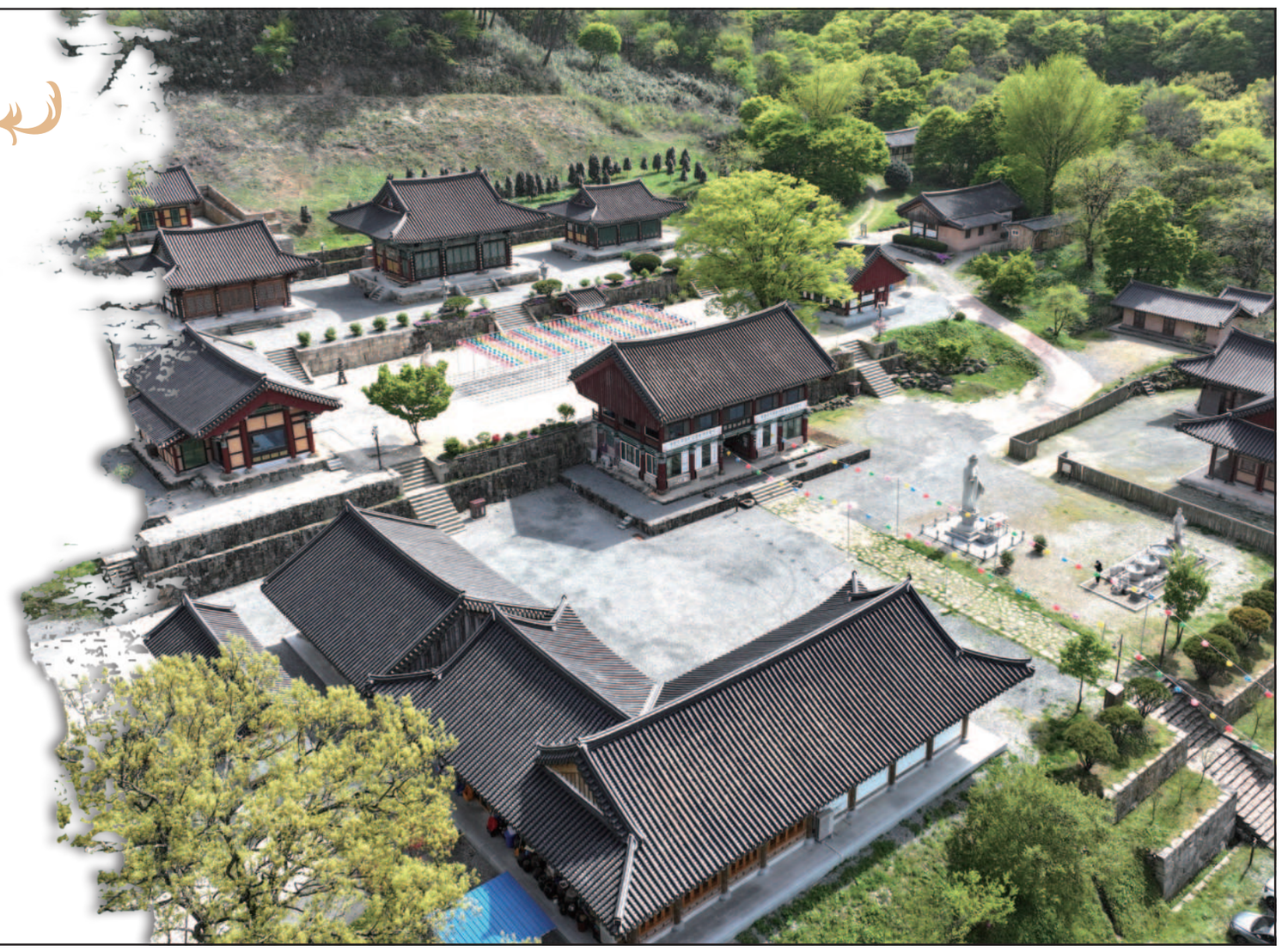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
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의 염불시설한 베테랑업체!
전화하시면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 부근을 지날때 본사 유선마이크로 소리 비교만 해 드린 후 신속히 사라짐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 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본 제품은 무선마이크
시중에 없음
마이크 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도 성우 음성으로 화답!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구산 용흥사

주 지 덕 유

사부대중 일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월산면 용흥사길 442
전화 061)382-0574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꿈이 이루어지는 낙산사

조 실 설악 무산

기 도	관성 선우 법정 본수
주 지	일념
총 무	본일
기 획	설호
포교·연수원장	선일
템플연수국장	지월
템플연수과장	법명
홍련암기도	원주 일도 광현 혜림
신도회장	방양호
관음회 회장	김순옥
문수회 회장	양은숙
바라밀회 회장	박상혁
의상회 회장	조은주
불교대학회장	윤여경
합창단장	김선래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033)672-2447~8 www.naksa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백 담 사

사부대중 일동

강원도 인제군 북면 백담로 746
■ 종무소 전화 033)462-6969 | www.baekdamsa.or.kr
■ 템플스테이 연수원 전화 033)462-5565,5035 | baekdam6969@daum.net

